

Jeonbuk Institute

기본연구

2022-01

현대사회의 위험과 문화의 기능에 관한 사례 연구

장세길 신지원 조현성 육수현



Jeonbuk Institute

기본연구

2022-01

현대사회의 위험과 문화의 기능에 관한 사례 연구

장세길 신지원 조현성 육수현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장세길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 4장
공동연구	신지원	전문연구원	제2장 2절~3절, 3장 3절
초빙연구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장 1절~3절 일부
	육수현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제3장 4절 일부

연구관리 코드 : 21GI0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 이후 파편화된 현대사회의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문화의 가치를 정립하여 현대사회에서 문화를 진흥하는 공적 당위성을 살펴보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복지국가가 역사적으로 시장 중심 자본주의 위험에서 등장했듯이 이 연구에서는 문화도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는 전제 아래, 위험과 관련한 문화의 사회적 기능에 집중하고자 한다.
- 첫째, 현대사회의 위험을 살펴본다. 위험을 사회학적 주제로 발전시킨 올리히 벡(Beck, 1986)에서 출발하여 기든스(Giddens, 1991), 바우만(Bauman, 2010) 등으로 이어지는 주장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사회를 전망한 연구를 종합하여 현대사회의 위험을 검토한다.
- 둘째, 문화의 기능을 분석한다. 문화가 내재하는 공적 가치는 대체로 심미적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등으로 이야기되는데, 이러한 기능이 시대적 환경에 따라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펴본다.
- 셋째, 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의 사회적 기능 분야로 ‘문화적 사회혁신’, ‘문화적 환경위기 대응’, ‘문화적 돌봄’, ‘문화적 치유’를 제안하고, 분야별로 필요성과 개념을 살펴본 뒤에 관련 사례를 소개한다.
- 끝으로,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문화의 사회적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제안한다. 이 연구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사업을 계획하는 정책과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론을 검토하여 새로운 정책 혹은 의제를 발굴하는 기본 과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기보다 문화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기초 정보 제공에 집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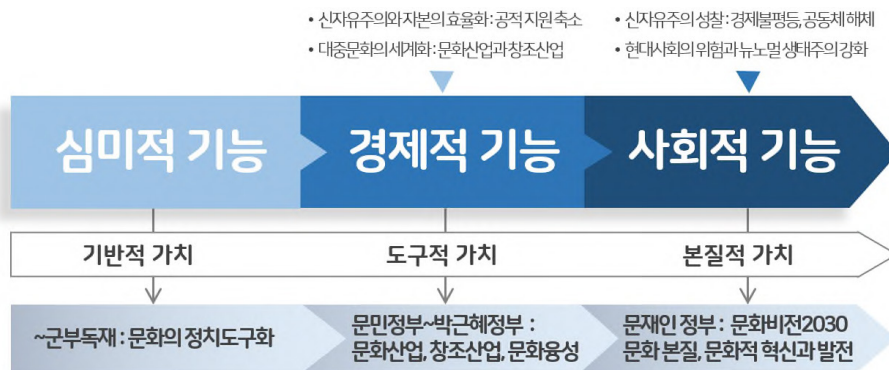
2. 현대사회의 위험과 문화의 기능

- 울리히 벡(1986)은 현대사회가 세계화, 개인화, 고용감소와 생태 위기라는 네 가지 과정에 의해 산업사회와는 다른 국면, 즉 위험사회에 처해 있다고 본다. 기든스(Giddens, 1991), 바우만(2010), 한병철(2012) 역시 현대사회의 위험과 공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과로 생각한다. 세계화, 정보통신 발전 등으로 형식적 독립과 자유를 얻었으나 사회적 연대가 사라져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주의)의 모습이 곧 위험이다. 또 핵으로부터의 위험, 기후변화 등 인간의 인지를 벗어난 지구적 생태 위기는 자본주의 효율성과 고도화된 과학·기술이 만들어 낸 위험이다. 코로나19 대유행도 발전주의적 과학 기술 사회와 무관하지 않다.
- 여러 학자가 분석한 내용과 코로나 팬데믹에서 불거진 지구적 위기를 종합하면, 현대사회의 위험은 개인과 사회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신뢰 관계가 무너진 불확실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존재론적 안전의 불안정성이며, 둘째, 자본주의 효율성과 고도화된 과학·기술이 만들어 낸 지구적 위험으로서 환경 위기이다.
- 현대사회의 위험은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대응 역시 사회적이어야 한다. 존재론적 안전의 불안감에 힘들어하는 개인일지라도 이들이 처한 위험은 신자유주의의 효율화가 불러온 사회적 신뢰 관계의 변화(Giddens, 1991), 노동의 유연성에 따른 두려움의 노동 윤리(Ciulla, 2001), 피로사회(한병철, 2012)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환경 위기 역시 발전주의 기반의 과학·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빚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있는 위험사회에서 개인화는 여러 위험의 원인이면서 현대사회의 새로운 원리로 작동한다. 벡에 따르면, 노동 유연화를 부른 경영 합리성의 급진화는 노동자의 계급 정체성을 개인화하였다. 위험을 생산하는 과학·기술 합리성은 정치를 개인화해 제도 밖의 하위정치를 발생시켰다. 위험은 개인을 통해서만 인식되므로 개인이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 현상, 공민(citoyen)정치가 등장하였다.
- 현대사회에서 신뢰는 규범과 제도가 담보해 내는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상호작용해야 얻을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추상 체계 내에서 구

성하고 찾아야 한다. 현대사회의 개인과 관련한 위험은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하다. 달라진 신뢰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공인된 처방(Bauman, 2010)을 제공해야 한다. 산업사회의 실업과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회복지가 탄생한 것처럼, 정신적 심리적 불안감 속에서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신적 심리적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벡이 말하는 하위정치, 기든스가 말하는 생활정치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공동체는 개인화, 소외 등 현대사회 병리적 현상을 해결해 줄 긍정적인 가치로 재현되기도 하고, 전체주의적이고 폐쇄적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래서 공동체에 관한 통일되고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는 게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자기 개방의 상호성을 통해 유지해야 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사회적 결속 등의 핵심이다.
- 개인의 존재론적 안전의 불안정성이라는 정신적 심리적 위험, 이러한 위험의 대응으로서 공동체적 하위정치(생활정치) 등은 위험의 대응으로 '문화'가 중요함을 증명한다. 문화는 소통을 특성으로 하며, 소통을 통해 상징체계를 공유하고,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 또 문화는 정신적 심리적 영역이다. 즉 현대인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는 대응으로서 문화적 처방이 필요하다.
- 발전주의적 산업사회에서 비롯된 환경 위기는 생태주의적 문명으로 전환해야 가능하다. 김기봉(2020)은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문명을 문명의 생태적 전환, 근대 발전주의 문명 공식의 해체, 디지털 공간으로의 전환으로 설명한다. 진정한 뉴노멀은 발전주의적 문명을 해체하고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공존과 공생, 그리고 새로운 발전으로서 공진화에 있다(이흥재, 2013). 공진화의 출발은 공존이며, 문화다양성이 곧 공존이다. 이는 생태주의 문명이 공존이라는 문화적 가치의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환경 위기 대응에서도 문화적 실천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 문화의 공적 가치를 다루는 연구를 보면 대체로 본질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구분한다. 문화의 가치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강조되는 가치가 달라졌다. 심미적 가치를 강조하던 시대를 지나,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등장한 창조산업 시대에는 경제적 가치가 강조되었고, 신자유주의 효율화의 한계가 드러난 이후에는 문화의 본질로 회귀하자는 움직임과 함께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었다.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서 비롯된 개인의 존재론적 안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방안, 즉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커졌다. 영국에서는 예술의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으로 사회적 고독과 소외를 해소하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의 사회적 기능이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문화의 심미적 기능을 본질적 가치라는 말 대신, 심미적 기능이 문화의 공적 가치의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기반적 가치’로 개념화하고, 심미적인 문화 활동 자체가 사회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 가치로 설정한다. 경제적 효과는 문화가 도구로 활용되어 얻어진 부수적 결과라는 측면에서 기존처럼 도구적 가치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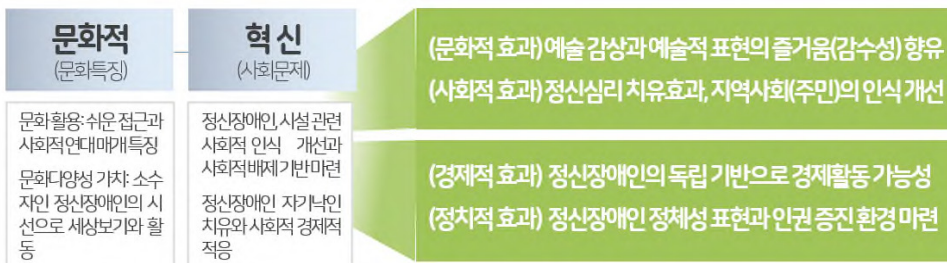
3. 문화의 현대적 기능 사례

- 현대사회의 위험은 개인의 존재론적 불안감과 환경 위기 등 사회적 불확실성에 있다. 개인의 존재론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에는 현대인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다. 고도화된 과학 기술에서 불거진 환경 위기와 관련해서는 공존, 공생, 공진화로 이어지는 생태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응하는 문화의 사회적 기능 분야로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 첫째, 문화적 사회혁신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적’이라는 말에는 문화예술을 활용(문화예술을 통한 주민참여, 문화예술을 활용한 문제해결 방법)한다는 점과 문화다양성의 가치(소수문화의 표현과 창의성)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문화적 특성은 사회혁신에서 문제로 지적받는 주민 주도(참여)가 미흡함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접근이 쉬운 문화예술을 활용하고, 소수를 중시하는 문화다양성의 원리가 주민의 접근성을 향상하여 참여와 주도성을 높인다.
- 문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문제를 주민의 삶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개인의 삶, 사회적 관계, 지역발전이라는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개인의 삶과 관련한 혁신의 목적은 개인이 원하는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는 데 있다. 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활동은 개개인의 욕구보다, 문화를 누리거나 문화를 매개로 하는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목적을 가진다. 관계 기반이 없는 이주민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관계를 맺어 지역에 정착하려는 활동이 예다. 지역발전 목적의 활동은 다양한 문화자원 또는 문화적 활동을 통해 낙후 지역을 활성화하거나 공동화된 도심을 재생하거나, 지역경제를 진흥하거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지역 브랜드를 창출하는 목적을 가진다.

〈문화적 사회혁신으로서 아리아리 활동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효과〉



- 둘째, 문화적 환경위기 대응이다. 노영순·장훈(2021)은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적 관점을 “문화예술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때 환경보전을 우선 고려하고 기후변화 등 위해(危害)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또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적 관점과 관련한 정책 방향은 대상(對象)과 동인(動因)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은 친환경적 활동을 해야 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환경 문제에 대한 문화적 접근으로서 사람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하거나 연대하게 만드는 동인이라는 뜻이다.
- 환경 이슈에서 문화의 역할은 두 가지로 이야기된다. 인간 중심적 인식의 전환과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에 대한 ‘번역자로서 문화’, 친환경적 삶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동인으로서 문화’가 그것이다. 두 관점 모두 환경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 번역자로서 동인으로서 역할을 말한다. 하지만 생태음악학이나 ‘강 숲 보호 프로젝트’처럼 환경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예술이 실천되는 예가 적지 않다.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노영순·장훈(2021)이 말한 대상과 동인으로서 문화라는 기능에, 환경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방안(方案)이라는 기능을 더하고자 한다. 이는 번역자로서 문화, 인식 전환의 동인으로서 문화와 함께 환경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실천으로서 문화를 의미한다.

〈문화적 환경 위기 대응의 방향〉

방향 구분	친환경 관점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方案)으로서 문화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발견하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친환경 활동의 대상(對象)으로서 문화	문화예술 관련 모든 행위 시 환경보전을 우선 고려하고 기후변화 등 위해(危害)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
친환경 생활의 동인(動因)으로서 문화	환경이슈 관련 소통과 해결, 연대의 동인(driver)으로서 문화예술을 인정하고, 문화와 환경의 통합에 노력하는 것

- 셋째, 문화적 돌봄이다. 문화적 돌봄은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 차이에 주안점을 두며, 돌봄민주주의 실천으로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집단 문화에 대해 대상자 측면에서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연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행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돌봄은 두 가지 형태(광의, 협의)로 나뉘어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다.

- 광의의 개념에서는 문화가 돌봄 ‘대상’으로서 위치하며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적 행위로부터 (개인과 집단의 형성된) 문화를 돌보며 유지와 회복을 위해 실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 동등하게 기본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천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 협의의 측면에서는 문화를 통한 삶의 질적 수준 제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 제공을 의미한다. 이는 ‘방법’으로서 문화적 돌봄을 강조하는 것으로 문화를 통해 계층별 차이에 따라 맥락화된 문화적 돌봄 수행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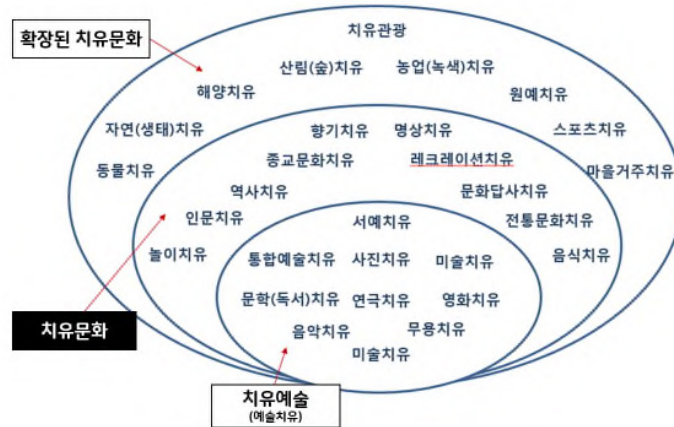
〈문화적 돌봄의 개념과 대응 방향〉

구분	내용
돌봄의 “대상”으로서 문화 (광의의 개념)	• 돌봄윤리 실천 • 돌봄대상의 문화를 돌봄 • 문화다양성 가치 기반 돌봄 대상의 유지와 회복 중시
돌봄의 “방법”으로서 문화 (협의의 개념)	• 문화의 수단화 • 문화예술향유 중심 • 계층별 문화에 따라 차별화된 문화적 돌봄 제공(맥락화)

- 넷째, 문화적 치유이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치유문화는 치유 중심 치유농업처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적 활동이다.
- 구체적인 영역을 살펴보면, 기존에 문화 현장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예술치유는 미술, 사진, 공연, 음악, 무용과 같은 예술을 활용하는 치유적 활동(교육, 창작, 관람, 체험 등)이다. 치유문화는 더 넓은 개념으로, 예술 분야와 더불어 인문(역사, 철학, 문학 등), 종교문화, 유무형 문화재 등 문화유산, 음식 등 전통생활문화 등까지 포함한다. 고창군(2019)에서는 해양, 생태, 동물, 농업, 스포츠 등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치유문화를 치유예술을 포함하여 전통문화와 정신문화, 인문 등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설정한다.
- 치유문화는 치유를 목적으로 하므로, 치유농업에서 실행 주체가 농장주가 아니라 치유농업사(치료사)이듯이 치유문화의 실행 주체는 예술가가 아니라 치유예술가 또는 예술치료사가 되어야 한다. 치유를 목적으로 하려면 실행하는 활동(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제공 등)이 치유 또는 치료적 효과가 나타나야 하고, 객관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문화 활동을 진행하는 사례, 임상시험으로 객관적 치료 효과를 증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원예치료 사례를 살펴보았다.

〈문화적 치유의 범위〉



4. 전라북도 문화정책에 대한 제언

- 현대사회의 위협에 대응한 문화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하여 지역문화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기능과 관련한 영역이 문화정책의 주요 분야로 설정되어야 한다.
- 사회적 효과와 관련한 문화 활동은 대체로 다른 분야를 보조하는 매개 수단으로 활용된다. 도시재생에서 문화 프로그램이 그러하고, 농촌개발에서 문화시설이 그러하다. 경제에서도 문화는 감성을 자극하는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 이는 문화가 현대사회에서 중요해졌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면서도 한편으로 문화가 독자적인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채 다른 분야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소비됨을 말해준다. 독자적 영역으로서 문화의 사회적 기능 관련 정책 개발이 필요한 이유이다.
-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예술인복지 등은 모두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활동과 관련된다. 이 개념이 독자적으로 정책화되기 전에는 전문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하고 이를 주민이 즐기는 이른바 예술진흥사업에 모두 포함되었다. 독자적 영역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이다.

- 하지만 주민의 수요가 늘어나고 사회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등은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독자적인 문화 영역으로 구축되었고, 창작을 활성화하는 지원사업과 별개로 예술인복지라는 정책영역이 만들어졌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의 사회적 기능이 필요해지는 만큼 사회혁신, 생태예술, 치유문화 등이 국가와 지역에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과제를 살펴보면, 문화행정 관계자, 지역문화(예술)인, 문화 분야 공적 조직(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시설 등) 관계자, 기타 문화정책 관련 종사자 등에게 문화의 사회적 기능의 필요성과 적용 방향을 알리는 게 우선이다.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문화가 왜 중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를 실현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문화 활동을 기획·실천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구상하는 공론화 장(場)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문화정책 토론회·세미나·포럼 등에서 주제로 다뤄지길 기대한다.
-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지역문화 관련 법정계획에 담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제2차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계획(2023~2027)이 수립된다. 이 계획에서 핵심 이슈는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화이다. 문화집중화에서 문화자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이 계획에 문화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교육지원 방향과 실천과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 둘째, 문화 분야 지원사업의 방향과 체계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원되는 문화사업을 보면 대개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집중된다.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거나, 주민이 창작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수혜자는 주민 개개인이며, 지원 목적은 주민의 문화적 취향 또는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다.
-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지원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 공동체를 지원하더라도 사업의 목적이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을 완화하고 이주민의 정착을 돕고자 한다면 이는 기존과 다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환경 전문가 참여가 필수이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조건에 환경 전문가의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 문화의 사회적 기능이 목적인 사업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구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사업을 기획하고,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실행한다. 사회적 기능에 필요한 전문역량도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술가가 창작 활동 과정으로 하는 치유나 돌봄이 아니라, 치유와 돌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실행 주체로 나서야 한다. 독자적인 영역으로 실천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문화사업을 처음부터 문화적 욕구 해소와 사회문제 해결형으로 구분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또는 사회적 기능과 관련한 사업에는 관련 전문인력을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지원할 때 문화교육사 참여를 유도하듯이, 치유나 돌봄이나 환경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관련 단체(의료·보건단체, 사회복지단체, 환경단체)와 협업하도록 유도하는 지원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 셋째, 현대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적 기능 유형을 더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는 세부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문화적 환경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으로서 문화시설 등이 추진할 과제, 지역주민의 인식을 전환할 동인으로서 문화사업의 방향과 지원계획, 문화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대상의 발굴과 실행 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기존의 예술 장르 중심, 개인 취향 중심의 전달체계로는 불가능하다. 새로운 가치에 부합하는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에 대해서도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
- 문화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나마 진행하는 효과 측정도 실증적이지 않다. 문화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게 어렵지만, 기존 연구는 대체로 문화가 미치는 영향을 맥락에 의존하여 추상적 수준에서 검토하는 한계를 보인다. 문화의 사회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체계화하여야 독자적인 정책 분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여러 사례가 보여주듯이 문화의 다양한 사회적 효과는 분명하다. 이를 측정하여 그 효과를 객관화하는 방법이 더해져야 치유농업의 법제화처럼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문화 분야의 법제화가 가능하다.

차 례

CONTENTS

요 약	i
-----------	---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내용	3
1) 연구 목적	3
2) 연구 내용	6
2. 연구 체계	7
1) 주요 개념	7
2) 연구 방법	9

제2장 현대사회의 위험과 문화의 기능

1. 현대사회와 위험	13
1) 신자유주의와 위험	13
2) 위험에 대한 대응	19
2. 문화의 가치 및 기능	26
1) 공공재로서 문화의 가치	26
2) 문화의 복합적 기능	28
3) 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논의 : 영국 사례	32
3. 문화의 기능 관련 정책적 설정 흐름과 과제	37
1) 정부별 문화정책의 주요 가치	37
2) 기존 정책의 성과와 과제	41

제3장 문화의 현대적 기능 사례

1. 문화적 사회혁신	47
1) 필요성과 개념 검토	47
2) 문화적 사회혁신 사례	53
2. 문화적 환경위기 대응	65
1) 필요성과 개념 검토	65
2) 문화적 환경위기 대응 사례	70
3. 문화적 돌봄	84
1) 필요성과 개념 검토	84
2) 문화적 돌봄 사례	88
4. 문화적 치유	96
1) 문화적 치유의 필요성과 개념 검토	96
2) 문화적 치유 사례	102

제4장 결론

1. 현대사회의 위험과 문화의 기능	113
2. 전라북도 문화정책에 대한 제언	118

참 고 문 헌	125
---------------	-----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문화의 개념 구분	7
[표 2-1] 스로비(Throsby)가 제시한 문화의 가치	30
[표 2-2] 예술 활동 참여의 사회적 영향 분류	32
[표 2-3] 커뮤니티의 문화발전을 위한 예술의 주요 성과	34
[표 2-4] 문화의 3대 가치	35
[표 2-5]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의 효과	36
[표 3-1] 사례조사 대상 문화공동체 개요	54
[표 3-2] 완주군 문화공동체의 관심사와 활동에 대한 변화	56
[표 3-3] 문화공동체 아리아리의 문화 활동 사업 추진과정	59
[표 3-4]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적 관점에 대한 방향 설정	67
[표 3-5] 문화적 환경 위기 대응의 방향	69
[표 3-6] 좋은 돌봄의 단계와 도덕적 기준	86
[표 3-7] 문화적 돌봄의 조작적 정의	87
[표 3-8] 부산 '기억의 집'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94
[표 3-9] (사례)덴마크 야외민속박물관 기억의 집	95
[표 3-10] 치유농업 관련 주요 용어	97
[표 3-11] 일반적인 예술치유 관점에서 바라본 치료와 치유의 관계	99
[표 3-12] 원예치료의 효과	107
[표 4-1]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계획에 대한 제언과 문화의 사회적 기능 적용 예시	121
[표 4-2] 지역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사업의 공모 사례: 완주문화도시 '메인드 인 00' 사업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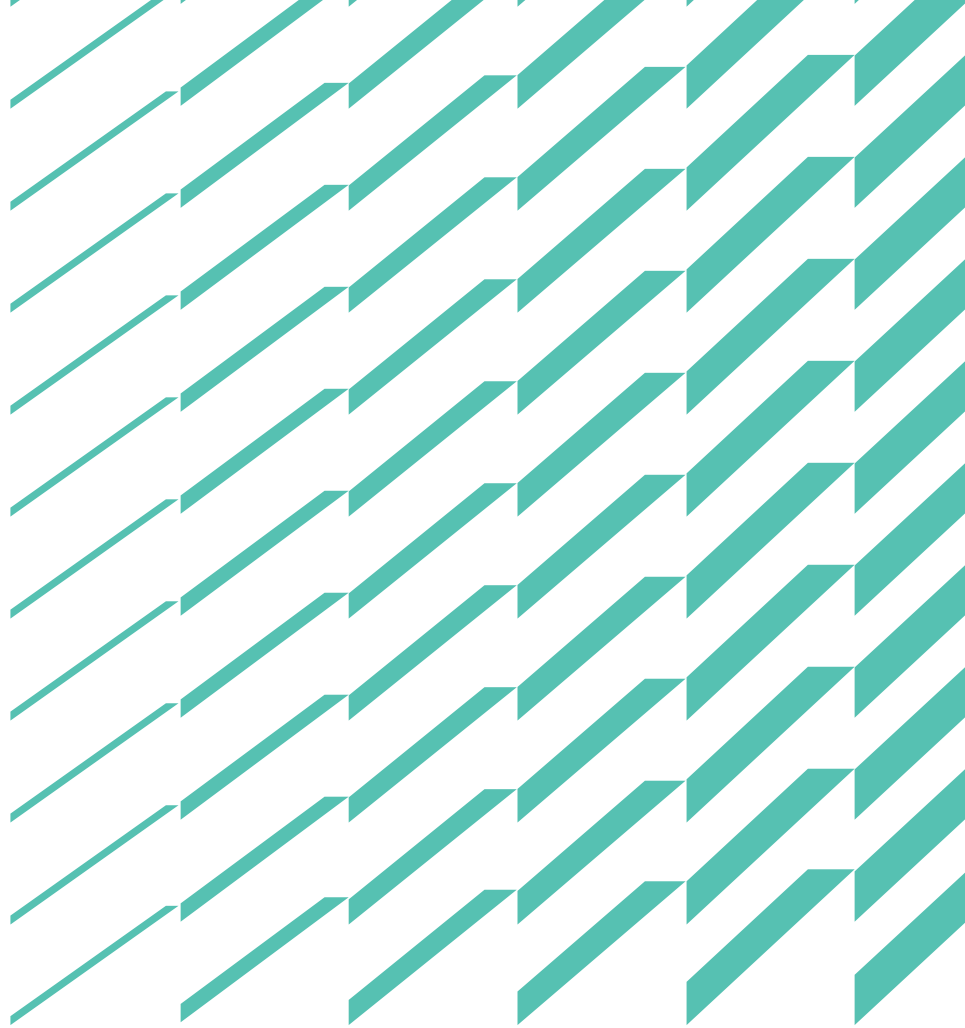
[그림 2-1] 예술 편익에 대한 랜드연구소 분석틀	29
[그림 2-2] 스로비의 동심원 모델	30
[그림 2-3] 문화비전 2030의 가치와 배경	41
[그림 2-4]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문화의 주요 기능에 대한 흐름	42
[그림 3-1] 문화공동체 아리아리의 사진교육과 활동 과정	60
[그림 3-2] 매드프라이드(Mad Pride)	63
[그림 3-3] 아리아리 주도의 랜선 축제	63
[그림 3-4] 아리아리 활동의 단계별 변화와 가치 창출 과정	64
[그림 3-5] 문화적 사회혁신으로서 아리아리 활동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효과	64
[그림 3-6] Pierre Huyghe: After A Life Ahead	68
[그림 3-7] 네바다 분수령을 휘감은 버드나무 벽(River Fork Ranch Flood Plain Wall)	71
[그림 3-8] 메리와 다니엘 작업하는 모습	72
[그림 3-9] 파트너사와 작업하는 모습	72
[그림 3-10] 마리와 다니엘의 작품	72
[그림 3-11] 작품명 : 조류 서식지 보호	72
[그림 3-12] 작품명: 다중서식지 샘플링	72
[그림 3-13] 피그푸트 극단 홈페이지	74
[그림 3-14] 학생 대상 워크샵 모습	74
[그림 3-15] 'How to save a rock' 공연	74
[그림 3-16] 종이로 만든 북극곰 가면	74
[그림 3-17] 공연하는 모습	74
[그림 3-18] 프린지 페스티벌의 탄소 배출 절감 목표와 세부 계획	75
[그림 3-19] 업사이클링 아트로 다시 태어난 페트병	76
[그림 3-20] 페트아트(Pet-art) 미술관	76
[그림 3-21] 리히터바 전시 포스터	76
[그림 3-22] 홍콩 빅토리아파크의 돔	77
[그림 3-23] LED 활용한 돔의 외형	77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3-24] 생수통으로 만든 라이징문	77
[그림 3-25] 보석처럼 활용된 페트병	77
[그림 3-26] 버린 종이컵에 그린 작품	78
[그림 3-27] 종이컵에 표현된 디자인	78
[그림 3-28] 하이퍼그래피아 컵 인스톨레이션	78
[그림 3-29] 귀네스의 감성 종이컵	78
[그림 3-30] 녹아내리는 빈센트 반고흐의 ‘별해는 밤’	79
[그림 3-31] 녹아내리는 파브로 피카소의 ‘게르니카’	79
[그림 3-32] 녹아내리는 뭉크의 ‘절규’	79
[그림 3-33] 녹아내리는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	79
[그림 3-34] 에어잉크를 개발한 작가 아니루드 샤마	80
[그림 3-35] 에어잉크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80
[그림 3-36] 그래비키 랩스 에어잉크	80
[그림 3-37] 에어잉크로 그린 작품들	80
[그림 3-38] 루트유에스에이 홈페이지	81
[그림 3-39] 해변가 쓰레기 치우기	81
[그림 3-40] 루트스쿨데이 수업 모습	81
[그림 3-41] 알루미늄 작품(물고기)	81
[그림 3-42] 포레스티벌(FORESTival) 행사 모습	82
[그림 3-43] 유스 캠프(Youth Camps)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 모습	83
[그림 3-44] 유럽 무지개 지수 비교	88
[그림 3-45] 소수자 집단에 사회적 거리감	89
[그림 3-46] 성소수자 알권리 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정보공유 홈페이지	90
[그림 3-47] 점자 매거진 BF	92
[그림 3-48] 배리어프리 영화	92
[그림 3-49] 해외 배리어 프리 사례(개방형/폐쇄형)	93
[그림 3-50] 부산문화재단 2021 기억의 집 프로젝트	94
[그림 3-51] 기억의 집 프로그램 진행 장면	95

[그림 3-52] 치유문화의 범위	101
[그림 4-1]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문화의 주요 기능에 대한 흐름	117
[그림 4-2] 현대사회의 위험과 문화의 사회적 기능 관련 대응 분야	119



제 1 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내용
2. 연구 체계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내용

1) 연구 목적

- 현대사회를¹⁾ 살아가는 현대인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마주한다. 노동, 인권, 인구, 전쟁, 환경 문제 등 개인의 삶부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많다. 정책영역에서도 현재 여건을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24)에서는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 ‘경제성장 잠재력의 둔화와 양극화·노후화’, ‘불평등’, ‘기후 변화’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이슈를 관통하는 주제어가 불확실성이다. 저출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금융위기, 기후변화, 양극화라는 복합적 상황에서 현대인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간다.
- 여러 이슈를 분석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게 정책이다. 문화정책 역시 현대사회의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이슈에 직접적인 대응 전략을 고민하고 문제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숙제가 놓여있다.
- 미래의 불확실성이 현실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일이 코로나19 대유행이다. 환경 문제와 고도화된 과학·기술이 불러온 현대사회의 위험(Beck, 1986)에 사람들은 힘들어하였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2021년 6월 8일에 발표한 “정신건강 체계를 위한 새 기준: 정신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해결”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5명 중 1명이 우울증을 호소하였다. 특히 청년층에서 코로나 우울증이 심하였다. 2020년에 우울증 유병률이 36.8%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았던 우리나라의 경우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을 호소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정신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치면서 더 많은 이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이 연구에서 말하는 ‘현대’는 산업사회 시대를 지칭하는 ‘근대’와 차별화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의 사회를 의미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 살펴본 일부 연구에서는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분출하였는데, 문화정책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문화향유가 삶의 질에 필수라는 문화계 목소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코로나19 대유행 앞에서 오히려 힘을 잃었다.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를 내세우며 문화향유정책을 확대하였으나 사회적 위기가 닥치자 인권이라던 문화향유는 여유 있는 사람의 취향으로 전락하였다. 정부는 문화적 활동을 취소하였고, 개인도 알아서 문화와 관련한 활동을 접거나 줄였다.
- 정부에게 문화 활동은 현대사회의 필수요소가 아니라 개인에게 제공하는 선택적 사회 서비스처럼 보였다. 상공인을 지원하려고 천문화적인 돈을 쏟아붓고 국민의 우울증을 해소하려고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문화 분야는 늘 뒷순위였다. 문화계 역시 정부 지원에 익숙한 나머지 개인적 취향을 충족하는 문화향유 활동에 집중하였고, 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의 공익적 활동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주민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치유 방법으로 문화를 찾지 않았다.
- 예를 들어 정부 부처는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온라인으로 홍보하였다. 정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안내 포스터를 보면, 조심하되 과도한 공포감 갖지 않기,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받기,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틈틈이 운동하기, 취미생활 갖기(실내 텃밭 채소 키우기)를 제안하였다. 문화(예술)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 문화를 정신적 문제를 해소하는 치유법으로 받아들였다면, 사회적 위기에서 돌봄의 수단으로 문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정립되었다면 어떠하였을까? 코로나19 대유행에서도 사람들은 체육관을 찾고, 그마저 안되면 랜선으로 운동하였다. 생활체육은 건강에 직결된 생존의 문제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졌기에 코로나19에도 줄어들지 않았다.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생활체육과 달리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적었다. 문화 활동은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선택적 서비스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였다.
-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현대사회는 다양한 위험에 처해 있다. 지구적으로 보면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으로 보면 기든스가 말하는 “존재론적 안전에 대한 불안감”(Giddens, 1991), 벡(Beck, 1986)이

지적하는 “현대사회의 불확실성” 속에서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자기 성과달성에 매달리는 “피로사회”(한병철, 2010)에 산다. 개인적으로 파편화되어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문화)을 형성하는 토대를 갖추기 어려운 현대인, 그들의 삶 자체가 현대사회의 위험이다.

- 시장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실업, 산재,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자 이에 대응하여 사회복지 개념이 정립되고 복지국가가 출현하였다. 현대사회는 사회복지를 출현하게 한 산업사회 시대의 위험과 다른, 개인화에 따른 현대인의 심리적 불안감과 고도화된 과학·기술에서 비롯된 지구적 위험이 있다. 개인화에 따른 존재론적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정신적 영역이고, 환경 문제는 자연을 종속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에서 비롯되었기에 삶의 방식과 관련된다. 문화가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현대인은 개인적으로 파편화되어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토대를 갖추기 어렵다. 문화 활동은 문화적 공감력,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원활히 하여 강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문화 활동은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재론적 안정감을 주어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응하게 만든다.
- 김기봉(2020)은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문명”을 말하면서, 근대 발전주의 문명 공식이 해체되고 생태적으로 전환할 거라고 분석한다. 생태주의의 핵심 가치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공생이다. 문화는 소통을 기반으로 공유하는 상징체계로, 문화다양성을 원리로 삼는다. 문화다양성은 곧 공존이다. 즉 근대 발전주의 문명 공식이 해체되고 새로운 생태적 전환 문명에 있어 문화의 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현대사회에서 문화의 공적 기능이 갈수록 강조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나 정책은 체계적이지 않다. 여전히 문화 활동은 개인의 문화적 욕구 측면에서 이해되며, 사회적 효과는 문화 활동 과정에서 비롯된 부수적 결과물로 바라본다. 시장 중심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사회적 위험(실업, 산재 등)에 대응하여 사회복지가 체계화되었듯이,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문화의 공적 기능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
-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 이후 파편화된 현대사회의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문화의 가치를 정립하여 현대사회에서 문화를 진흥하는 공적 당위성을 살펴보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복지국가가 역사적으로 시장 중심 자본주의 위험에서 등장했듯이 이 연구에서는 문화 분야가 현대사회의 위험을 해소하는 중요한 방안이라는 전제 아래, 위험과 관련한 문화의 사회적 기능에 집중하고자 한다. 또 문화의 사회적 기능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문화의 사회적 기능이 위험에 대응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 이 연구는 첫째, 현대사회의 위험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위험을 사회학적 주제로 발전시킨 울리히 벡(Urich Beck, 1986)에서 출발하여 기든스(Giddens, 1991), 바우만(Bauman, 2010) 등으로 이어지는 주장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사회를 전망한 연구를 종합하여 현대사회의 위험을 검토한다.
- 둘째, 문화의 기능을 분석한다. 문화가 내재하는 공적 가치는 대체로 심미적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등으로 이야기되는데, 이러한 기능이 시대적 환경에 따라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펴본다. 이 연구가 문화의 사회적 기능을 집중하여 다룬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여러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 우리나라에서 문화의 기능에 대한 강조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부별 문화정책을 검토하여 살펴본다.
- 셋째, 전라북도 정책에 참고할만한 사례를 탐구한다. 앞에서 분석한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응하여 사회적 기능을 실천할 수 있는 문화 내 하위분야를 구상하고, 각 분야에서 참조할 만한 사례를 발굴하여 사회적 기능이 작동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의 사회적 기능 분야로 ‘문화적 사회혁신’, ‘문화적 환경위기 대응’, ‘문화적 돌봄’, ‘문화적 치유’를 제안하고, 분야별로 필요성과 개념을 살펴본 뒤에 관련 사례를 소개한다.
- 끝으로,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문화의 사회적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문화 분야 전체, 그리고 전라북도 문화정책 차원에서 제안한다.

다. 이 연구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사업을 계획하는 정책과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론을 검토하여 새로운 정책 혹은 의제를 발굴하는 기본과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과제 제안보다 새로운 정책 방향을 구상하는 기초 정보 제공에 집중한다.

2. 연구 체계

1) 주요 개념

- 이 연구에서 살펴볼 개념은 ‘문화’이다. 문화정책에서 문화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로²⁾ 이해됐다가 「문화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광의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정의한다.³⁾
- 문화의 개념이 다양하게 이해되지만 <표 1-1>처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학문 유형과 목적에 따라 네 가지 개념이 유연하게 때로는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문화인류학에서는 문화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1→2→3으로 변하면서, 최근에는 3이 강조된다. 2~4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회학에서는 주로 2와 3이 쓰인다. 철학, 문화사 등에서는 1 또는 4가 강조된다. 신문방송학에서는 대중문화와 관련된 4가 주로 개념으로 쓰인다.

[표 1-1] 문화의 개념 구분

“(1)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어 쌓아온 모든 것 (동물과의 차이가 강조됨. 총체적) (2) 일상생활양식 (생활양식 내용, 집단이나 지역 또는 국가 간의 차이가 강조) (3) 관념이나 의미작용 또는 정신작용 (의미내용의 차이, 집단이나 국가 간의 차이가 강조) (4) 예술이나 여가의 창조적 (또는 여유로운) 활동 (특히 예술, 사상이 강조)” (전북연구원, 2012)

- 2)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 규정: 문화예술(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 3) 이 정의는 유네스코가 규정한 문화권에서 출발한다. 유네스코는 ‘광의의 문화란 어떤 사회나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독특한 영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성들의 총체적인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예술과 문자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 믿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한다.

- 문화정책에서는 주로 4의 개념을 사용한다.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이 대표적이다. 「문화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문화는 2와 3을 모두 포함한다. 4의 개념은 유네스코에서 정한 문화지표와 맞닿아있다. 유네스코에서는 스포츠와 게임까지 문화지표에 포함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문화정책이라고 하면 대체로 스포츠는 제외한다. 여가 역시 독립적인 영역으로 이해한다.
- 네 가지 개념 중에서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우열을 따지지 않는 개념은 1~3이고, 결핍에 따른 우열 관계가 가능한 게 4번 개념이다. 학술적으로, 그리고 「문화기본법」에서 말하는 2~3 개념은 집단성이 강조되는데, 특정 집단이나 국가, 지역과 관련되므로 상호 차이를 말할 수 있으나 우열을 따질 수 없다. 개념 4는 개인적인 활동과 관련된다. 개인 간 차이나 사회적 불균등을 말할 수 있다.
- 차이를 따지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예술이나 여가의 창작 활동에는 문화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결과물, 문화적 감수성(창의성)을 포함하는데, 이를 측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측정이 어려울 뿐 개인 간 활동에 따른 문화적 감수성의 차이는 분명하므로, 개념 4를 ‘문화 격차 해소’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문화정책에 적합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
- 이 연구에서 강조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문화적’이다. 문화적이라는 말에는 포괄적 의미로서 문화의 특성, 문화정책에서 말하는 문화의 개념, 문화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적용되는 ‘문화민주주의’가 담겨 있다. 이를 종합하여 ‘문화적’이라는 개념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모두 세 가지이다.
- 첫째, 문화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변한다는 가정이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적 사회적 활동 결과물이 있다고 하자. 이 결과물에 대해 개인의 가치가 그 개인이 모인 집단의 가치와 다를 수 있고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 개인화를 넘어서 개체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소수가 가지는 가치를 존중해야 하고, 최종 사용자, 공동체, 네트워크, 지역사회, 국가라는 맥락에 따라 문화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 둘째, 문화적이라는 말에는 문화의 특징인 공유와 집단성, 공감과 소통, 참여, 다양성이 등이 포함된다. 이 의미는 문화민주주의와 관련된다. 개인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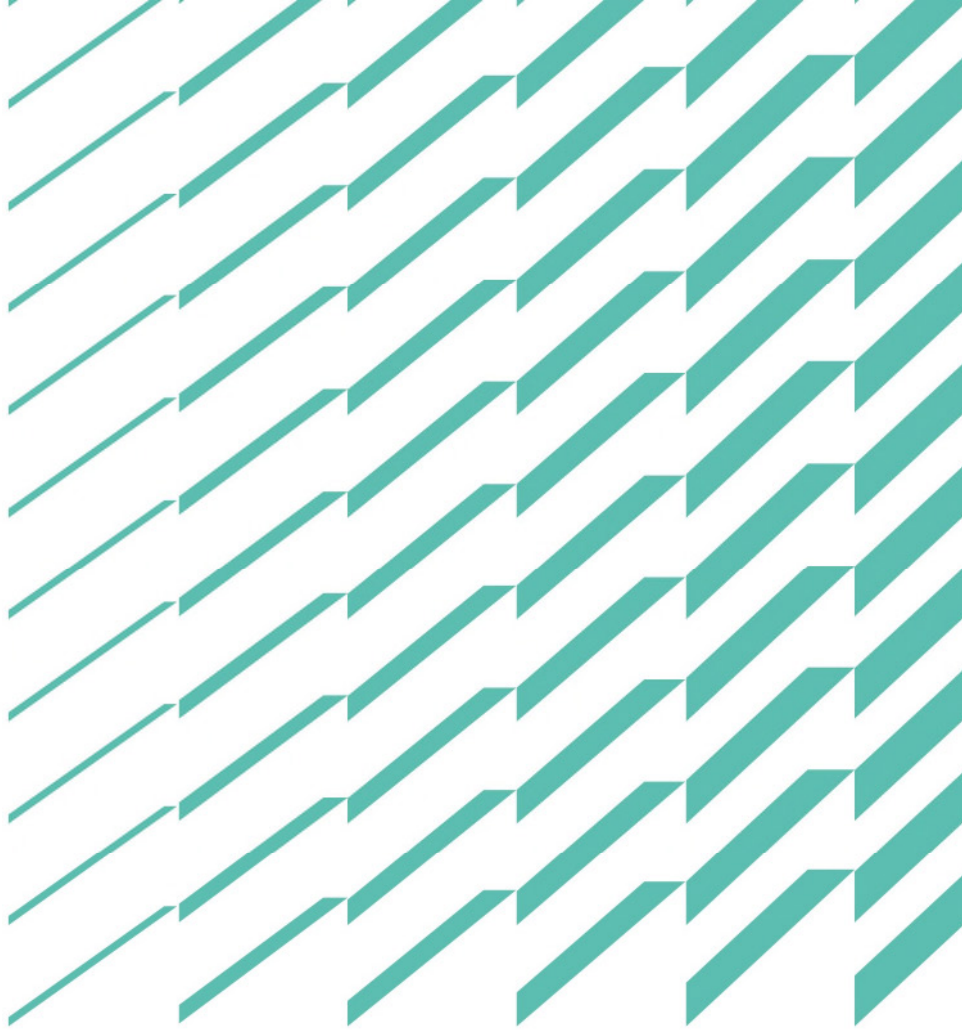
회적 활동은 개인 단위에서 시작하며, 소규모 단위의 공감과 동의가 바탕이 된다. 다양한 가치관의 공유와 공감, 참여와 소통이 중심인 공동체성은 현대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 셋째, 사람을 모이게 하고 함께 활동하게 만드는 매개로서 의미를 말한다. 문화를 사회적 관계 및 사회구조와 긴밀하게 연계된 것으로 보며, 문화(활동)를 통한 사회혁신, 미학적 특성과 창의적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개인과 공동체 차원의 만족감을 의미한다. 즉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전제를 의미한다.

2)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연구 내용을 다뤘다. 첫 번째 방법은 이론적 검토와 문헌 연구이다. 현대사회의 위험과 문화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학술연구와 정책보고서를 분석하였고, 다른 분야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한 연구, 관련 실증분석 자료를 참조하여 문화 분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진은 시사점을 종합하고, 위험에 따른 문화의 사회적 기능을 유형화하여 문화정책에 적용할만한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네 가지 분야(문화적 사회혁신, 문화적 환경위기 대응, 문화적 돌봄, 문화적 치유를)는 이론적 검토와 문헌 연구에서 도출한 위험에 대응하면서 문화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제안하는 유형을 참조하여 연구진이 결정하였다.
- 두 번째 방법은 사례 조사이다. 이론적 검토 및 문화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연구진은 전라북도 문화정책에 적용할만한 네 가지 유형별 사례를 발굴하고자 먼저 관련 문헌(논문, 정책보고서 등)을 살펴보았다. 또 유형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안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진이 관계자를 인터뷰하여 구체화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환경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였다. 선정된 사례별로 위험에 대한 문화적 대응의 필요성을 작성하였고, 사례의 구체적인 정책지원 및 실천사례를 제시여 문화의 현대적 기능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 세 번째 방법은 자문이다.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문화의 사회적 기능의 적용 사례로 검토된 실천사례 중 비슷한 연구와 활동을 진행한 전문가(치유농업, 돌봄, 사회혁신 등)를 통해 독자적인 정책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된 정책화 과정과 관련 사례를 공유하였다. 또 본 연구의 체계와 사례에 대한 자문과 함께 문화의 사회적 기능의 정책적 실천에 대한 가능성을 자문받았다.



제2장

현대사회의 위험과 문화의 기능

1. 현대사회의 위험
2. 문화의 가치 및 기능
3. 문화의 기능 관련 정책적 설정 흐름과 과제



제2장 현대사회의 위험과 문화의 기능

1. 현대사회와 위험

1) 신자유주의와 위험

- 위험(risk)을 처음으로 사회과학적 시선에서 분석한 학자로 더글러스(Mary Douglas)를 꼽는다. 구조기능주의 관점에서 위험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한 더글러스는 근대화론에 문화상대주의 관점을 적용해 현대사회의 위험 인식과 해결방안에 관한 정치적 주장이 도덕적 분파주의의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더글러스·윌다브스키, 1992).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한 1986년에 울리히 벡(Ulrich Beck)과 니콜라스 루만(Niklas Luhmann)이 위험 관련 이론서를 발표하였고, 1990년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포스트모더니티』에서 루만과 벡의 논의에 기초하여 위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더글러스는 위험이 인식의 문제라면서 근대적 합리성과 무관한 사회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며 도덕적, 정치적 속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위험-비위험’의 개념은 ‘청결-불결’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도덕적·문화적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위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험과 무관하다. 위험은 도덕적·문화적 표현이자 정치적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사회의 고도 기술 위험이나 생태 위험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벡, 기든스, 루만은 위험을 근대적 합리성과 관련되었다고 본다. 특히 벡은 현대사회의 위험은 인식 차원의 문제로 완벽히 설명될 수 없다고 본다. 그는 1986년 출간한 『위험사회』를 통해 현대사회의 개인 및 정치의 변화, 범지구적 차원의 위기를 언급하며 ‘위험’을 사회과학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벡은 근대-탈근대 논쟁에서 현대사회의 특성, 즉 근대성(또는 현대성)이 전(前)근대 사회에서 근대성을 창출하던 그것과 다르다고 보았다. 우리가 경험하는 근대성은 산업사회의 결과이면서 이를 부정하는 새로운 변화임을 의미한다. ‘위험’이 이러한 특성을 만든다는 게 벡의 설명이다.

- 벡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한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위험·위난·위해를 겪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근대성의 위기와 해체를 맞이한다. 위험은 늘 있었지만 벡이 특별히 위험에 집중하는 이유는 위험의 속성이 크게 변했다는 데 있다. 그는 현대사회의 위험이 질적으로 새롭다고 보았다.
- 첫째, 위험의 영향력과 범위에서 현대사회와 과거 간 차이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위험이 더는 국지적이지 않다. 과거의 위험은 개인적이고, 위험 발생지역에만 영향을 줬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지구적이며,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
- 둘째, 위험을 인지하는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다. 과거의 위험은 인간이 인식하는 범위 안에서 발생하고, 근대 과학적 방법론으로 설명되고 이해되었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인간의 인지 범위 밖에 있고, 과학 합리성으로 충분히 설명되거나 이해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위험의 정의, 영향력, 대응 방안을 둘러싸고 과학계 내부는 물론,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논쟁이 발생한다.
- 셋째, 위험의 원인이 달라졌다. 과거의 위험은 위생과 기술이 낙후해서 발생하거나 부의 불평등에 따른 빈곤에서 비롯되었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고도화된 과학 기술의 결과물이자, 분배 문제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 넷째, 앞에서 말한 세 번째 특성과 관련하여 현대사회의 위험은 기존의 계급 질서와 제도정치, 과학의 권위, 국가 간 위계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무력화한다.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는 문장은 위험사회로서의 현대사회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 위험이 확산하면서 산업사회의 계급 지위 차이, 국가 간 위계, 제도정치 및 과학계의 권위 등이 상대화된다. 그 누구도 산업사회의 근대성, 즉 자본주의 효율성과 고도화된 과학·기술이 만들어 낸 위험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 다섯째, 위험은 산업사회의 근간인 자본주의 시스템의 변화를 불러온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가 막으려던 사유 재산과 사적 이익의 공공수용(expropriation)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각종 위험과 사고로 지구가 황폐해지고 누구의 소유이건 자연은 오염된다. 사회경제적 가치가 상실되면 소유자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스모그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 이처럼 벡은 위험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특성을 분석한다. 벡의 주장은 기존 근대성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며, 새로운 근대성에 대한 분석이자 예측이다. 산업사회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던 고도의 효율적 생산체제와 과학·기술이 위험을 낳고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제2의 근대성이 등장한다는 게 벡의 설명이다.
- 제2의 근대성은 변증법적이다. 벡은 위험이 무조건 축소하고 배제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수용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위험은 개인화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하위정치를 작동하여 기존의 구조를 해체한다. 산업사회에서의 개인화는 계급 정체성과 생물학적 핵가족주의를 구성하는 과정이었다. 2차대전 뒤에 찾아온 서구의 유래를 찾기 힘든 평화와 번영은 조합주의에 기초한 복지제도를 낳았다. 그 결과 개인은 노동자가 아닌 ‘피고용자’가 되었다. ‘피고용자’라는 정체성은 이제 계급론적, 가부장적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 벡은 『위험사회』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제1의 근대성이 증폭한 결과물로서, 노동시장 유연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특성과 그 영향을 다룬다.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고용방식에 따른 노동자 내부의 분화와 이질성을 만들고 노동자들은 유사한 지위를 갖는 사람과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으며, 계급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였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 영역에서 발생한 개인화의 결정적 계기이다. 신자유주의는 벡이 말한 위험의 사례이자 새로운 근대성의 핵심 원인이다.
- 기든스는 “세계적인 사회관계의 강화”(Giddens, 1991; 75)가 일어나고, 다양한 사회적·지역적 관계망이 형성되는 시공간적 확장 과정에서 장소 귀속 탈피 기제의 근간이 되는 신뢰 관계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한다. 기든스는 “신뢰 관계를 ‘(추상)체제에 대한 신뢰’와 ‘사람에 대한 신뢰’로 나누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가족과 친족 및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친밀성은 약해지고 익명의 타인과 상호작용이 더 확장되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 사람들이 느끼는 ‘존재론적 안전’이 훨씬 불안정해졌다”(이현서, 2014)라고 설명한다.
- 기든스는 현대성을 이분법적 시각이 아니라 여러 특성이 공존하는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현대사회의 ‘성찰적’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변화가 질적으로 온

전히 새로운 것이 아닌 양적 확대나 급격한 변화로 본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현대성 자체와 현대성이 미치는 영향도 복합적이며 전통 산업사회의 특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 기든스에 따르면, 현재의 근대성이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지니며 사회제도는 물론 우리의 존재와 인식, 친밀의 영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근대성의 역동성을 만들어낸 요인으로 ‘시간과 공간의 분리’, 상징적 징표와 전문가 체계와 같은 ‘장소 귀속 탈피 기제의 발달’, ‘지식의 성찰적 전유’가 있다. 시공간의 분리로 인해 가속화된 장소 귀속 탈피 과정은 현상을 특정 맥락으로 귀속시키지 않으므로 사회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며 넓은 시·공간 범위에서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시킨다. 이로 인해 지역과 지구적 차원의 세계가 연결되며 현대인의 일상에 변화가 발생한다.
- 이러한 장소 귀속 탈피를 초래하는 주요 기제는 화폐와 같은 상징적 징표와 전문가 체계의 확립이다. 화폐는 일종의 지불유예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상품을 교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과 채무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전문가 체계는 신뢰의 대상을 개인이 아닌 전문가가 지닌 자격과 지식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사회적 관계와 관계의 기반인 ‘신뢰’를 맥락으로부터 분리하였다는 점에서 장소 귀속 탈피 기제이다. 특히 기든스는 상징적 징표와 전문가 체계의 확립을 ‘추상 체계’라고 불렀다.
- 신뢰는 추상 체계에서 시공간 분리의 조건이다. 근대사회에서 추상적 체계와 결합한 일상은 인간 존재론적 안전의 기반을 이룬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종래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심리적 불안과 위기를 초래하고 추상 체계의 신뢰는 개인 간 신뢰에서 얻어지는 심리적 안정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개인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일상에서 안정성을 느끼려고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과거 이러한 신뢰는 개인 간 구체적인 상호작용에서 도출되었다. 하지만 추상 체계에 대한 신뢰는 이러한 상호성에 근거한 신뢰와는 다르다. 바로 비인격적 원칙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신뢰이다.
- 결국 오늘날의 근대성은 추상 체계 발달을 통해 사회제도와 개인 일상의 변화를 일으킨다. 즉, 표준화된 시간과 시간표,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상호작용의 가능성, 지식 및 전문가에 대한 새로운 신뢰 방식의 등장은 기존 사회의 특성과는 분명 새로운 현상을 초래하였고, 현대사회를 역동적이면서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 많은 학자는 전통사회의 공동 사회적 특성과 근대사회의 비인격적 특성을 대조적인 것으로 상정하며 전(前)근대적 친밀성의 공간 및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본다. 그러면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더 극심한 존재론적 불안감을 느끼며 사람들이 더는 친밀함과 사회적 신뢰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하지만 기든스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상호작용, 신뢰, 정체성, 친밀감, 안전 등은 여전히 유효하며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그 작동방식과 의미 등에 질적 변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인데, 이 세계가 유지되려면 새로운 형태의 신뢰가 더 강하게 요구된다는 거다.
- 예를 들어 근대성과 결합한 추상 체계의 광범위한 확대는 우정의 의미와 본질의 변화를 가져왔다. ‘친구’의 반대말이 더는 ‘적’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 혹은 ‘동료’가 될 수 있다. 전근대 사회에서의 신뢰는 공동사회, 친족 유대, 우정에서 인격화된 신뢰 관계 속에 존재했으며, 이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여 주는 것은 감정적 친밀성보다는 제도화된 인격적 유대와 비공식적 행동 규약이었다. 추상 체계가 발달하면서 비인격적 원리에 대한 신뢰는 사회생활에서 필수가 되었다.
- 위험사회는 “위험의 개인주의화”를 발생시키는데, 근대사회 이후 개인은 독립적인 주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만, 독립은 “전문가에 의존하는 개인의 인지적 주권이 위협받는 상황”, 곧 “사회적으로 규정되었던 생애가 이제 개인 스스로 생산하고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류용재, 2017: 265). 기든스가 말하는 추상 체계로 인해 사회 복잡성이 증대하고 분화가 확대되면서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영역이 증가한다. 개인은 독립적이지만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에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타자와 구별되기 위한 자기 계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하지만 자기 계발은 자기 정체성을 발현시키는 것보다 거대 미디어를 따라 하는, 타자와 유사한 형태에 머문다. 개인이 온통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기에 자기 계발에 역점을 두나, 그것은 타자와 비슷한 자기 계발이며 타자와 무한경쟁을 벌여야 해서 삶 전체가 위협받는 상황, 즉 위험에 처한다.
- 바우만은 『액체근대』(2000) 이후 액체(유동성) 개념으로 현대사회의 불안을 분석한다. 그는 근대를 고체 근대와 액체 근대로 구분한다. 산업사회 산물인 고체 근대에서는

확실성과 체계성을 통해 개인이 보호받았지만 딱딱함으로 개인의 주체성이 실현되기 어려웠다면, 액체 근대에서는 세계화·정보화·신자유주의 시대의 산물로 정치·경제·사회 변화에 따라 잉여 인간이 되어간다.

- 정치 측면에서는 국민국가의 성원이 아니라 국가를 넘어 유동하는 이방인, 경제 측면에서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의 노동자가 아닌 쓸모가 많지 않은 노동자, 대체 가능한 노동자, 사회 측면에서는 공공 영역의 성원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의 소비자가 된다(김현미, 2010; 신지은, 2011; 함규진, 2014). 정치·경제·사회에서 주체가 되지 못한 개인에게 공포와 불안이 내재화되는데 불안은 생활 곳곳에서 끈적거리며 액체로서 나타난다. 극소수 사람은 국경을 넘어 유동하면서 삶을 즐기거나 자신만의 요새에서 불안과 공포에 맞선다면, 대부분 사람은 역량 부족의 공포와 불안을 벗어나려 그리고 잉여(인간)에 포함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자기 계발에 빠져든다(신지은, 2011: 348).
- 하지만 액체성의 불안은 항상 이어진다. “세계화 현상이 심해지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사람과 체계에 대한 신뢰도 약해지는 불안정한 사회에서 개인은 끊임없이 순식간에 변화하는 상황 앞에서 일들을 선택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 선택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오롯이 개인이 져야 한다고 한다.” 과거에는 개인이 실패하거나 불행해지면 공동체가 보호해 주는 국가적으로 공인된 장치가 있었으나 이제 그런 장치가 점점 일관되게 줄어들면서 권위 있는 “공인된 처방”(바우만, 2010: 11)이 없다(이현서, 2014: 61-80).
- 현대인은 변화가 일상이 된 세상에서 공인된 처방이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모든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예전보다 더, 그리고 자주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안한 현실에서 현대인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근거한 미묘한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필사적으로 하게 되고 막연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더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어 “두려움의 노동 윤리”(Ciulla, 2001)를 가진다. 불확실한 세상에 언제나 불안한 개인은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끊임없이 성과달성에 매달린다. “피로사회”(한병철, 2012)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삶은 개인을 더 파편화시키고, 사회적 신뢰나 공동체적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를 갖추기 어렵게 만든다.

- 벡(1986)은 현대사회가 “세계화, 개인화, 고용감소와 생태 위기라는 네 가지 과정에 의해 산업사회와는 다른 국면에 처해 있다”라고 본다. 이러한 위험은 세계화 현상이 낳은 현대사회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벡의 분석처럼 기든스, 바우만, 한병철 역시 현대사회의 위험과 공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과로 생각한다. 세계화, 정보통신 발전 등으로 형식적 독립과 자유를 얻었으나 사회적 연대가 사라져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주의)의 현재 모습이 곧 위험이다.
- 핵으로부터의 위험, 기후변화 등 인간의 인지를 벗어난 지구적 생태 위기도 자본주의 효율성과 고도화된 과학·기술이 만들어 낸 위험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특히 주목 받은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Zalasiewicz, 2008)는 “인간 활동이 지구 표면을 바꾸는 결정적 힘으로 작용함을 가리키는 과학적 개념”이면서, “인간과 자연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새로운 성장을 요구하는 실천적 개념이다”(김준수 외, 2020: 53). 고도화된 과학·기술에 의존한 발전주의적 문명에서 생태주의적 문명으로 전환하여야 진정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주장(예, 김기봉, 2020)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 위험에 대한 대응

- 벡과 기든스는 모두 성찰적 근대화를 강조한다. 벡은 일차적으로 위험이 영향을 줘 구조가 변동하고 위험으로 생겨난 개인의 불안이 제도를 바꾸었다고 설명하나, 기든스는 선진 산업사회에서 부를 확대하면서 계급 구조가 변하였고 그에 따라 ‘구조’가 아닌 ‘행위’와 ‘규범’ 차원에서 변화의 원동력이 새롭게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둘의 설명이 조금 차이가 있으나,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있는 위험사회에서 개인화는 새로운 원리로 재도약한다는 의견은 다르지 않다.
- 벡에 따르면, 노동 유연화를 부른 경영 합리성의 급진화는 노동자의 계급 정체성을 개인화하였다. 위험을 생산하는 과학·기술 합리성은 정치를 개인화해 제도 밖의 하위 정치를 발생시켰다. 여성을 사적 가부장제로부터 해방한 노동시장의 합리성은 가족 결속력을 개인화하였다. 각 영역이 개인화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결속력을 추구하는 사회가 앞당겨졌다.

- 근대적 합리성의 결과물인 위험이 새로운 사회통합을 요구하게 되는 이유는 제1의 근대성에 기반한 제도 영역에서는 위험을 인지하거나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험은 개인을 통해서만 인식되므로 개인이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 현상이 등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민(citoyen)정치’이다. 이러한 변화에서 개인은 두 방식으로 사회적 결속을 새롭게 촉구하는데, 하나는 제도 정치 밖 ‘신사회운동’(하위정치)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 위치에서의 결속이다.
- 벡은 ‘위험’을 규범 및 제도 수준의 변화를 일으키는 해방적 계기로 해석한다.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정치적 갈등의 원인과 목표가 부의 분배에서 새로운 가치에 대한 요구로 이동한다. 벡은 이 과정에서 ‘하위정치’가 기존 스는 ‘생활정치’가 작동한다고 본다.
- 기든스가 말하는 생활정치는 ‘제도 밖’이라는 의미의 벡이 말하는 하위정치 개념보다 도식적이다. 생활정치는 친밀성의 구조 변동이나 생활양식의 선택, 또는 삶의 질 문제로 이해하며, 빈곤의 절박함으로부터 해방되어 보다 고차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아의 문제를 다룬다.
- 지역 공동체와 친족 내 인격화된 연관은 개인 간 신뢰의 중심이 아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신뢰는 과거처럼 주어지지 않고 관련된 집단이 하나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되었다. 이는 상대에 대한 개인의 개방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규범과 제도가 담보해 내는 관계 혹은 신뢰가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상호작용해야 얻을 수 있다. 개인은 정체성을 끊임없이 추상 체계 내에서 구성하고 찾아야 한다. 이때 개인은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다. 인간관계는 자기 개방의 상호성을 통해 유지된다.
-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벡이 말하는 하위정치, 기든스가 말하는 생활정치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공동체는 고도의 추상적 개념에서부터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실체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개인화, 소외 등 현대사회 병리적 현상을 해결해 줄 긍정적인 가치로 재현되기도 하고, 전체주의적이고 폐쇄적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래서 공동체에 관한 통일되고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는 게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자기 개방의 상호성을 통해 유지해야 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사회적 결속 등의 핵심이다.

- 퇴니스(1881)는 서구 사회학 안에서 공동체 논의를 촉발한 대표적인 연구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근대사회는 게마인샤프트(공동체)에서 게젤샤프트(사회)로 변화했다고 보고, 전통사회의 공동체적 형태들이 몰락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회적 질서가 들어섰다고 이야기한다.
- 시카고학파는 퇴니스에 영향을 받아 도시 사회에 전통적 공동체성이 어떻게 해체되었는지, 혹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고찰하였다(Wirth, 1938; Gans, 1962). 퇴니스가 ‘잃어버린 전통’, ‘상실의 서사’ 속에서 근대사회의 대립 개념으로 공동체를 소환하였다면, 뒤르케임(1882)은 근대사회 안에서도 조화와 연대에 기반한 공동체적 관계가 작동한다고 보고, 사회와 공동체의 연계성을 강조한다. 파슨스(Parsons, 2007)는 공동체적 지향성과 사회적 지향성은 혼합되어 있으며,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일 뿐이라고 한다.
- 한국 사회학 내에서 공동체에 관한 초기 논의는 힐러니, 퇴니스 등의 개념적 전통과 궤를 같이한다. 신용하(1987: 14-15)는 공동체를 세 가지 방식으로 정의한다. “첫째는 동질성을 가진 소집단과 동일시하는 경향이다. 둘째는 타인과 일체가 되어 협동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심정적·정신적 현상을 가리킨다. 셋째는 지역과 결부된 조직체의 단위들을 가리킨다.”
- 강대기(2003)는 “전통 촌락은 혈통, 장소, 정신적 차원으로 구성된 퇴니스의 게마인샤프트적 공동체로서, 자본주의적 이해타산에 물들지 않은 인간 본연의 상부상조를 근간으로 한다”라고 말한다. 그는 농경사회,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정보사회 등 서로 다른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도 공동체는 시공간적 차원,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이라는 공통적 이념이 적용된다고 본다.
- 최병두(2006: 46)는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생활공간 또는 장소성에 기초하여 이들 간의 대면 접촉을 통한 의사소통과 이해관계 또는 생활양식의 동질성에 대한 직접적 확인 등을 전제로 한다”라고 설명한다. “지역성이 전제된 공동체는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가치, 문화적 전통, 사회적 융합, 규범적 구조가 생산·재생산되며 전환하는 영역이다”(최병두, 2003: 59).

- 호네트(2011)는 20세기 공동체를 탈전통적 공동체, 혹은 자유주의적 공동체라고 칭하면서 현대적 공동체의 뿌리는 혈연, 전통 관습, 배타적 영토가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생활 실천 속에서 반영되고, 상호주관적으로 공유된 가치의 관점이라 주장한다. 탈전통적 공동체는 상호 지원, 연대, 감성적 참여를 특징으로 하면서 민주적 제도의 활력과 안전을 보장하고, 개별자의 자기실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관계들은 현대적 삶의 구성적 지주가 된다.
- 바우만(2001)은 탈전통적 공동체화 경향을 타인에 대한 의무가 없는 반품 가능한 인스턴트 공동체라고 칭한 바 있다(로자, 2017: 50 재인용). 마페졸리(2017) 역시 포스트모던 사회는 개인주의가 쇠퇴하기는커녕 집합적 감정과 공감을 우선시하는 수많은 소집단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신부족주의로 명명한다.
- 김남선·김만희(2000:9-10)도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계획공동체, 생활공동체, 소지역공동체, 협동체 등의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김미영(2015)은 현대사회 여러 층위로 존재하는 공동체를 논한다. 첫째는 인류공동체, 생태공동체, 민족공동체처럼 추상적 이념으로서의 공동체이다. 둘째 공동육아, 공동주거, 마을만들기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실체로서의 공동체이다. 셋째 종교공동체, 교육공동체와 같은 실천공동체이다.
- 오늘날 문화적 취향이 비슷한 이들끼리의 자조모임, 친밀모임이 사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 영역을 열어젖힐 가능성, 즉 백이 이야기하는 하위정치, 기든스가 이야기하는 생활정치를 논하는 연구도 적지 않다.
- 루만(2009)은 현대사회의 친밀관계를 인격으로 대하는 사회적 관계로 본다. 전통사회의 특정 가족이나 가문 안에서 태어난 개인은 자신의 개체성을 사회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으나,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사회의 하나의 부분 체계에만 속하지 않으며 고정된 준거점이 없는 분화된 자기가 되므로 유일무이한 자신의 내밀함을 소통하고 싶다는 욕구를 갖게 되고, 이렇게 맺어진 사회적 관계가 친밀관계이다”(정성훈, 2011: 361-363 재인용).
- “우정은 가족, 이웃, 국가처럼 기존에 주어진 기성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을 통해 형성된 관계이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밀집된 관계 자체

가 사회변혁을 위한 잠재력을 내장한다”(프리드만, 1992; 김혜경, 2017: 169 재인용). 사이토(2000: 107-112)는 “자조 그룹이 친밀권(親密圈, intimate sphere)의 한 형태이지만 정보와 의견교환을 통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외부를 향한 문제를 제기해가는 공공권의 측면을 가지기도 한다”라고 본다.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 일어난 수많은 직접민주주의 실천은 주민 간 대화의 친밀성에서부터 시작된다”(진명숙, 2020: 65 재인용).

- 아무리 익명의 관계가 지배하더라도, 도시 사회는 기든스의 설명처럼 친밀관계에 대한 추구는 계속된다. 이러한 친밀공동체는 사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영역과 연결되고, 사회적 공공성을 확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정성훈, 2011). 서울시의 성미산마을은 친밀한 관계들이 환경 파괴적 사업에 저항하며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성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일군의 철학자들로부터 비롯된 공동체에 관한 존재론적 사유는 공동체를 동일성 원리에 기반한 유기적, 집합적 실체로 보는 대신 차이, 타자성, 이질성을 긍정적으로 사유하면서 인간 실존의 공동성, 공동체성을 도출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Esposito, 2009; 이진경, 2010; 김형주·최정기, 2014; 김상철·김진아, 2015; 손영창, 2015). 이진경(2010)은 존재론적 공동성을 잠재적 공동성과 현행적 공동성으로 구분하고 잠재적 공동성을 현행적 공동체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존재론적 코뮌주의 기획으로 개념화한다.
- 19세기 사회와 공동체의 대립적 개념에서부터 21세기 존재론적 공동성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논의는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인간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 사회가 변하더라도 공동체는 필요하다.
- 공동체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도 중요하다. 매킨타이어(1987)는 공동체는 개인의 정체성을 촉진한다고 보며, 왈쩌(1993)도 현대인은 가치공동체, 서사공동체, 연대공동체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익명화, 다원화, 탈연대화된 현대 서구 사회가 정체성을 촉진하는 거대 서사를 가지지 않다면 정체성의 분해라는 위협에 시달릴 것이라 이야기한다. 호네프(1994)가 말한 인정공동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로자, 2017: 91-93 재인용).

- 또 공동체는 사회자본으로서 사회적 토대를 형성한다. 퍼트남(2006)은 사회자본을 개인적 자원으로 접근한 부르디외 주장과 달리 사회적 결합으로서의 공동체를 사회자본으로 접근한다. 상호 인격, 신뢰, 연대, 협력에 기반한 사회자본이 증가할 때 사회통합과 정치·경제적인 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
- 한편, 문화가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한다는 논지는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된다. 첫 번째 논리는 문화 활동이 다원주의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는 문화 활동이 창의성에 기반한 활동이기에 행위자가 소외된 개인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발현하는 개인이란 점이 담겨 있다.
- 산업사회 초기부터 현재까지 개인은 개체화-파편화-획일화되어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는데, 분화된 사회에서 개인은 유기적 연대를 취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형성해야 하지만 개체화와 파편화되어 간다. 이것은 인간소외이며, 끊임없는 자기 계발은 지구적 위험·세계화·신자유주의 등이 불러온 불안에 대한 대응이다. 가치 지향적 시민의 삶을 행위자의 창조성(한나 아렌트), 창조적 상상력(존 듀이), 총체적 인간의 개인법칙(게오르그 짐멜)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지향성은 예술가의 예술행위에서도 발현된다(이승훈, 2018). 이 세 사람은 미학자나 예술가가 아닌 철학자-사회학자인데, 예술 행위와 일상의 공통성은 삶의 영역과 예술 영역이 미적 경험이란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한다.
- 둘째, 문화향유는 비판력을 상실한 소비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가 가능한 시민성 발현의 행위라는 논리로, 문화를 통해 공통의 정체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군중 속에서 타자 지향적 개체, 공공 영역에서 퇴각하여 가벼운 소비자의 삶을 사는 액체 근대사회의 개인이 문화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관객(시민)이 하나의 객체(대상)인 예술작품을 관람하는 행위는 미적 특성에 대한 가치 판단(비평)이다. 시민의 연대는 가치 공유와 공통의 기억에서 비롯된다. 문화를 관람하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통의 감각(감정)이 발생하고, 사회적 연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 셋째, 개인의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의 유의미성은 이른바 ‘문화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의 위계를 깨뜨리고, 개인의 문화적 활동의 유의미성을 강

조하고, 문화의 일상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바우만이 잉여라고 일컬은 개인이 사회체계 내에서 연대를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하위문화가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고, 문화예술 참여자라면 누구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문화를 누리면 증진하는 문화감수성은 문화 '수용력'과 문화 '표현력'을 포함한다. 타인(타문화)을 이해하고 자신을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능력도 증진하여 문화 '공감력'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이러한 능력이 기반이 되어 공동체 문화의 토대가 된다(이현서, 2014). 개인의 문화감수성(문화 수용력과 표현력) 증진으로 타인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강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영향을 준다.
- 문화를 통한 공동체적 인식의 확산이 현대인의 존재론적 안전의 불안감에 대한 대응이라면,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생태주의적 전환은 환경 위기라는 지구적 위협에 대한 문화적 대응이다. 김기봉(2020)은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문명을 문명의 생태적 전환, 근대 발전주의 문명 공식의 해체, 디지털 공간으로의 전환으로 설명한다. 디지털 공간으로 전환은 기술적 측면이라면, 삶의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뉴노멀은 발전주의적 문명을 해체하고 생태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존과 공생, 그리고 새로운 발전으로서 공진화(이흥재, 2013)로 이어지는 게 생태주의적 발전이다. 공진화의 출발은 공존이며, 문화다양성이 곧 공존이다. 이는 생태주의 문명이 공존이라는 문화적 가치의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환경 위기라는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도 문화가 중요함을 증명한다.

2. 문화의 가치 및 기능

1) 공공재로서 문화의 가치

- 이흥재(2005)가 설명하는 문화의 첫 번째 가치는 문화 스스로 고유가치를 지닌다는 점이다. 문화는 어떤 효용성이 있느냐와 무관하게 존재 그 자체, 즉 ‘아름다움(美)’이라는 실존적 가치가 있다. 창조성 또한 문화의 고유가치 중 하나이다.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이 예술작품에 창의적으로 나타나는 게 창조성이다(원제무, 2011: 68). 문화는 세대를 통해 끊임없이 창조되어 공유된다.
- 둘째, 문화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본적 가치를 지닌다. 인권으로서 문화권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문화는 인간이면 누구나 공유한다. 문화가 공유되면서 학습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의미와 지식이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방식, 상상력, 판단에 기초한 인식체계를 대표한다. 그래서 문화는 다른 어떤 정신활동보다 확실하게 인간 정신을 계발할 수 있다. 문화를 교육받은 사람의 기초소양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전북연구원, 2012: 59-60).
- 셋째, “문화는 인간의 오감을 통해 형성되는 이미지로서, 이러한 이미지는 사회 또는 경제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축적되고 변화한다. 이렇게 축적된 이미지를 사람들이 누리면서 문화적 삶을 영위한다. 또 문화의 축적된 이미지는 지역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풍요로운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점도 축적된 문화 이미지의 중요한 가치이다”(전북연구원, 2012: 60).
- 넷째, “문화는 소통의 가치를 갖는다. 문화는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가치가 있다. 아렌트는 『칸트의 정치철학 강의』에서 사적 영역인 ‘미적 판단’은 소통을 통해 공공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미적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자신의 판단에 동의하도록 다른 사람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동의를 호소하거나 간청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주관적 감각 속에 행위자나 관찰자가 공통으로 가지는 무엇, 즉, ‘공동체 감각’ 또는 ‘공통감각(common sense)’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전북연구원, 2012: 60). 인간은 공통감각 덕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축적

된 공통감각을 통해 소통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자기 이해를 뛰어넘는 객관적인 관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객관적 관점은 다른 이들과 소통을 끌어낸다(이승훈, 2012).

- 다섯째, 문화는 상호작용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아렌트는 문화의 향유가 대중의 공동체 감각을 일깨워주고, 문화적·정치적 공론의 장에서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엿본다. 벤야민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서 대중문화가 대중의 정신건강과 주체적인 창조행위를 창출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기술 복제 시대의 암울함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새로운 긍정적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문화를 누리는 행위는 사사로운 취미 활동이 아니다. 공공성의 유지와 변혁에 관련이 깊다.
- 이러한 문화의 가치는 문화를 공공재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문화의 공공적 가치와 더불어, 문화는 어떤 측면에서 한쪽이 소비한다고 다른 쪽의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는 비배제성이나 비경합성이 있다는 점도 문화를 공공재로 인식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정철현, 2004).
- 문화재로서 후세까지 유산으로 남겨진다는 점, 뛰어난 예술의 존재가 그 나라 국민에게 문화국민으로서 위신을 세워준다는 점 등은 공공재로서 문화를 뒷받침하는 이유이다. 문화를 직접 향유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기가 실제로 극장이나 공연장에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자기 지역에 극장이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드러낸다. 문화가 지역사회의 교양 수준을 보여주면서, 선택 기회 가치(option value)를 제공하는 것이다.
- 공공재로서 문화의 가치는 국가가 책무로서 문화향유 정책을 추진하게 만드는 당위성이다. 즉 문화는 공공재이므로 문화를 향유하는 행위를 시장 메커니즘에 오롯이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는 사람들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바라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선호와 상관없이 정부가 온정적(paternalistic) 판단으로 당연히 공급해야 하는 서비스로 인식한다.
- 문화의 공공재적 성격은 이른바 문화의 본원적 가치로 불린다. 그런데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가운데 문화의 도구적 가치로 불리던 문화의 복합적 기능, 특히 사

회적 기능이 더 강조되면서 온정적 판단이 아닌 사회혁신의 방안으로서 문화의 가치가 더 중요해졌다. 현대사회의 위험과 관련해서 더 그러하다.

2) 문화의 복합적 기능

- 문화는 현 시점의 사회체계를 이루는 구성요사이기에 사회적 기능을 하지만, 다른 영역과 구분되는 미적(aesthetic) 창조성에 따른 가치를 함께 가진다. 리차드 라스킨(1986)은 “예술의 기능분석”에서 미학적 측면에서 예술의 기능을 제시한다. 라스킨은 예술의 기능을 여덟 가지로 제시하고, 실제 예술작품(추리소설, 저항가요, 고흐의 그림, 보들레르의 시, 카뮈의 소설, 영화 카사블랑카)을 통해 자신이 제시한 기능을 분석한다(박성봉, 2011: 360; 박성봉, 2012: 352 재인용)

“① 행위 충족: 창조의 정신, 참여와 감식안 ② 자기정립과 자기현시: 자신의 드러냄 ③ 대리적 소원 성취: 타자 지향성 ④ 탐구와 모색: 호기심, 기술과 예술의 융합 ⑤ 꺼안기와 내려놓기: 저항과 구원 ⑥ 통합과 재생: 내면의 통합과 평화 ⑦ 방향설정의 기능: 자기 정체성 ⑧ 거시 사회적 기능: 공동체 의식, 사회질서, 사회모순의 안전판, 사회변화의 촉매”(조현성, 2012).

- 라스킨이 제시한 여덟 가지 예술 기능 가운데 “앞 일곱 가지는 개인 단위(수준)로 자아실현(자기 정체성)을, 여덟 번째(거시 사회적 기능)는 사회 단위로 공동체 의식을 의미한다”(조현성 외, 2012: 10~11). 라스킨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 현대사회에서 문화의 가치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담는다. 특히 산업 시대에 들어서며 문화의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가 두드러진다.
- 아르조 클레이머(Arjo Klamer, 2004)는 문화의 가치를 크게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로 정리한다. “문화의 경제적 가치란 문화적 재화나 서비스가 가지는 가격 또는 그것의 교환가치를 뜻한다. 문화의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개인들, 그룹들, 공동체들, 사회들 간의 신뢰, 우정, 사랑, 정체성, 공감 등의 가치들이 증진되는 데에 있어서 각 단위의 다양한 문화적 습속, 제도, 신념, 활동과 산물들이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총괄하는 것이라고 본다. 문화적 가치란 문화가 가진 내재적 가치로서, 숭고하고 성스럽고 미적인 경험을 획득하고 체화하고 계발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문화사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양현미, 2007)을 말한다.

- 2000년에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poration) 보고서에서는 예술의 기능(편익, benefit)을 공적 대 사적, 도구적 대 본질적으로 나눠서 구분하는데(2×2표=네 가지 편익), 사적 편익의 공공 유발효과를 포함하여 모두 여섯 가지 편익을 제시한다(양혜원 외, 2019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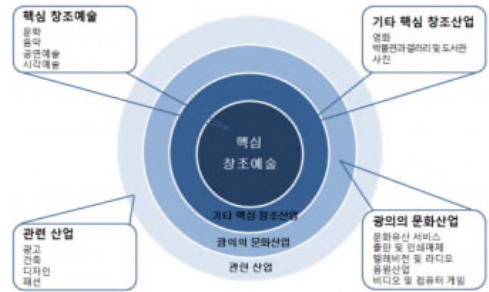
[그림 2-1] 예술 편익에 대한 랜드연구소 분석틀

학습 능력 향상 ①	도구적 편익 자기 효능감, 학습기술, 건강 ③	사회자본 발달, 경제성장 ⑤
	사적 편익의 공공 유발효과	공적 편익
사적 편익 매료, 즐거움 ②	공감 역량 확대, 인지력 향상 ④	사회적 연대 창출, 공동체 의미 확산 ⑥
	본질적 편익	

- 랜드연구소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기능을 사회자본-경제성장(⑤)과 사회적 연대-공동체 의미(⑥), 사적 기능을 학습 능력(①)과 매료-즐거움(②), 사적 기능의 공공 유발효과(spillover)를 자기 효능감-학습기술-건강(③)과 공감 역량-인지력(④)으로 설정한다. 또 ③과 ④의 편익은 공공 유발효과이기에 사적 기능과 공적 기능에 걸쳐 있다고 설명한다. 즉 폭넓게 보면 문화의 사회적 기능은 ③, ④, ⑤, ⑥번에 해당한다.
- 개인과 집단의 문화에 대한 인식은, 어떤 기능을 강조하고 비판하는가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유미주의자는 매료-즐거움(②)을 중요시하고, 문화산업 관계자는 경제성장(⑤)을, 비판이론가는 즐거움(②)의 상업화를 비판하고,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는 학습 능력 향상(①)과 학습기술(③)을 강조한다. 한국 문화계에서 1960년대 있었던 순수문학과 참여문학 논쟁은 예술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인데, 도식화하면 참여문학은 랜드연구소의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⑥)를 강조하고, 순수문학은 매료-즐거움(②)을 강조한 셈이다.
- 경제학자 스로비(Throsby, 2001)는 문화를 구성하는 문화적 가치를 미적(aesthetic), 정신적(spiritual), 사회적(social), 역사적(historic), 상징적(symbolic), 진품의(authenticity) 가치로 나눈다. 이후 스로비는 역사적 가치와 정통적 가치를 삭제하고 교육적 가치를 추가한다(양혜원 외, 2019 재인용).

○ 스로비(2008)는 “문화적 가치의 구성요
소들이 문화재화에 대한 개인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문화 재화
는 해당 재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
은 이들에게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예술과 문화산업 관계
에 대한 동심원 이론을 제시한다(양혜원
외, 2019: 29~30). 스로비 동심원 이론
은 랜드연구소 분석에서 경제성장⑤의
심화 버전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2] 스로비의 동심원 모델



[표 2-1] 스로비(Throsby)가 제시한 문화의 가치

가치영역	내용
미학적 가치	“미학적인 품질이라는 포착하기 어려운 개념을 그 이상 분해하지 않고 아름다움, 조화, 형식, 기타 작품의 미학적 성질을 예술작품의 문화적 가치로 인식하는 구성요소로 볼 수 있으며, 작품의 미학적 해석에는 스타일, 유행, 그리고 개인의 기호 등에 영향을 받는 요소가 추가될 수 있다.”
정신적 가치	“예술작품이 어떤 종교적 신앙, 부족, 그 밖의 문화적인 집단의 일원으로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종교와는 무관하게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내적인 특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정신적 가치에 의해서 전달되는 유익한 효과로는 이해, 계몽, 통찰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가치	“예술작품은 다른 사람과의 연대감을 전달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체성과 장(場)에 대한 감각을 갖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역사적 가치	“예술작품의 문화적 가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그 작품이 탄생할 당시의 생활 상태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와의 연대감을 부여함으로써 현재를 어떠한 방식으로 투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역사적 연결성이다.”
상징적 가치	“예술작품과 기타의 문화적 대상은 의미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개인의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이 의미를 추출해내는 것이라면, 그 작품의 상징적 가치는 작품으로부터 전달되는 의미의 본질과 소비자에게 주는 가치가 포함된다.”
진품의 가치	“예술작품이 진품이며 그 작품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의미함. 또 작품의 진품성과 완전성이 위에서 열거한 가치의 다른 원천 외에 그 자체로서 인정되는 가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자료: 성제환, 2004, 『문화경제학』, 한울아카데미.

- 문화의 경제적 가치가 강조되는 현상은 산업사회와 관련된다. 산업사회에서 나타난 근대성은 물질적인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가치론적 혼돈을 발생시킨다. 개개인은 다양한 역능(faculties)의 협업을 통해 전인격적 주체로 성장해 나가야 하지만 근대화 과정 속 도구적 이성의 중시 풍조로 지성적 능력에 치중된 계발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문화는 다양한 주체 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와 권력을 소수에 축적하여 종속시키고 다양한 가치관이 해체되는 흐름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지향한다.
- 문화정책에서도 엘리트 예술의 보급을 중시하던 ‘문화의 민주화’를 넘어 문화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의 도구적 활용 방향성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의 다양성 존중과 더불어 사회계층의 다양한 욕구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문화적 분출과 표현에 주목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이슈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예술활동”의 가치를 주목한다(박신의, 2013:30). 랜드연구소 분석 틀로 보면 사회적 연대 창출과 공동체 의미 확산이라는 ⑥ 영역이 확장된 것이다. 즉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혁신하는 보다 능동적인 실천으로서 문화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된다.
- 영국의 사례가 이러한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영국에서는 국가적 위상과 자긍심의 원천으로서 순수예술의 지원을 통한 고급예술의 육성을 주된 목표로 삼았던 초기 문화예술정책 시기를 지나, 20세기 후반부터는 공적 지원의 위축으로 민간투자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예술의 경제적 가치가 강조된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경제 불평등 심화와 공동체 해체 위기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시각에 대한 성찰적인 모습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사회적 기능의 필요성이 등장한다.
- 사회 전반적으로 공동체의 부활이 중요한 의제로 공유되기 시작했으며, 경제주의적 시각과 신념을 대체할 만한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회통합의 기능을 문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으며, 문화에 대한 사회적 영향 연구와 평가에 관한 학문적 연구로 이어지게 된다(박신의, 2013:60). 이처럼 문화의 기능은 고정적이지 않고 복합적이며, 특히 시대적 맥락에 따라 강조되는 가치와 기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영국의 사례가 보여준다.

3) 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논의 : 영국 사례

- 영국 코미디아(Comedia, 1993)의 ‘The Social Impact of Arts’ 연구에서는 다양한 예술 체험이 개인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며 행동양식이나 가치관에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는 예술기금을 지원하는 타당성을 제공하면서 참여적 예술프로그램을 실증하는 연구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마라타소(Matarasso, 1997)는 ‘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에서 예술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사회적 효과를 여섯 개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공헌하였다(박신의, 2013 재인용).

[표 2-2] 예술 활동 참여의 사회적 영향 분류

- “개인의 발전(personal- development) : 개인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변화를 다룬 것으로 자기확신, 교육, 기술,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다.”
- “사회적 결속력(social- cohesion) : 사람과 그룹 사이 연결고리에 관한 것으로서 범죄 거부 의식과 상호문화적이고 세대 간 이해로 공감대 및 연대의식을 의미한다.”
- “공동체 의식 강화와 자기결정력(communitry empowerment and self-determination) : 조직화에 대한 역량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갈 동기 유발을 지지하고 민주주의적 과정에 대한 참여와 협조를 의미한다.”
- “지역의 이미지와 정체성(local image and identity) : 장소성 의식과 지역 소속감 그리고 지역적 차이와 그룹 또는 공공기관의 이미지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 “상상력과 비전(imagination and vision) : 창의성과 전문적 실천력, 긍정적 도전 정신, 그리고 기대감과 상징성에 대한 공감 능력을 말한다.”
- “건강과 웰빙(health and well-being) : 예술을 통한 건강 회복과 교육적 효과, 그리고 삶에 대한 기쁨을 의미한다.”

자료: Matarasso, 1997; 박신의, 2013 재인용

- 영국의 블레어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보수당의 정책 기반이 된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빈곤과 범죄, 지역 불균형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새롭게 집권한다. 블레어 정부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빈곤이 심해지는 원인이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체계에서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있다고 보고, 문화를 활용하는 사회적 포용을 사회문제의 극복방안으로 제안한다(양혜원 외, 2019:81).

-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영국예술위원회도 빈곤 문제를 낮은 교육 수준, 노출된 질병 위험, 범죄, 실업과 같은 맥락과 연계하여 바라보며,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of the arts)을 예술지원사업에 전면적으로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영국 예술위원회는 사회적 배제를 겪거나, 겪을 위험에 놓인 사람을 대상으로 예술을 활용하여 관련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Jermyn, 2004:4, 박신의, 2018:47 재인용).
- 문화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하려는 영국 정부는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결과적으로 문화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확대되었고, 사회적 효과와 관련한 예술지원금이 늘어나면서 일반 대중의 문화적 접근성이 좋아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회적 효과에 집중하면서 순수예술의 질이 떨어졌고, 문화가 산업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 코미디아(1993)로부터 이어진 연구들이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다졌다면, 데이드레 윌리엄스(Williams, 1996)는 『Creating Social Capital』을 통해 경험적 조사를 바탕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윌리엄스가 내놓은 지표의 정의가 모호하고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없진 않으나, 관념적 수준에서 다뤄진 ‘사회적 영향 분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체적 수준에서 제시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 마라타소(1993) 연구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개인의 건강과 발전, 소속감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윌리엄즈(1996)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예술의 성과를 주목하였다. 영국 내에서 제조업이 하락하면서 노동시장이 달라졌고, 국가는 지식 생산적 요소가 중심이 된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을 국가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였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정책에 반영되어 예술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게 되었다.
- 당시 발표된 “창조산업 계획안(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을 살펴보면, 창조산업은 개인의 창의성, 기술, 재능, 산업, 지적재산의 활용과 생산을 통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김세미, 2017: 154-155)으로 정의하고, 문화의 범주에 해당하는 분야(건축, 공예, 디자인, 패션, 미술, 게임, 공연예술, 출판, 미디어)를 주력 분야에 포함하였다.

[표 2-3] 커뮤니티의 문화발전을 위한 예술의 주요 성과

성과영역	지표
사회자본의 증대	• “커뮤니티 내 소통 능력의 개선된 수준” • “커뮤니티 계획과 조직의 개선된 수준” • “다양한 문화 혹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용의 증대” • “정부와 커뮤니티 사이의 협의 방식 개선” • “커뮤니티 문화에 대한 이해력의 증대”
커뮤니티의 재건과 발전	• “커뮤니티의 정체성에 대한 강한 의식” • “사회적 소외를 경험한 사람의 감소” • “커뮤니티를 위한 레크리에이션의 개선” • “지역사회 혹은 커뮤니티 기업의 발전” • “공공시설의 증대 혹은 개선”
사회변화의 촉진	• “커뮤니티의 이슈에 대한 인식의 증대” •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려는 커뮤니티의 행동” • “다양한 문화 혹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용의 증대” • “지역사회 혹은 커뮤니티의 고용 기획의 증대” • “공공 안전의 수준 향상”
인적 자본의 발전	• “소통 기술의 향상” • “계획과 조직 역량의 향상” •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 • “정보 해석능력” • “창의력의 향상”
경제적 성과의 개선	• “공공서비스 혹은 프로그램 안에서의 비용절감” • “지역사회의 고용 선택권의 증대” • “정부와 커뮤니티 사이의 협의방식 개선” • “지역사회 혹은 커뮤니티 기업의 발전” • “커뮤니티 문화에 대한 기업 투자” • “커뮤니티 내로 유입되는 자원 및 지역 소비의 증대”

자료: Williams, 1997; 박신의, 2013 재인용

- 윌리엄즈 연구는 공적 재원을 투자하여 이루어진 예술 활동이 개인의 발전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유된 문화적 정체성을 갖게 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늘린다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힘입어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관련 이슈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성과는 당연히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과 문화다양성 가치로 이어졌다.

- 그런데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문화의 도구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이 나타났다. 문화의 본질적 가치로 회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문화의 심미적 가치를 높이고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영국예술위원회에서 발간한 「Achieving Great Art Everyone: 10years Strategic Framework」(2010-2020)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와 수월성을 강조하며, 예술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과 함께 국민의 문화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삶의 질 제고에 목표를 두었다(양혜원 외, 2019:98).
- 최보연(2017)은 “영국 문화정책백서 심층분석”을 통해 영국에서 공유되는 문화의 가치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본질적 가치’는 삶의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화 본연의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문화 향유를 통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만족도 향상에 대한 측면을 말한다. 둘째, ‘사회적 가치’는 커뮤니티의 통합이라는 사회적 이익을 달성하고자 문화적 활동을 통한 개인의 건강과 교육 수준의 제고를 의미한다. 셋째, ‘경제적 가치’는 문화를 통해 국가의 이미지 향상과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가치가 있음을 말한다.

[표 2-4] 문화의 3대 가치

가치 영역	내용
본질적 가치 The Intrinsic Value	• “문화 그 자체가 가진 본질적 가치” • “우리의 삶과 세계관에 영감을 주고 풍요롭게 하는 가치로 문화예술 그 자체가 가진 본연의 가치 창출”
사회적 가치 The Social Value	• “건강, 교육, 커뮤니티 통합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여” • “심신의 건강 및 교육 수준의 제고, 커뮤니티 차원의 사회적 자본 확장 등의 가치 창출”
경제적 가치 The Economic Value	• “국가발전의 직·간접적 경제적 기여” • “예술, 문화유산 및 관광분야에서의 경제적 가치 창출 및 국가브랜드 파워 강화 등 경제적 가치 창출”

자료 : 최보연(2017), “영국 문화정책 백서 심층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근에는 사회적 고독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며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논의가 이어졌다. 2018년 1월 영국 메이(Theresa May) 총리는 외로운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겸직으로 임명하여 외로움 문제해결위원회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고독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예산투입을 공식화하며 범부처 차원에서 고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이와 관련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예술기반의 사회적 처방(최보연, 2019)”이 제시되었다.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은 정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약물적 치료보다는 커뮤니티 활동 참여를 통한 비약물적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 2-5]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의 효과

항목	구체적 효과
정신적·육체적 건강	- 회복탄력성, 자신감, 삶의 질 향상 - 생활 습관 변화 촉진
재정적 이득과 지속가능성 향상	자주 받던 진료나 약물 처방이 줄어들어 따라 의료비 절약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참여 강화	- 자기가 할 수 있음을 인식, 공동체 이익 증진에 이바지 - 공동체의 회복탄력성 향상
행동 변화	자신을 돌볼 줄 아는 능력이 향상되고 활력이 증진되는 등 라이프스타일이 변화
봉사와 사회활동 참여	- 자원봉사 활동이나 사회적 기반 활동에 더 많이 참여 - 아픈 이들의 요구 사항을 해결
사회적 결정요인으로 비(非)건강 상태를 극복	- 취업 능력 향상, 정신적 사회적 고립의 감소 - 사회적 복지 혜택

자료: 서울연구원(2018)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으로 시민건강 증진(영국 런던시) 참고

- 영국 GP(지역의료기관) 방문자 중 약 20%가 비의학적인 이유로 방문하며⁴⁾,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커뮤니티 안에서 예술 활동을 지속하는 게 보탬이 된다. 코로나19 위기 속 심리적 불안감과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 격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한 상태로 새로운 보건서비스로 사회적 처방에 관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예술의 접근성 제고와 문화의 사회적 가치 강조라는 최근 영국 문화예술정책의 흐름과 함께, 현재 ‘자가 치료(Self-care)’ 차원(APPG, 2017: 116; NHS England, 2017; 최보연, 2019:246 재인용)”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전문가 처방으로 이루어지는 비자발적 예술 참여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 속 예술 활동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4) <https://www.london.gov.uk/what-we-do/health/social-prescribing> 참고

3. 문화의 기능 관련 정책적 설정 흐름과 과제

1) 정부별 문화정책의 주요 가치

- 문민정부 이전까지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그런데 군부독재 시기에는 본질적 가치를 내세운 문화의 정치 도구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전쟁과 분단, 군부정권의 장기 독재 과정에서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겪으면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목적에서 문화가 활용되었다.
-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축으로 구분되며, 민중문화의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서구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 민족문화와 외래문화로 축이 구분되었다. 대중문화의 탄압과 더불어 민족문화의 복원을 위한 문화재 보호와 순수예술 진흥정책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이 시기에는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국정홍보의 수단으로 문화를 통한 공보기능이 확대되었다(김규원 외, 2018:12).
- 정당성과 정통성 상실이라는 정권의 정치적 결함을 해소하고자 전두환 정부는 공보 수단으로서 문화를 활용하였고,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와 전시 효과 측면에서 문화시설이 대대적으로 확충되었다. 3S와 같은 우민화 정책에도 문화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또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류의 윤리적 혼란과 메마른 정신세계를 사회의 병폐로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는 시도로서 대중문화를 통제하기 시작하였다(김수정, 2018:157).
- 1990년 문화부 설립과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발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정책 수립이라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문화향수권’과 ‘문화참여권’ 선언을 통해 국민의 문화권 확보의 시작을 알렸다.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유입, 국토분단에 의한 민족문화의 단절 그리고 도시와 물질문명이 빚어낸 가치관의 붕괴...한국인의 문화적 동질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단지 피부색과 얼굴 모양만이 다를 뿐 행동도 사고방식도 전혀 다른 이방인같은 동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인의 원체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찾는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운동을 거족적으로 벌여야 할 것입니다.”(대통령기록물, 노태우 대통령의 문화정책 메시지 中)

- 이 시기에는 팔길이 원칙 속에서 문화의 제도적 개선과 예술가의 창작 환경 조성을 문화 활동의 기본원리로 강조하며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문화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문화원형 찾기와 민족주의적 성격의 사회통합 지향은 문화가 가진 다양한 속성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저항적 예술운동의 갈등을 잠재우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방편으로써 활용되었다.
- 문화가 정치적 수단으로써 활용된 시기를 지나 제도 안의 편입(문화부 설립)에 따른 과도기를 거쳐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전환의 시기를 맞게 된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이해하며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향유자 중심의 문화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 그런데 문민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는 예술의 경제적 기능이 강조되었다는 게 더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되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써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문화를 산업으로 보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하였고, 의례였던 축제가 관광상품이 되고, 문화행사를 경제적 효과로 측정하는 게 일상이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문화산업국 신설은 문화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공식화하고 ‘민간 자율 국가 지원’의 국가 정책 기조 아래 ‘문화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지원정책’의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조부근, 2007:37).
-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국가 경제 위기 속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서는 문화를 국가발전의 핵심 동인으로 내세우며 문화산업의 정책지원을 더욱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당시 “문화산업은 21세기 기간산업이며 관광산업, 영상산업, 문화적 특산품 등 무한한 성장이 기다리고 있는 부의 보고”임을 강조하며, 고부가가치 창출, 사회통합, 남북통일 등의 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적 가치로서 문화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인정하였다.
- 국민의 정부 당시 문화계의 숙원이었던 정부 재정 대비 문화예산 1% 확보가 가능해졌는데, 당시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것은 영상산업 분야였다. 문화관광부가 ‘2000년대

를 준비하는 국민의 정부 새문화정책'으로 발표했던 당시 5대 문화산업(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음반) 육성에 문화예산을 집중하였다.

- '자율, 참여, 분권'을 국정 기조로 수립한 참여정부에서는 「창의한국」을 새로운 문화 비전으로 제시하며 '창의성'을 문화정책의 화두로 설정하였고, 문화의 위상과 잠재력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창의성은 창의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결국 문화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된 방향이다.
- 문화산업의 육성이 더 강조되며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되었는데, 참여정부에서는 특히 디지털 환경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 육성에 집중하며 문화의 산업적 성장 기반을 다지졌다. 2005년 발표한 「문화강국(C-KOREA) 2010」에서는 콘텐츠(Contents), 창의성(Creativity), 문화(Culture)를 바탕으로 문화, 관광,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불균형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지향하였다. CT(문화기술)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콘텐츠와 디지털 개념이 문화산업정책에 도입되었고, 대중음악과 방송드라마에서 촉발된 한류가 정부 정책과제로 채택되어 한류를 확산하는 지원정책이 추진되었다(김기현, 2012:51). 문화의 상품화에 대한 다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 '창조적 실용주의를 통한 선진 일류국가'를 국정 기조로 삼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문화정책에서도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을 기조로 삼았다. 경제성장 동력으로써 문화의 부가가치를 활용하고, 문화의 외연 확장으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택과 집중, 사후 지원, 간접 지원 확대"의 원칙 아래 예술의 수월성을 강조하는 예술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당시 김대중 정부로부터 이어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팔길이 원칙을 비롯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문화정책들이 대거 폐기되는 양상을 보였다(김명수 외, 2018:59).
- '문화융성'을 제시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문화를 국정 기조 전면에 내세웠다는 특징이 있는데, 당시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 이전 정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오던 문화 관련 법률 등을 제정하면서 문화의 개념에 대한 확장을 시도하였다. 문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와 더불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로서 문화권에 대한 공식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 20세기 후반부터 문화적 권리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는 지속하여 전개되었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 역시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과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체결 등과 비교해봤을 때 다소 지체된 것이었다. 하지만 문화융성 정책은 ‘문화의 융성’보다는 ‘문화를 통한 융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실상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을 두고 문화를 경제발전의 수단으로만 이용했다는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문화의 사회적 가치가 우리나라 문화정책에서 본격화한 것은 문재인정부에서다. 다만 참여정부 당시 출간한 「문화정책백서」에서 “문화의 의미가 고급예술 혹은 정신적 교양이라는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대중문화나 문화산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됨을 제시하며, “생활문화, 정신·민족문화, 공간문화, 여가문화 활성화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을 새로운 정책 분야로 제시하였다(김수정, 2018:183-184). 즉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이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였으나, 이 문화정책백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참여정부부터 문화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과 대안으로 문재인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하였고, 핵심 가치인 포용성은 다름을 통해 서로의 존재와 문화를 공유하며 공존하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전제될 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 다양성의 이해를 전제로 한 사회통합을 위해 문화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았다.
- 예를 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의 가치에 주목하였다(양혜원 외, 2019:172). 제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사회문화적 환경변화 속에서 대두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해 인간 고유의 정체성과 인간성 회복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는 사회적 포용의 수단으로서 문화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 특히 문재인정부에서는 그동안 문화예술계에 만연해 있던 불공정성과 경제발전 수단으로 이용된 문화의 도구적 전략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문화의 본연의 가치(자율성·다양성·창의성)를 강조하면서 문화의 가치를 통한 사회혁신의 지향을 담은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였다. 문화비전을 기반으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개발되고 지원되었다.

○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가장 반영한 정책이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이다.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과 자치, 포용, 혁신이라는 세 가지 가치 아래 핵심 목표로 “지역을 혁신하는 지역문화”가 설정되었다. 또 네 가지 전략 중 하나가 “문화의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이다. 이 전략에는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업으로서 문화예술형 일상실험실, 문화의 사회적 가치 연구, 생활체감형 공공디자인 추진 등 세부 과제가 계획되었다.

○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한국에서 문화정책이 강조하는 가치의 변화는 영국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정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예술의 본질적 가치(미학)를 강조하다가 신자유주의 시기와 맞물려 경제적 기능이 강화되었고, 최근에는 정치적 수단으로서 문화의 활용이 아니라, 문화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효과를 실현하는 데 주목한다.

[그림 2-3] 문화비전 2030의 가치와 배경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4-1 과제]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업 추진
- (문화예술형 일상실험실) 문화·예술 활용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일상생활 실험실(living lab)' 시범사업 추진
 - 읍·면·동 단위의 현안 사회문제(독거노인, 민집, 범죄 등) 발굴, 지역사회 구성원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활용한 혁신활동 활성화 지원
 - (Living Lab) 특정 공간 및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플랫폼
 - (문화의 사회적 가치 연구) 문화의 사회적 가치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근거를 축적하기 위해 지역별 문화현황(지역문화현황조사 등)과 사회문제(저출산·빈곤·실업·건강악화 등) 간의 상관관계 분석·조사연구 추진
 - (생활체감형 공공디자인 추진)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등 모든 이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생활체감형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시범공간 조성 및 지침서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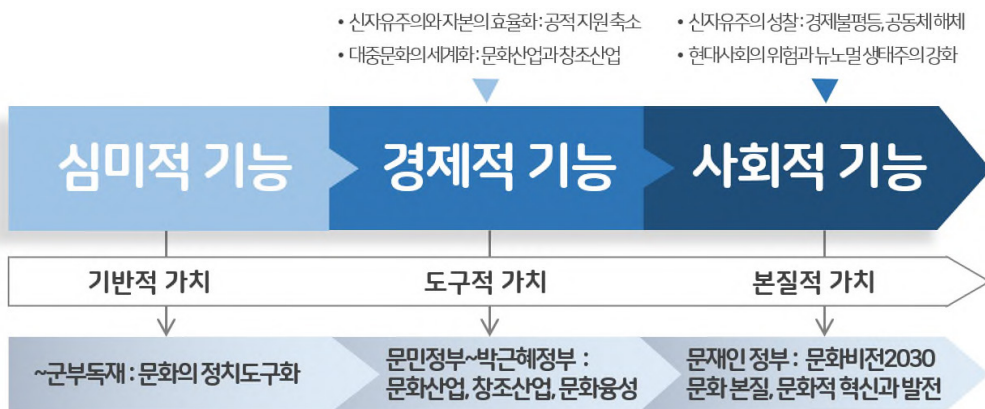
2) 기존 정책의 성과와 과제

-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poration) 보고서에서 문화의 기능을 공적과 사적, 도구적이면서 본질적인 기능으로 구분하여 모두 여섯 가지 편익을 제시하였다. 문화의 가치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측면까지 복합화되었고, 대체로 본질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와 가치별 세부적 기능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정립되었다.
- 문화의 복합적 가치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특정 가치가 부각됨을 영국과 한국의 문화정책 흐름을 통해 살펴보았다. 신자유주의 이후에 등장한 창조산업 시대에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가 강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문화의 경제성에 주목하였다.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문화의 본질적 가치가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문화를 지나치게 도구화한다는 비판이 많아졌다. 문화의 본질로 회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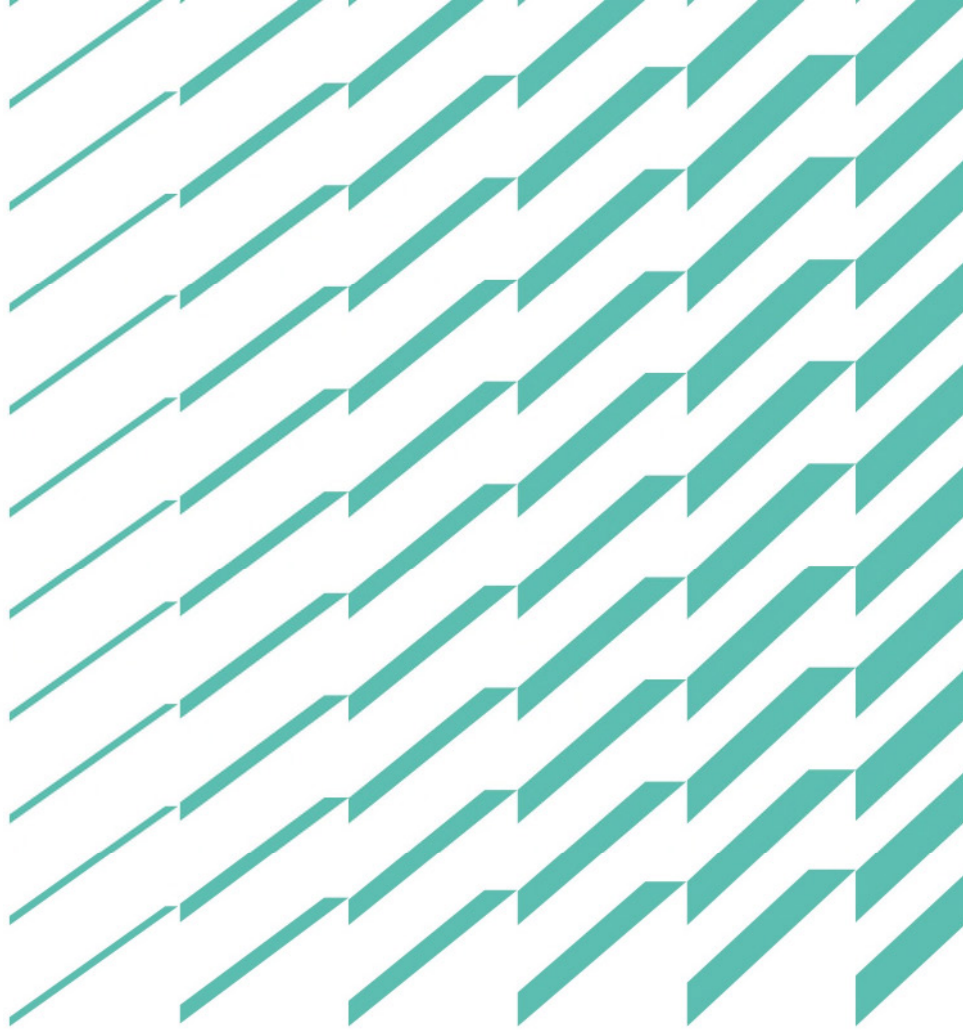
- 신자유주의 이후 개인의 존재론적 위기를 해소하는 대안, 즉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커졌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예술기반의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최보연, 2019)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사회적 고독과 소외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문화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해진 기후 위기 등에 따른 생태 문제에 있어서도 예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환경적 삶의 동인(動因)으로서 문화의 역할이 그것이다.

[그림 2-4]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문화의 주요 기능에 대한 흐름



-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의 사회적 기능이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되었고, 이와 관련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다만 문화의 사회적 기능을 다루는 연구에서 분석 단위가 주로 개인에 집중되었고, 공동체와 사회 단위 연구는 미흡하였다(양혜원 외, 2019:14). 또 문화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분석이 실증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문화의 가치가 가지는 무형성·비가시성으로 계량적 측정이 어렵지만 문화가 미치는 영향을 맥락에 의존하여 추상적 수준에서 검토하는 한계를 보인다.

-
- 모든 문화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를 누리거나 직접 창조적 활동 또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고 자동으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응하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건과 맥락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사회적 영향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분석해야 한다. 또 개인 단위의 연구가 많다는 지적은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문화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문화의 속성이 공동체를 지향하고 사회적 연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문화의 사회적 가치 역시 개인보다 사회에 집중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려면 첫째, 현대사회의 위험을 분석하고, 이 위험에 대응하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탐구하여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형화된 문화의 사회적 가치별로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어떤 조건과 맥락에서 사회적 효과가 창출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사례를 참조하여 문화정책에 적용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제3장

문화의 현대적 기능 사례

1. 문화적 사회혁신
2. 문화적 환경위기 대응
3. 문화적 돌봄
4. 문화적 치유



제3장 문화의 현대적 기능 사례

1. 문화적 사회혁신

1) 필요성과 개념 검토⁵⁾

■ 사회혁신의 개념과 실천에서의 한계

- ‘혁신’은 공공·비영리 부문뿐 아니라 시장과 시민사회에서 공통적 화두이다. 혁신은 기술경제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는데, 낡은 방식을 바꾸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조지프 슈페터(Joseph Schumpeter)는 혁신을 재화(상품), 생산방법, 시장, 공급원(독점의 붕괴) 등 산업구조가 모두 새롭게 되는 것으로 말한다(윤찬영, 2019: 37-38). 혁신은 개선·변화 등과 개념이 다르다. 혁신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가치관까지 바꾼다.
- 혁신의 사회적 가치가 관심을 받은 것은 2000년대부터다. 유럽연합이 선도하였는데, 국제금융위기를 겪던 2000년대 초반에 사회혁신을 핵심 아젠다로 선정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도 백악관에 ‘사회혁신 및 시민참여국’을 설치하였다(윤찬영, 2019: 30). UN도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시하였다. 유럽, 미국, UN 협약 등이 이어지면서 세계적으로 미래를 고려한 발전, 경제성장과 사회개발과 환경보호의 균형을 통한 총체적 발전에 관심이 커졌다(정서화, 2017: 891).
- 사회혁신이 기술경제 중심의 기업혁신과 다른 특징은 사회적 난제 해결에서 혁신이 출발한다는 데 있다. 사회적 난제란 환경 위기, 양극화와 불평등, 고령화, 팬데믹 등 사회적 도전과제와 지속적 해결과제를 아우르는 말이다(김왕동 외, 2014). “다양한 행위자의 등장, 참여, 협업을 강조하는 사회혁신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이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크다”(정서화, 2017: 890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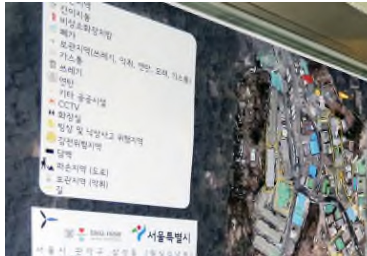
5) 원주문화도시지원센터(2021)의 ‘문화공동체 활성화 언제나 지원’ 원주형 문화적 사회혁신 개념 정립 및 유형 연구(연구책임 육수현)를 참조하였다.

- 스탠퍼드대 사회혁신센터(2003)는 “사회혁신을 사회적 필요와 문제에 대한 참신한 해법을 발명하고, 지원을 확보하여 실행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윤찬영, 2019: 38-39). 또 일상에서 실험하여 해결책을 찾는 차원을 넘어 실험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까지 사회혁신에서 말하는 변화의 과정으로 본다.
- 사회혁신은 사회혁신과 관련한 시스템, 안정적으로 사회를 혁신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접근법을 반영한다. 종합해보면, “사회혁신이 내세우는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사회적 난제가 수복이 쌓여있는 현장에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공공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자, 그 결과이다”(원주문화도시지원센터, 2021).
- 한국에서는 정부 주도 사회혁신 활동과 민간 주도 사회혁신 활동이 있다.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민간의 사회혁신은 업사이클링,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등이 있다(이주성·신승훈, 2015; 희망제작소, 2016). 정부 주도 사회혁신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사회혁신에서 중요한 요소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혁신적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지원”하며, “시민-정부-기업-학계-비영리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영역이 연결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한다(행정안전부, 2018: 37).⁶⁾
- 사회혁신에서는 연계와 협력의 핵심 방안으로 주민 주도를 내세운다. 주민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협력자이며 주체이자, 일반 거주민을 비롯하여 마을기업,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등을 말한다. “민간과 기업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융합적 정책으로 공공화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는 민주주의 이론으로도 주목받는”(미우라, 2013: 342) 사회혁신이지만, 사회혁신을 실현하는 실제 과정에서는 시민이 주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사회혁신을 보면 대체로 관이 주도하여 진행하거나 하향식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집행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단순한 참여에 그치는데, 시민이 정책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주체로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혁신이 성공하려면

6) 행정안전부(2017.12.14). “주민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추진 계획”, 「제2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자료. 행정안전부(2018).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 (2018). “시민참여로 만드는 변화 사회혁신의 이해”.

사회혁신 관련 행정의 권한을 민간 영역에 넘기는 행정혁신이 먼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정병걸·송위진, 2019: 13).

- 마을 단위 사회혁신 사업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전통적 권력관계가 반영되어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도 나타난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도하는 사람은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마을 만들기사업단 사무국장 등인데, 이들은 대체로 마을 내 권력관계의 정점에 있다. 이들이 주도하는 사회혁신 체계에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기도 어렵지만, 대체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들은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크다. 이들이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마을을 혁신할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 결국 사회혁신이 제대로 되려면 민관협력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집단 내에서 권력관계 정점에 있는 이들이 주축이 되거나, 다수가 제안하는 방향이 주도하여 소수자가 내놓은 방향이 배제는 일이 없어야 한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접근방법은 대체로 소수 의견에서 출발한다.

〈사례〉 쪽방촌 지도 제작 프로젝트	
• 소셜벤처인 드론 데이터 전문 기업 '엔젤스윙'은 2015년부터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 공헌단에서 지원받아 쪽방촌의 지도를 만들었다. 쪽방촌 지도를 만든다고 사회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사회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하고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가령 벤치가 필요한 곳에 직접 벤치를 설치할 수는 없으나 지도에 표시해 각 기관에 전달하면 벤치가 필요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수해, 화재 등과 같은 재난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다. • 이들이 제작한 지도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쪽방촌 봉사활동단체에 기부되었다.	
	

자료 : 오마이뉴스, 드론으로 쪽방촌 지도 만드는 사람들(2017/04/27)

- 그런 점에서 문화다양성은 사회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이다. 문화다양성은 소수자(집단)의 문화를 보호할 뿐 아니라, 소수자(집단)가 문화적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

는 데 핵심 가치를 둔다. 또 다양한 문화가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활동을 강조한다. 즉 다양한 주체가 연계하고 협력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에 있어 문화다양성이 중요한 가치이자 방법임을 말해준다.

- 사회혁신이 공동체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도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화는 공동체에서 발현되며, 공동체 구성원 간 공유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자 결과이다. 사회혁신에 있어 문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른바 문화적 사회혁신이 필요한 배경이다.

■ 문화적 사회혁신의 개념과 방향

- 사회혁신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회혁신은 공동체적이다. 그렇다고 공동체 요소를 일반적 사회혁신과 차별화되는 문화적 사회혁신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문화공동체는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일반 공동체와 다르다. 일반적인 생활공동체는 문화를 공유하므로 근본적으로 문화공동체라 할 수 있다. 다만 정책적 측면에서 문화가 생활양식이 아닌 이른바 문화예술품을 중심으로 이해되므로 문화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개념을 검토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장세길·육수현(2021: 111)은 문화공동체를 “개인의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문화향유 활동의 매개체이자, 문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구심체”로 설명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문화공동체는 문화향유와 관련한 동호회 형식의 문화향유형 문화공동체와 지역사회와 관련한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로 구분되며,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는 “구성원의 문화적 욕구(취향)를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을 혁신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공동체”를 말한다(ibid.:11).
- 이러한 개념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목적 외에 지역발전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을 포함하므로 일반적인 사회혁신보다 더 포괄적이다. 이 개념을 통해 문화적 사회혁신이 일반적 사회혁신과 다른 ‘문화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첫 번째 특징은 문화적 사회혁신이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민과 협력(참여)하며,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데 있다.
- 문화적 사회혁신에서 활용하는 수단은 문화예술이다. 스펀터는 혁신을 창조적 파괴라면서 새로운 방법이 시장과 공급원에 실현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창조적 파괴, 즉 창의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게 문화예술이다. 사회혁신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방법, 창조적 발상이 중요하며, 창조적 발상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형성되는 창의성이 기반이 된다.
- 창의성의 발현이 문화예술의 본원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사회혁신은 문화(의 창조성)를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사회혁신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창조성이 큰 역할을 하는 예가 많다. 문화예술로 사회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딱딱한 사회문제 주제에 쉽게 접근하고, 창조적 발상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정신장애인 공동체 ‘아리아리’가 기존의 딱딱한 사회복지교육이 아니라 쉽게 접근하는 핸드폰 사진 찍기를 통해 사회적 효과를 얻은 예가 그러하다.
- 둘째, 문화적 사회혁신은 문화다양성이 핵심 가치이다. 문화다양성은 사회문제와 관련한 집단 내 소수자의 문화(의견)가 표현되도록 보장하고, 상호협력하여 창의적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가치이자 실천 전략이다.
- 문화다양성이 추구하는 소수문화의 표현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가치는 최근 사회혁신에서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여 해결하는 과정이 ‘소규모 공감’에서 출발한다는 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다수 의견을 선택하였던 기존과 달리, 문제 발견과 해결에 소수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 카카오임팩트 100up x 이노소셜랩이 2020년에 진행한 「소셜섹터 문제 정의 현황연구, 어떤 시작」 연구는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선택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설정된 시민 ‘다수’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다. 변화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개인도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 과거처럼 다수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항을 문제로 삼기에 사회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파편화되어 있다.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는 출발점이 관련 주민 ‘모두의 공감’이 아니어도 된다. 나를 제외한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발견한 사회문제에 공감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사회혁신이 시작된다.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문제로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창조적 사회혁신이 이뤄진다. 다수가 어떤 문제에 동의해야 지역사회 문제가 되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규모에서 소수,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소수의 동의와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는 소수자,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문화다양성이 기반이 되는 ‘문화적’ 사회혁신이 중요해졌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 예를 들어, 이주민이 이주한 지역에서 문화적으로 사업하려면 원주민과 공동으로 하거나 원주민이 주도하기를 원하는 게 공적 지원사업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런데 원주민은 지역 내에서 권력을 선점하고 있어 이주민과 원주민이 수평적 관계에서 일을 진행하기 어렵다. 이주민이 내는 목소리는 힘을 잃기 쉽고, 기대했던 협력 대신 갈등만 커질 수 있다. 이주민이라는 지역 내 소수자의 의견을 문제해결의 출발로 보고 원주민과 관계없이 이주민만의 독자적 사업을 지원하는 것, 문화다양성 가치에 근거한 문화적 혁신의 출발이다.
- 이처럼 문화적 사회혁신에서 ‘문화적’이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문화예술을 활용(문화예술을 통한 주민참여, 문화예술을 활용한 문제해결 방법)한다는 점과 문화다양성의 가치(소수문화의 표현과 창의성)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문화적 특성은 사회혁신에서 지적받는 미흡한 주민 주도(참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접근이 쉬운 문화예술을 활용하고, 소수를 중시하는 문화다양성의 원리를 적용하면 주민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참여와 주도성을 높일 수 있다.
- 문화적 사회혁신이 푸는 사회문제는 일반적 사회혁신에서 정의되는 사회문제, 즉 “시민이 필요하여 선택”(행정안전부, 2018: 36)한 것으로, “국가와 시장 중심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필요 영역의 지역 현안과 주민 생활 불편 문제”(행정안전부, 2017: 2)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문화적 사회혁신이 활발하지 않은 배경에는 문화활

동을 개인의 문화적 욕구 충족(문화향유)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는 데 이유가 있다.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의 기능이 강조되는 추세이나, 그 대상이 대부분 도심재생과 연계한 문화활동, 문화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등에 머물러 있다. 문화적 특성(문화예술 활용과 창의성, 문화다양성 기반)을 활용하는 게 문제해결에 더 효과적인 사회문제가 많다. 주민의 삶과 관련해서 더 그렇다. 따라서 주민의 삶과 관련된 사회문제 대부분에 있어 문화적 혁신이 필요하다.
- 문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문제를 주민의 삶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개인의 삶, 사회적 관계, 지역발전이라는 3개 유형”(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2021: 27)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삶과 관련한 혁신의 목적은 개인이 원하는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는 데 있다. 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활동은 “개개인의 욕구보다, 문화를 누리거나 문화를 매개로 하는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목적을 가진다”(ibid.: 28). 관계 기반이 없는 이주민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관계를 맺어 지역에 정착하려는 활동이 예다. 지역발전 목적의 활동은 다양한 문화자원 또는 문화적 활동을 통해 낙후 지역을 활성화하거나 공동화된 도심을 재생하거나, 지역경제를 진흥하거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지역 브랜드를 창출하는 목적을 가진다.

2) 문화적 사회혁신 사례

■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 사례 :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사업

- 완주군 문화도시에서는 ‘공동체 문화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문화공동체 육성과 활성화를 핵심 사업으로 진행한다. 완주에서 육성하려는 문화공동체는 지역사회 문제를 문화로 해결하는 이른바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이다(장세길·육수현, 2021). 2018년부터 ‘메인드 인 00’이라는 이름으로 문화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였고, 2020년부터 준비형과 성장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다.

- 여기에서 소개하는 문화공동체 사례는 모두 6개이다.⁷⁾ 1개 문화공동체(보물섬)를 제외하고 모두 새롭게 만들어진 문화공동체이다. 3개 문화공동체는 성장형으로 지원받았고, 3개 공동체는 준비형으로 지원받았다. 문화공동체 활동 대상은 다문화가족(보물섬), 정신장애인(아리아리), 이주민(엄마의 방학), 환경보존(동이), 문화봉사(비상), 청년예술인(작은곰자리) 등 다양하다. 예술 취향을 공유하는 이른바 ‘문화향유형 문화공동체’와 달리, 이들 공동체 구성원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주제로 삼아 문화공동체로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3-1] 사례조사 대상 문화공동체 개요

문화공동체	주요 내용	구분
보물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성장형
아리아리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기관 운영)	성장형
엄마의 방학	기업이 이주하며 함께 이주한 가족이 주로 참여	성장형
비상	골프레슨 모임에서 시작, 문화봉사와 공예 활동	준비형
동이	석산개발 반대에서 환경 관련 공동체로 발전	준비형
작은곰자리	지역 청년예술인 참여, 프로젝트 공동체	준비형

- 사례조사를 한 공동체는 목적이 거창하지 않았다. 취향을 공유하는 취향공동체(taste communities)(작은곰자리, 아리아리)부터 개인의 필요로 만들어진 친밀공동체(intimate communities)(엄마의 방학),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공동체(작은곰자리) 등 다양하였다. 공동체 목적과 활동이 다양하다는 것은 현장에서 적용받는 문화공동체 개념과 범주가 한정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받음을 의미한다.
- 문화공동체의 유연성은 ‘문화’라는 범주의 폭넓음과 융합적 성격과 더불어 문화도시 사업이 갖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처럼 보인다. 또 느슨한 사회적 연결(Loosely Coupled Social Networks)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공동체적 특성도 문화공동체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의 위계 구조가 그대로 반영되는 전통적 공동체와 달리, 문화공동체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공감을 바탕으로 맺어진 일시적이면서

7) 2021년 5월 10일 현재 조사된 6개 문화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이 글을 작성하였다.

익명의 느슨한 사회적 연결”(구선아·장원호, 2020: 70)이 특징이다.

- 활동을 통해 돈을 벌더라도 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무게를 둔다는 점도 또 다른 특징이었다. 처음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만든 공동체, 친목으로 시작했으나 경제적 수익이 창출되는 공동체,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공동체 모두 ‘돈’은 부수적인 목적이었다.
- 골프 레슨에서 만나 결성한 ‘비상’ 공동체에서 뜻이 맞는 세 명이 ‘꿈이다꾸미다’를 결성하고 사회적기업을 준비하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활동으로 벌이는 수입은 애들 학원비 수준”이라고 말하였다. 그만큼을 번다는 말이기도, 더는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말일 수 있다.
- ‘엄마의 방학’도 엄마의 재능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지 않았다. “돈보다 오히려 우리 활동이 돈을 벌기도 하네, 하면서 느끼는 재미가 더 크죠.” 공동체 활동의 결과물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가 이어지는 계기로 받아들였다.
- ‘돈’이 목적이 아님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음을 말한다. 조사한 공동체를 보면 공동체 활동이 생계와 직접 연계된 예는 많지 않았다. 취향과 친밀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라는 점이 생계와 관련된 경제 활동과 거리를 두게 한다. 이 말은 문화공동체가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사회적 측면과 관련됨을 의미한다. 또 경제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돈’보다 ‘가치’에 더 관심을 둔다는 것은 문화공동체 활동이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뜻한다. 조사한 사례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졌다. 결과보다 과정을 강조한다는 것은 참여 주체의 역량을 키우는 게 핵심이며, 이는 문화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효과와 관련된다.
- 첫째, 완주군 문화공동체 사례에서는 공동체가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공동체 목적과 무관한 새로운 사회적 이유에 즉각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 ‘보물섬’은 2018년 다문화가족이 참여한 아시아 세계음식 축제를 작게 개최한 뒤에 2019년에는 다문화체험 행사를,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다문화 음식을 만들어 소방서·경찰서에 전하는 ‘도시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을 진행하였다. 2021

년에는 ‘환경’에 관심을 두고 동네 어르신을 돕는 친환경적 활동을 구상하였다. ‘엄마의 방학’은 2020년에 ‘일주일 간 쓰레기 줄이기 체험’ 사업을 진행하였다. 친목으로 모인 엄마들이 ‘엄마의 실천’으로 활동 폭을 넓혔고, 2021년에는 ‘만경강 사랑 지킴이’와 함께 만경강 관련 환경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환경 문제 외에도 회복 탄력성, 사회적 연대 강화 등 다른 공동체도 활동하며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더 가지는 경향을 보였다.

-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메인드 인 00’ 사업의 슬로건이 ‘지역문제를 문화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문제가 공동체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으나, 조사한 공동체 대부분(석산개발을 반대한 동이 공동체 제외)은 지역사회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자기 문제 또는 취향을 공유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 ‘엄마의 방학’은 엄마끼리 글을 써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지만, 기업 이주로 다른 지역에서 함께 완주로 이주해온 엄마들이 사회적 연결을 희망하는 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곧 거주 지역 이주 엄마들의 사회적 문제임을 깨달았다. 골프레스모임에서 시작한 ‘비상’이 지역 화훼농가를 생각하며 벌인 활동, 다문화이주여성의 한글교육에서 시작한 모임이 이제는 지역사회의 강한 신뢰관계를 만들려는 활동으로 나아가는 모습도 주요 사례이다.

[표 3-2] 완주군 문화공동체의 관심사와 활동에 대한 변화

공동체	관심사의 변화 과정				
엄마의 방학	엄마 개인의 문제: 문화향유, 글쓰기 등	▶	기업도시 이주민 문제 (남편 따라온 부인)	▶	사회적 소수자 관심, 엄마로서 환경 활동
동이	체험관 운영 개인의 문제	▶	마을의 문제(환경/안전)	▶	만경강 관련 지역 문제
아리아리	정신장애인 개인의 문제 (딱딱하지 않은 사진 교육)	▶	공동체 지역 인식 개선	▶	사회 · 경제 · 정치적 활동
비상	골프레스 모임	▶	봉사활동과 문화향유	▶	지역 농가 살리기 활동
보물섬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교육	▶	원주민과의 관계 개선	▶	이주민 주도 사회 활동

- 둘째, 공동체 관심사가 개인에서 사회로 확대되듯이, 완주군 문화공동체 사례에서는 공동체 활동이 개별 공동체에서 공동체 간 협력사업으로 확대되었다.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며 공동체를 결성한 뒤, 공동체 활동을 통해 얻은 역량 또는 관심 이슈를 추구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따로 결성하거나,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다른 공동체와 협력사업을 벌이는 공동체가 많았다. 이는 공동체 활동이 경향적으로 지역사회 전체로 사회적 신뢰 관계를 확장하였음을 보여준다.

- ‘동이’는 활동 범위를 개인적 활동에서 마을 단위 활동으로 확대하였고, 공동체 활동(석산 반대)을 토대로 만경강 지킴이라는 지역사회 환경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엄마의 방학’은 엄마의 실천(환경공동체 살림+엄마의 방학), 엄마의 몸(요가+엄마의 방학), 엄마의 성(엄마의 방학+아동청소년 성교육공동체 아리송), 엄마의 감정(소셜맘단체+엄마의 방학), 엄마의 산책(만경강 사랑 지킴이+엄마의 방학) 등 관련 공동체와 협력사업을 진행하였거나 구상하였다.
- 셋째, 문화공동체가 공동체 구성원 간뿐 아니라 다른 공동체와 협력으로 지역사회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에는 ‘공감’(empathy)이라는 특성을 빼놓을 수 없다. 공감은 다른 이가 처한 상황과 감정 등에 정서적으로 연결됨을 뜻한다. “개인적 공감은 개인 간 또는 소규모 집단에 나타나며 사회적 공감은 사회적 집단 및 사람들의 삶과 상황을 인식하고 경험하여 다른 사회적 집단과 사람들의 삶과 상황을 인식하고 경험함으로써 이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Batson, 2009; 구선아·장원호, 2020: 71 재인용).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을 연결하는, 사회적 연결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공감이다.
- 문화 활동은 일차적으로 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과정이다. 문화 감수성 증진은 “문화 수용력뿐만 아니라 문화 표현력(표출력)도 함께 키워 타인(타문화)을 이해하고 자신을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능력도 키워준다. 나아가 문화 공감력과 서로 소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이현서, 2014). 개인의 문화 감수성 증진을 통해 타인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강한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영향을 준다.
- ‘엄마의 방학’이 활동을 이어가면서 지역 내 문화적 소수자에 관심을 두게 되고, 환경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여 활동을 이어가는 사례, 비상이 코로나 시국에 힘들어하던 지역 화훼농가를 돕고 스스로 감동을 크게 받은 사례, 개인적 문제로 석산 개발에 반대했으나 주민과 환경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활동하면서 개인도 주민도 함께 환경 활

동에 나서게 된 사례 등이 각자의 삶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감을 통해 사회적으로 연결된 사례이다.

- 넷째, 문화공동체 활동은 연계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을 강화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로버트(2000)는 사회자본을 다른 집단이 서로 연결되는 ‘연계형 사회자본’, 다른 집단과 분리하여 집단 구성원에게 배타적 소속감을 부여하는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한다.
- 완주군에서 살펴본 문화공동체들은 외부지향적이고 다른 공동체와 협력을 희망하고 실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문화 영역을 벗어나 다양한 영역 간 융복합을 시도하였다. 공통된 지역사회 이슈와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누구와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 전체에 연계형 사회자본을 확산하여 사회통합적 효과를 불러오는 기반이 될 가능성이 컸다.

■ 문화적 사회혁신과정 분석 : 장애인공동체 ‘아리아리’ 사례⁸⁾

- 정신장애인공동체 ‘아리아리’는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정신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이다. 이 공동체는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관련 문화공동체 지원사업인 ‘메이드 인 00’에 참여하였다. 처음에는 공동체가 아니었으나, 정신장애인에게 사진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공동체로 성장하였다. 처음에 사진예술 교육으로 출발하였으나, 2021년 말 현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정신장애인공동체로 발돋움하였다. 아리아리가 대표적 정신장애인공동체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문화도시 사업지원과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문화적 사회혁신 효과가 있다.

8) 여기에 소개한 아리아리 사례는 장세길·육수현(2021) 연구를 활용하였고, 일부 내용은 발췌 및 전재(轉載)하였다.

[표 3-3] 문화공동체 아리아리의 문화 활동 사업 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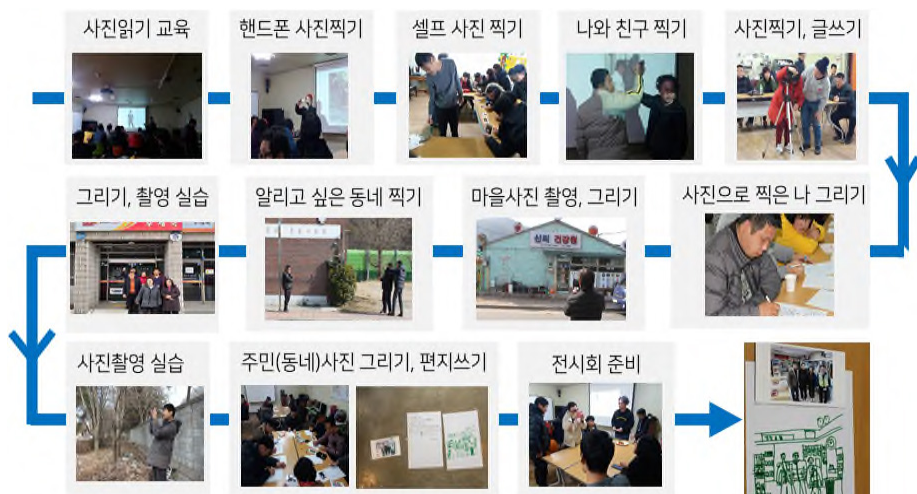
날짜	내용
2018.12.01.	“2018년 자기주도 문화사업 (메이드 인 00) 사업 선정”
2019.01.02.	“지역사회공동체 ‘아리아리’ 결성”
2019.02.01.	“아리아리 사진동아리 활동 및 교육 시작”
2019.04.16~17	“아리아리 사진동아리 전시회 개최 (상관면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2019.04.23.	“아리아리 공동체 비영리단체 등록”
2019. 05	“2019년 드림워드 우리마을 LEVEL UP 프로젝트 선정”
2019. 07	“완주문화도시추진단 지원사업 선정 ‘정신장애인 일상을 살다’”
2019.11.27~29	“〈장신장애인 일상을 살다〉 전시회 개최 (완주복합문화공간 누에)”
2020.02	“드림워드 우리마을 LEVEL UP 프로젝트 선정: 사진집 발간”

- 공동체 대표(간호사)는 “기존 사회복지교육이 딱딱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되어 정신장애인이 교육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일이 많다. 정신장애인이 사진을 접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문화 분야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예술 향유를 넘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업목적이 바뀌었다.
- 아리아리가 겪는 사회문제는 정신장애인시설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것이었다. 아리아리는 사진교육과 전시라는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아리아리는 찍는 주체와 찍히는 대상이 있는 사진을 활용하여 정신장애인에게 예술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바꾸려고 하였다.

“(사업을 통해) 약간의 갭을 줄여보고 싶었다. 그래서 사진이나 미디어를 선택한 것이다. 편견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괴이할 거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이들이) 찍은 사진만 봐도 꽃 좋아하고 들пан 좋아하고 산 좋아하고, 생각하는 게 똑같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무슨 괴물이나 공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비정신장애자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공동체 대표 인터뷰)

- 혁신적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진작가를 섭외하여 강사로 활용한 덕에 전체 교육은 단순히 사진 촬영기술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았다. 교육과정은 사진 찍는 기능 교육부터 최종적으로 전시회, 사진을 활용한 굿즈(goods) 제작으로 이어졌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에는 자기 얼굴을 핸드폰으로 찍었다. 다음으로 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찍으면서 동료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을 배우는 일반적인 교육과 다른 점은 사진을 보면서 그림으로 그리고, 사진을 보며 느끼는 감정을 글로 썼다. 이러한 과정은 사진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사물을 예술적으로 바라보는 감정, 즉 문화적 감수성을 정신장애인에게 길러주었다.
- 아리아리 구성원들은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과정을 거친 뒤에 밖으로 나갔다. 평소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쳐온 거리와 가게 등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도 문화적 효과인 문화적 감수성이 확장되었다. 그런데 정신장애인이 생활 속 주민(사회복지법인 주변 상인, 우체국 직원 등)과 함께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문화예술교육인 문화적 효과를 넘어 사회적 효과가 나타났다.

[그림 3-1] 문화공동체 아리아리의 사진교육과 활동 과정



“정신장애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편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 낙인’이다. 자기를 편견 속에 쌓아서 헤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도 저도 못 해’라면서 자기 스스로 낙인을 가지고 자기를 찍어누른다. 거기서 벗어나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 못 벗어나고 ‘나는 못 해’를 반복하니까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활동만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네’, ‘내 작품이 전시회에 걸렸네’, ‘사람들이 내 것을 보네’라는 생각과 함께 ‘자기 낙인’에서 한번 나오고 두 번 나오게 된다. 그러다가 본인이 먼저 다가오게 된 것이다.”(공동체 대표 인터뷰)

-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낙인화하며, 타인으로부터 고립되어 위축된 삶을 살기도 한다”(현명선·김영희·강희선·남경아, 2012: 227). 정신장애인이 사진 교육사업에 한 번 참여했다고 해서 정신장애인이 겪는 낙인(stigma)을 벗고 당당하게 사회에 나설 수 있는 건 아니다.
- 하지만 사진이라는 예술을 매개로 주위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림을 그리며 글을 쓰고, 자기가 사진으로 바라본 예술적 풍경이 전시관에 걸리는 현장을 경험하면서 아리아리 구성원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마음은 “사회활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행동, 예를 들어 “스스로 주변 사람에게 말을 한 번 더 붙여보려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정신장애인이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려는 행동을 보였다.
-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술 교육이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시설이 겪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점이 아리아리를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로 바라보게 한다. 아리아리는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에 있다. 이들은 이곳에서 생활한 지 오래지만, 주변 주민이 정신장애인과 법인(시설)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지만은 않다. 이 시설에는 조현병 등과 같은 정신장애인이 보호받고 교육받기 때문이다. 공동체 대표는 구성원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시설 주변 주민과 만남을 늘리고, 접촉을 확대하는 계기로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바뀌기를 바랐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사진) 찍으러 다닌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항상 자기 얼굴이나 옆에 있는 다른 정신질환자를 찍는 것만을 생각했다. ... 사진을 찍으려면

처음에는 찍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을 교육했다. 동의를 얻으려면 상대방에게 말을 걸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 사진을 찍게 허락을 해주세요’라고 말을 걸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사진을 찍을 때 어색하니까 찍는 사람이나 찍히는 사람이나 서로 웃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어색하면서도 재미있는 감정이 생겼던 것 같다.”(공동체 대표 인터뷰)

- 공동체 대표가 생각한 대로 정신장애인이 사진을 찍으며 주민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정신장애인과 시설을 바라보는 주민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었다. 주민은 정신장애인과 사진을 찍히는 과정에서 이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자기 사진과 글이 담긴 전시회를 방문하였고, 전시장 작품 옆에 “나는 악이 없습니다”라는 정신장애인의 글을 보면서 사업에 간접적으로 함께 한 주민들은 정신장애인을 달리 바라봤다. 전시회가 열리던 때에 조현병 환자의 방화 살인 사건으로⁹⁾ 전국이 떠들썩했는데도 전시회를 방문하였던 주민들은 오히려 정신장애인과 시설관계자를 걱정하고 위로하였다.
- 아리아리 활동은 지역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효과를 넘어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도 하였다. 장애인 취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정신장애인은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이 많다. 이른바 손발이 멀쩡함에도 정신장애인은 갑자기 어떤 이상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어 취업의 문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어쩌면 정신장애인이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장애인 스스로 경제적 활동을 하도록 자립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 정신장애인이 찍은 사진으로 작품집을 만들고, 사진과 글을 활용하여 머그컵을 제작·판매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신장애인 스스로 문화 활동을 통해 얻은 경제적 가치실현이다. 이 사업으로 경제적 자립이 실현된 것은 당연히 아니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실현을 경험한 아리아리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 사진 활동에 이어, 2020년에는 천연염색을 배워 보조강사로 참여하고, 문화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재미있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구상했던 것이 이제는 공동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9)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로 5명을 죽이고 17명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을 말한다”(장세길·육수현, 2021).

○ 끝으로 아리아리 활동은 정치적 가치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역 내 정신장애인이 연대하여 정치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리아리가 중장기적으로 구상하는 계획 중의 하나이다.

[그림 3-2] 매드프라이드(Mad Pride)



○ 아리아리는 전라북도에서 정신장애인가동체가 많이 만들어지길 희망하며, 이를 위한 기반이 되고자 하였다. 정신장애인과 정신과 의사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매드프라이드(Mad Pride) 축제처럼, 지역 내 정신장애인가동체가 연대하여 축제를 개최하는 게 아리아리의 희망 사항이었다. 지역에서 정신장애인의 목소리, 즉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다양성을 표현하려는 정치적 활동을 꿈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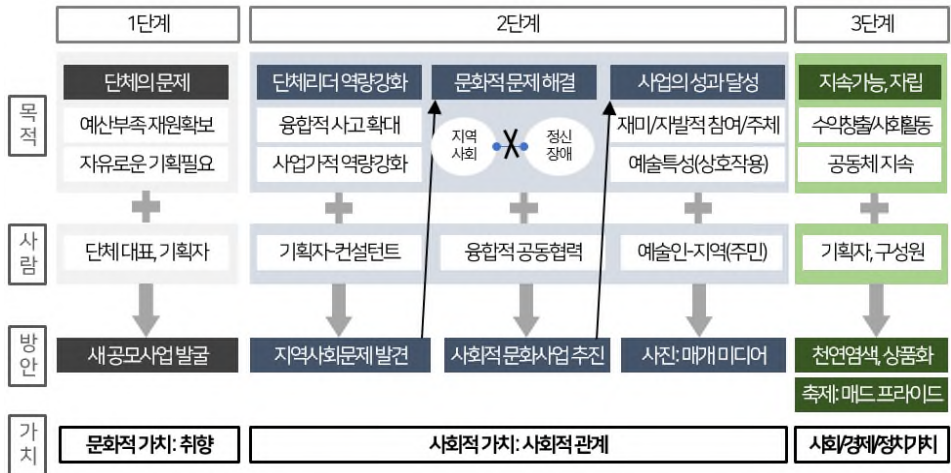
[그림 3-3] 아리아리 주도의 랜선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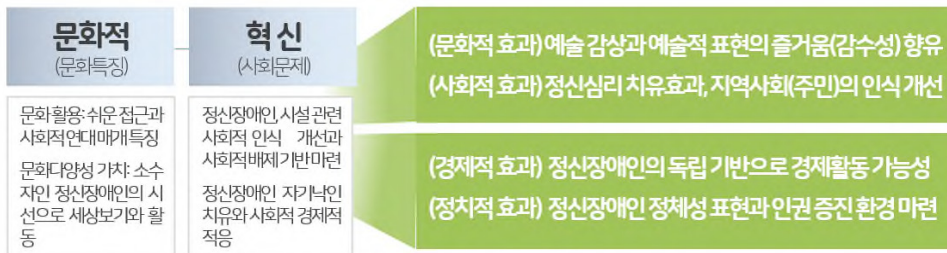
○ 아리아리의 이러한 꿈은 2021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하나로 지원을 받아 실현되었다. 매드프라이드 축제처럼 침대를 밀며 거리를 행진하지는 않았으나, 정신장애인이 주축이 되어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축제 〈함께:문화로〉를 만들었다. 10개의 전라북도 정신장애인시설에서 200여 명이 랜선으로 함께 한 이 축제는 ‘전북형 매드프라이드’로서 발전 가능성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새로이 하는 정치적 가치실현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처럼 아리아리는 정신장애인에게 문화(사진) 향유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문화적 사회혁신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이 예술을 즐기는 효과뿐 아니라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고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정신장애인 스스로 자립하는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정신장애인의 정체성을 사회에 알리는 정치적 효과까지 나타났다. 아리아리 사례는 문화적 사회혁신을 목표로 문화 활동이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효과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림 3-4] 아리아리 활동의 단계별 변화와 가치 창출 과정



[그림 3-5] 문화적 사회혁신으로서 아리아리 활동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효과



2. 문화적 환경위기 대응

1) 필요성과 개념 검토

■ 환경위기와 문화적 대응의 필요성

- 울리히 벡(Beck)이 말하는 위험사회는 과학 기술이 중요한 요인이다. 과학 기술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한편으로 환경 문제나 새로운 위험을 만들었다. 위험사회에서는 과학으로도 위험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지의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지구적 문제가 되었다.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도 환경 문제가 중요한 주제이다. 모두 17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 가운데 환경과 관련한 목표는 6, 7, 13, 14, 15 등 5개이다. 또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 이어 2021년에는 UN 기후 변화 협약 COP26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모든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생존의 문제이다. 환경과 과학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탄소를 절감하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 기후 위기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문화’가 중요해지는데, 그 이유는 우선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Zalasiewicz, 2008) 담론과 관련된다. 인류세는 인간이 만든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를 의미하는데, 기대와 희망이 아니라 파괴를 의미한다(조철기, 2019). 인류세 논의는 사회, 정치, 경제, 인문 분야에서도 지배적인 담론이 되었고, 전통적인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의 관점을 넘어 인간의 자기 성찰적인 관점으로 나아간다.
- 인류세 담론에서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의 퇴출을 말한다. 지구에서 공존하는 생물, 광물, 식물 등 비인간적인 존재가 인간과 같은 주체성을 가지며, 그러한 인식에서 인간과 비인간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게 인류세 담론의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세계에서 “아티스트라는 주체에게 주어지는 것은 비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외교관=번역자로서의 입장이다”(류지영, 2019: 75). 이는 인간의 탈중심화 속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새로운 관계성을 발견하고 확산하는 해석자이자,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의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선제적으로 보여주어 인간중심주의를 성찰하게 하는 친환경적 삶의 동인(動因)으로서 역할을 말한다.

-
- 인간 활동으로 지구적 환경 위기가 만들어졌으므로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 역시 인간의 활동, 삶의 방식(way of life)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과학자, 환경운동가 등이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데 과학적 기술적 조치만이 아니라 문화적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이래서다. 물론 문화 분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에서도 탄소가 배출되기에 환경 이슈는 환경적 삶의 방식 전환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탄소 중립적 문화 활동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김화임(2016)은 기후 변화의 문제가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때 자연과학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신과학 및 문화학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y Culture Forum)이 2017년에 발간한 *Culture and Climate Change: Handbook for City Leaders*을 보면 기후 변화는 글로벌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에 뿌리를 둔 제도적인 문제로, 이의 근본 원인은 지속 불가능한 소비, 불평등, 자연과의 단절 속에 갇힌 가치 체계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이며 결국 기후 변화는 문화적 도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지방정부연합(Unifi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은 2017년 발표한 ‘Culture,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나치게 ‘기술’과 ‘기술적 조치’에 의존한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의 신념, 가치 및 행동을 에워싸고 있는 것들(예, 생활방식, 소비행태 등)에 대한 접근, 즉 문화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문서에 따르면 문화는 환경과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은 문화적 실천과 가치, 세계관을 통해 생태계를 변형한다. 이의 결과로 사람과 공동체의 지식, 전통 및 실천 등의 문화적 요인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전략에 통합한다(UCLG, 2017:1)”(노영순·장훈, 2021: 38).

-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친환경적 정책과 실천이 문화 분야에서 활발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예술위원회는 2012년부터 협력 기관 800여 개와 함께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2016년 승인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보면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를 강조한다. 문화 활동도 유형·무형 자원을 다양하게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환경 이슈에 대한 접근이 기술 또는 기술적 조치와 더불어 문화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환경 위기와 관련한 문화적 대응이 필요하다.

■ 문화적 환경위기 대응의 개념과 방향

- 노영순·장훈(2021)은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적 관점에 대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적 관점이란 “문화예술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때 환경보전을 우선 고려하고 기후 변화 등 위해(危害)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또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적 관점과 관련한 정책 방향은 대상(對象)과 동인(動因)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은 친환경적 활동을 해야 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환경 문제에 대한 문화적 접근으로서 사람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하거나 연대하게 만드는 동인이라는 뜻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한 친환경적 관점과 실천은 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고,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제어하여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또한 창작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행위가 전제되므로, 문화예술에 있어서 ‘친환경적 관점’이란 문화예술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때 환경보전을 우선 고려하고 기후 변화 등 위해(危害)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련 행위와 과정을 친환경의 관리 ‘대상’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단편적인 접근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이슈는 인간의 생활방식, 즉 광의적 의미에 문화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환경 이슈의 해결과 친환경성의 확보는 ‘문화’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은 환경 이슈를 보다 쉽게 인지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와 연대를 촉발하는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에 있어 또 다른 친환경적 관점은 환경 이슈에 관한 소통과 해결, 연대의 동인(driver)으로서 문화예술을 인정하고, 문화와 환경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노영순·장훈, 2021: 201).

[표 3-4]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적 관점에 대한 방향 설정

환경 관련 문화예술 의미	친환경 관점
대상(對象)으로서 문화예술	문화예술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때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후변화 등 위해(危害)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
동인(動因)으로서 문화예술	환경이슈에 관한 소통과 해결, 연대의 동인(driver)으로서 문화예술을 인정하고, 문화와 환경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

자료 : 노영순·장훈, 2021: 201

- 노영순·장훈(2021)이 정책 관점에서 친환경 문화분야의 개념과 방향을 고민했다면, 예술계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따른 새로운 예술을 실천한다. 예를 들어, 인류세 담론을 기반으로 포스트 휴먼 시대의 자연과 인간 경계의 불확실성, 디스토피아적 환상과 재난이라는 미래 등을 예술적 소재로 사용하거나,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조하기도 한다.

“인류세 시대에 종래의 인간적 구분인 ‘문화’와 ‘자연’의 관계는 교착화되었고 인간이 비인간적인 모든 것과 새롭게 관계하며 그 관계를 재협상(re-negotiate)하고 있다. ... 부리요는 바우만의 유동성 관점에 의해 현대를 불확실성의 세계로 보며 현대 미술은 다양한 ‘매체들’의 사용을 통하여 일률적인 것으로 범경계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본다 ... 격납고 같은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는 관람객에게 예술로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면서 실재와 현실을 가상 세계와 상상으로 이루어진 허구적 사건과 혼합하면서 제시한다. 가시적인 요소가 중심이자 주변이 된다는 것, 현대미술은 불확실성에 존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형식화한다. 실존인물이나 사건을 가상의 판타지적 세계로 제시하여 범경계성의 세계, 불확실성을 강화시킨다. 그러면 서도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기능적인 모델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술 작업에서의 불확실성은 미디어라는 관점에서 약한 재료의 사용이나 짧은 지속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반영을 위한 토대를 구성하고, 일시적인 형식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지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면서, 미술의 전체적 생산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류지영, 2019: 70-71).

[그림 3-6] Pierre Huyghe:
After A Life Ahead



- 이러한 활동은 미학적 성과와 더불어 환경의 문제를 삶에 각인하는 중요한 동인으로서 작용한다. 그런데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보여주고, 탈인간중심주의를 실천한다고 해서 환경문제가 직접 해결되는 건 아니다. 여전히 예술은 기후 위기, 환경 파괴라는 재난 앞에서 간접적인 실천에 머물러 있다.
-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 등 생태적 혼란에서 음악의 방향을 고민한 손민정(2021) 연구도 환경 이슈가 새로운 예술로 이어지는 현상을 설명한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음악생태학은 예술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을 포괄한다. 그에 따르면, 2010년부

터 독자적인 분야로 발전한 음악생태학은 “소리와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 간 순환적인 연결성을 근거”로 새로운 예술 분야로 자리를 잡았고, 생태비평적인 역할, 이른바 친환경적 실천으로 발전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음을 음악으로 바꾸는 생태음악 활동은 위기와 재난으로서 환경을 예술적 소재로 활용하거나 그 경계를 허무는 예술 행위이면서, 동시에 환경 문제를 음악으로 해결하는 실천적 의미를 함께 갖는다.

- 미메리 오브리엔과 다니엘 맥코믹의 ‘강 숲 보호 프로젝트’ 같은 활동은 생태음악보다 한발 더 나아가 환경 문제 해소를 예술 활동의 목표로 설정한다(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한다). 이들은 환경적 활동의 동인이나 대상으로서 예술이 아니라 예술로 환경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실천이자 환경 문제해결의 방법으로서 예술을 활용한다. 이러한 관점은 노영순·장훈(2021)이 정리한 대상과 동인으로서 문화예술보다 환경 문제에 있어 더 실천적이다.
- 흔히 환경 이슈에서 문화의 역할은 두 가지로 이야기된다. 인간중심적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에 대한 ‘번역자로서 문화’, 친환경적 삶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동인으로서 문화’가 그것이다. 두 관점 모두 환경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 번역자이자 동인으로서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말한다. 하지만 생태음악이나 ‘강 숲 보호 프로젝트’처럼 환경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예술이 실천되는 예가 적지 않다.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노영순·장훈(2021)이 말한 대상과 동인으로서 문화라는 기능에, 환경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방안(方案)이라는 기능을 더하고자 한다. 이는 번역자로서 문화, 인식 전환의 동인으로서 문화와 함께 환경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실천으로서 문화를 의미한다.

[표 3-5] 문화적 환경 위기 대응의 방향

방향 구분	친환경 관점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方案)으로서 문화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발견하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친환경 활동의 대상(對象)으로서 문화	문화예술 관련 모든 행위 시 환경보전을 우선 고려하고 기후변화 등 위해(危害)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
친환경 생활의 동인(動因)으로서 문화	환경이슈 관련 소통과 해결, 연대의 동인(driver)으로서 문화예술을 인정하고, 문화와 환경의 통합에 노력하는 것

2) 문화적 환경위기 대응 사례

■ (방안) 미메리 오브리엔과 다니엘 맥코믹의 ‘강 숲 보호 프로젝트’¹⁰⁾

- 다니엘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창조 대학(college of Creative Studies)에서 교육받았으며, UC버클리(Berkeley)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메리 오브리엔은 마르케트(Marquette)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같은 대학교에서 스튜디오아트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들은 예술로 파괴된 환경에 긍정적인 생태학적 균형을 되돌리려 노력하였고, 주로 자연 치유에 도움이 되는 환경 예술 설치 작품을 만들었다.
- 1990년대 초반, 캘리포니아 출신 예술가 다니엘 맥코믹은 환경 훼손을 목격하고 기록하는 것을 넘어 생태학적으로 개입하는 예술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생태학적 복원에 심미적 요소를 더하기 시작하였다. 메리 오브리엔이 다니엘의 친환경 예술 활동에 합류한 뒤, 이들은 환경적 복원이 필요해 보이는 장소에 경계 조각품(Watershed Sculpture)을 설치하였다.
- 메리와 다니엘은 강가나 습지대와 같은 공공장소 혹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조각품을 설치하였다. 네바다주 강의 상습적인 범람을 막으려는 설치 미술품, 강가에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 설치류로부터 자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나무를 엮어 만든 작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작품은 도시 영향을 받아 오염되었던 생태계와 해안가 경계선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줬다.
- 메리와 다니엘은 약 30년 동안 예술적 파트너로 협업하였다. 그들은 자연환경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업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때조차도 자연에서 나는 재료를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버드나무 혹은 다른 종의 나무를 재료로 활용하여 거대한 바구니를 만들어 해안가 혹은 숲속에 설치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조각품은 토사물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장치, 침식 방지 장치, 어류 서식지, 혹은 다른 생태학적 도움을 주다가, 서서히 사라진 후 결국 땅이나 물의 일부가 되었다.

10) Artsy(url.kr/pu9yt5)와 A Studio in the Wood 홈페이지(www.astudiointhewoods.org) 내용을 참조하였다.

-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활용한 작품으로 2014년 버드나무로 제작한 ‘범람 방지 벽(River Fork Ranch Flood Plain)’이 유명하다. 이 프로젝트에는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으며, 자연에서 얻은 버드나무 가지를 묶어 ‘윌로우 와틀(willow wattles)’을 제작하였고, 이를 360피트(약 110미터) 길이의 말뚝으로 만든 골조에 설치하였다. 구불구불한 모양을 한 이 장엄한 조각품은 토양을 고정하였고, 침식을 방지함으로써 수질을 향상시켰다.
- 이 작품은 메리와 다니엘이 ‘네바다 리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제작한 5개 작품 중 하나로, 철저히 네바다 세 개 지역에서 찾은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한 예술 작품으로 유명하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예술 활동이자 예술적 환경 실천으로서 모범 사례로 꼽힌다.
- 이 작품이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에는 친환경적 소재를 활용한 예술 작품이라는 점을 넘어, 범람하는 강을 방지하는 예술적 환경 문제 해소방안으로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더 크다. 두 예술가는 환경 및 과학 분야 전문가와 협의하여 강이 범람하고 주변 도시로 인해 발생한 생태계 훼손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이를 예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구상하여 예술작품이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실현하였다.

[그림 3-7] 네바다 분수령을 휘감은 버드나무 벽(River Fork Ranch Flood Plain Wall)



자료 : 구글 이미지

[그림 3-8] 메리와 다니엘 작업하는 모습



[그림 3-9] 파트너사와 작업하는 모습



[그림 3-10] 마리와 다니엘의 작품



[그림 3-11] 작품명 : 조류 서식지 보호



[그림 3-12] 작품명: 다중서식지 샘플링



자료: 구글 이미지

■ (대상)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극단, 피그푸트(Pigfoot Theatre)¹¹⁾

- 피그푸트는 탄소 중립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극단으로, 영국 런던에 있다. 이 극단은 극단이라는 정체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후 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대비하고, 지구를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 피그푸트는 학교와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저탄소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또한, 2020년 6월 29부터 7월 4일까지 “Lockdown:Green Up”이라는 디지털 환경 극단 축제(Digital environmental theatre festival)를 개최하였다. 축제에서 친환경 극단 관계자들과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등을 공유하였다.
- 탄소중립 극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피그푸트는 첫째, 연극에 쓰이는 모든 소품은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들었다. 예를 들어 콜라 캔으로 망원경을 만들고, 종으로 북극곰 탈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 둘째, 극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 힘든 소품의 경우 주변 지인이나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여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구하지 못한 소품이 있다면, 이베이(eBay), 중고품 가게(charity shop) 등에서 재활용한 물건을 구매하였다. 그리고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생애주기를 고민하였다.
- 셋째, 전기 소비를 줄이려고 낮에 밖에서 공연하는 무대를 일부러 기획하기도 하였다.
- 넷째, 전기가 꼭 필요하면 공연 무대 옆에 전기 생산 자전거를 준비하였다. 연극에 참여한 배우 혹은 관객이 직접 자전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이 전기를 무대 조명에 사용하였다. 탄소 중립적인 공연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관객이 연극에 직접 참여하는 셈이었다.
- 이 외에도 피그푸트는 관객이 작품에 직접 참여해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 댄스파티인 핫인히어(Hot in here)에 23개 국가에서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기후변화로 많은

11) 피그푸트(Pigfoot) 극장 홈페이지(<https://www.pigfoottheatre.com>)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영향을 받은 적도 부근에 있는 국가 국민이 많이 참여하였다.

- 피그푸트는 매달 극단에서 사용한 탄소량을 측정해 그래프로 만들어 자료를 공유하였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 화상회의에 사용한 노트북에 얼마의 에너지가 쓰였는지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 작업을 계획하였다.

[그림 3-13] 피그푸트 극단 홈페이지



[그림 3-14] 학생 대상 워크숍 모습



[그림 3-15] 'How to save a rock' 공연



[그림 3-16] 종이로 만든 북극곰 가면



[그림 3-17] 공연하는 모습



자료: 피크푸트 공식 홈페이지

■ (대상) 지속가능성 지향,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Fringe Festival)¹²⁾

- 프린지 페스티벌은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공연예술 축제이며 플랫폼이다. 규모만큼이나 예술가와 관계자, 관객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축제를 통해 새로운 이슈와 담론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프린지 페스티벌은 환경,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축제를 지향한다.
- 프린지 페스티벌 사무국은 2015년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매년 연차별 탄소 배출 절감 목표를 설정하였고, 연도별 계획된 사업을 실천하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통합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종이 입장권 대신에 디지털 입장권을 사용하였고, 종이 사용을 1/3로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사무국은 공연이나 작업 시 사용한 물품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등 쓰레기를 줄여나갔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직원에게 버스 패스와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63%까지 탄소 배출을 줄였다.

[그림 3-18] 프린지 페스티벌의 탄소 배출 절감 목표와 세부 계획

<i>Quantities are in kg CO2e</i>	2015-2016	% ↑ / ↓	2016-2017	% ↑ / ↓	2017-2018	% ↑ / ↓	2018-2019	% ↑ / ↓	2019-2020	% change since 2015-2016
Electricity	42,937		40,645		35,063		27,128		8,311	
Gas	6,929		4,595		10,354		8,411		5,442	
Water	225		260		257		178		97	
Recycling	145		181		181		160		20	
Landfill waste	2,579		3,550		3,360		2,569		212	
Travel	35,785		28,922		21,636		43,831		18,686	
Total	88,600	-12%	78,154	-9%	70,851	16%	82,277	-60%	32,672	-63%

12) 프린지 페스티벌 홈페이지(www.edfringe.com/learn/sustainability) 내용을 참조하였다.

■ (동인) 페트병 활용, 조각가 베로니카 리히터바(Veronika Richterová)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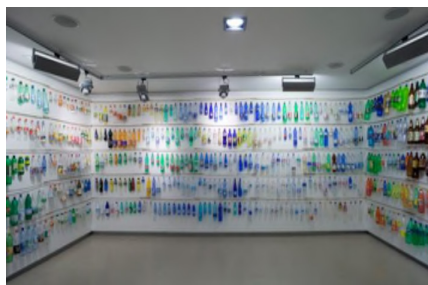
- 2004년부터 조각가 베로니카 리히터바는 페트병을 모아 실험적인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는 이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다. 그의 작업을 보면, 쉽게 변형되는 플라스틱 성질을 활용하여 페트병을 자르거나 가열하거나 구부려 새로운 방식으로 조립함으로써 규모 있는 설치미술과 조명기구 등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작품을 만들었다.
- 리히터바는 그래픽 디자이너인 남편과 협력하여 PET-ART(Plastic Bottle Art) 미술관을 설립하였다. 이 미술관에는 미국, 칠레, 쿠바, 베트남 등을 비롯해 약 76개국에서 수집한 3,000개의 플라스틱병이 전시되었다. 쓰레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예술로 승화시킨 그의 작품은 재활용과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며 세계 곳곳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림 3-19] 업사이클링 아트로 다시 태어난 페트병



[그림 3-20] 페트아트(Pet-art) 미술관

[그림 3-21] 리히터바 전시 포스터



자료: 베로니카 리히터바 홈페이지

13) 베로니카 리히터바의 홈페이지(www.veronikarichterova.com/en) 내용을 참조하였다.

■ (동인)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든 돔, 홍콩의 라이징문(Rising Moon)¹⁴⁾

- 홍콩에서 활동하는 공동 예술&건축 기업 데이드리머 디자인(Daydreamers Design)은 2013년 홍콩 중추절을 맞이하여 약 7,000개의 재활용 생수병과 음료수병, 발광 다이오드(LED) 장치, 컴퓨터를 활용하여 호수 한가운데 거대한 돔을 제작하였다. 돔은 중국 중추절의 상징 중 하나인 ‘만월’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으며, 홍콩 도심에 있는 빅토리아 공원에 전시되었다.
- 라이징문은 멀리서 보면 생수통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진 예술 작품이며, 시시각각 변하는 LED 조명은 라이징문에 생동감과 아름다움을 더하였다. 라이징문은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 그 자체이며, 더 나아가 관객들이 업사이클링의 의미와 환경이라는 주제를 돌아보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3-22] 홍콩 빅토리아파크의 돔



[그림 3-23] LED 활용한 돔의 외형



[그림 3-24] 생수통으로 만든 라이징문



[그림 3-25] 보석처럼 활용된 페트병



자료: 컨템포리스트(Contemporist) 인터넷 기사

14) 컨템포리스트(Contemporist) 기사를 재구성하였다.

<https://www.contemporist.com/rising-moon-by-daydreamers.design>

■ (동인) 하이퍼그래피아 컵 인스톨레이션(Hypergraphia Cup Installation)¹⁵⁾

- 미국인 미술가이자 비주얼 아티스트인 귀네스 리치(Gwyneth Leech)는 버려진 종이컵을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그는 종이컵 위에 그림을 그려 멋진 비주얼 아트를 선보였는데, 2018년 뉴욕의 플라타이언빌딩에 설치된 작품 ‘하이퍼그래피아 컵 인스톨레이션’(Hypergraphia Cup Installation)은 사람들이 쓰고 버린 종이컵 하나하나에 독특한 그림을 그린 휘 건물 쇼윈도 안에 설치한 작품이다.
- 귀네스 리치는 “작품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말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종이컵에도 아름다운 관점이 있고, 이를 통해 무한한 예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이 작품의 목적이다. 쇼윈도에 설치된 수많은 종이컵은 쓰고 버린 한낱 쓰레기였지만, 귀네스 리치의 손을 거치면서 멋진 그림이 새겨진 비주얼 아트로 재탄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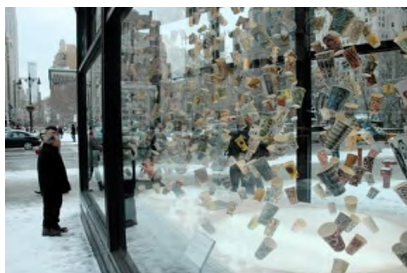
[그림 3-26] 버린 종이컵에 그린 작품



[그림 3-27] 종이컵에 표현된 디자인



[그림 3-28] 하이퍼그래피아 컵
인스톨레이션



[그림 3-29] 귀네스의 감성 종이컵



자료: 구글 이미지

15) 김곡미(2015), “업사이클링 브랜드 사례 조사를 통한 디자인 활성화 전략”을 참조하였다.

■ (동인) 디지털 아티스트 알퍼 도스탈(Alper Dostal)¹⁶⁾

- “한여름 에어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알퍼 도스탈은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뜨거운 전시회(Hot Art Exhibition)’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반 고흐의 작품부터 몽크, 피카소의 작품까지 세기의 명작이 뜨거운 열에 의해 녹아내리는 모습을 3D로 시각화하여 전시하였다. 환경오염과 이상기후로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알퍼 도스탈의 작품은 마치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를 보는 듯하다는 게 관람객의 평가였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소개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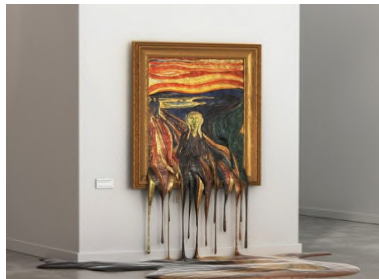
[그림 3-30] 녹아내리는 빈센트
반고흐의 ‘별해는 밤’



[그림 3-31] 녹아내리는 파브로
피카소의 ‘게르니카’



[그림 3-32] 녹아내리는 몽크의
‘절규’



[그림 3-33] 녹아내리는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



자료: 구글 이미지

16) 아르페 365(<http://sv008.cafe24.com/?p=72396>)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였다.

■ (동인) 매연으로 ‘에어잉크(AIR INK)’ 개발: 아니루드 샤마¹⁷⁾

-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아니루드 샤마(Anirudh Sharma)는 아침에 입은 새하얀 셔츠가 오후가 되면서 점점 검게 변하는 모습에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아니루드는 자동차에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환경 훼손 문제를 알리면서 오염물질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그 결과 그래비키 랩스(Graviky Labs)를 설립하여 오랜 시간 연구의 결과로 ‘에어잉크’를 개발하였다.
- 에어잉크는 자동차 배기관 그을음으로 만들었지만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다. 현재 수많은 예술가가 에어잉크로 멋진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그림 3-34] 에어잉크를 개발한 작가
아니루드 샤마



[그림 3-35] 에어잉크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그림 3-36] 그래비키 랩스 에어잉크



[그림 3-37] 에어잉크로 그린 작품들



자료: 구글 이미지

17)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396> 내용을 참조하였다.

■ (동인) 바다를 청소하는 비영리단체 루트 유에스에이(Route USA)¹⁸⁾

- 미국 비영리단체 루트 유에스에이는 세계 해변의 쓰레기를 줄이고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특히 해안가나 모래사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음료 페트병, 빨대 등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이러한 플라스틱이 지구에 얼마나 위험을 가하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 루트 유에스에이는 ‘비치 클린(Beach Clean)’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해변의 쓰레기를 청소하며 플라스틱을 수집하였다. 이렇게 모은 플라스틱은 색, 크기, 모양에 따라 분류하여 예술 작품 활동에 재활용하였다.
-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무료 해양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예를 들어, 루트스쿨데이(Route School Day)에서는 어린이에게 플라스틱 장난감이 바다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바다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미술 작품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림 3-38] 루트유에스에이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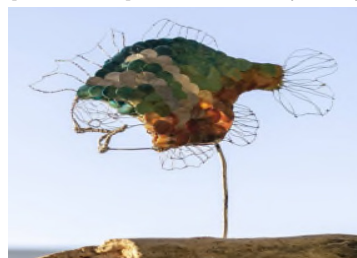
[그림 3-39] 해변가 쓰레기 치우기



[그림 3-40] 루트스쿨데이 수업 모습



[그림 3-41] 알루미늄 작품(물고기)



자료: 구글 이미지

18) 루트 유에스에이의 Facebook(<https://www.facebook.com/routeusa>)을 참조하였다.

■ (동인) 스튜디오인더우즈(A Studio in the Woods)¹⁹⁾

- ‘스튜디오인더우즈’는 루시안 카르미첼과 조 카르미첼 부부의 주택이자 스튜디오를 말한다. 스튜디오인더우즈에서 1969년부터 카르미첼 부부가 미시시피 강변 고요한 숲에 세라믹, 나무, 메탈 소재로 조각품이나 가구를 만들었다.
- 카르미첼 부부는 학생, 예술가, 교육자, 환경운동가 등이 자신들의 공간에 방문하여 자연환경과 창조적인 힘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이러한 지원 활동이 이어진 결과 2001년 예술가, 환경운동가, 다양한 커뮤니티 일원이 힘을 모아 단체를 마련하는데, 이것이 바로 스튜디오인더우즈이다.
- 스튜디오인더우즈이 환경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 대표적인 사업이 포레스티벌(FORESTival)이다. 포레스티벌은 예술과 자연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리이다.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행사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연, 음악, 예술 등을 주제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림 3-42] 포레스티벌(FORESTival) 행사 모습



자료: 스튜디오인더우즈 홈페이지

19) A Studio in the Woods 홈페이지(<https://www.astudiointhewoods.org>) 내용을 참조하였다.

- 2021년 포레스티벌은 11월 13일 오전 11시~오후 5시까지 개최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1년 반 만에 개최된 행사라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제프리 다렌스보로우(Jeffery Darensbourg)와 함께하는 도자기 만들기’, ‘숲길 걷기(Walks in the Woods)’, ‘Che와 함께 땅의 소리를 들어보세요(Listen to the land with ChE)’ 등 예술, 자연을 콘텐츠로 여러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한 프로그램은 보통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 두 번째 사업은 유스 캠프(Youth Camps)이다. 매년 여름 7~11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5년 동안 유스 캠프를 운영하였다.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은 직접 예술 작품을 만드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데, 작품에 사용하는 재료는 자연에서 직접 수집하였다.
- 어린이들은 점토, 페인트, 드로잉, 콜라주, 조각 등과 같은 시각 예술을 통해 숲에서 얻은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기록하였다. 또 글쓰기, 시 쓰기,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문학예술 감성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왔다. 마지막으로 춤과 음악을 활용해 예술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음악이나 춤을 창작하기도 하였다.
- 유스 캠프 프로그램으로 ‘곤충 수집 및 관찰(Collecting and studying insects)’, ‘지역 생태계를 주제로 시 쓰기(Creating poems inspired by local ecology)’, ‘벌레와 개구리를 위한 점토 집짓기(Sculpting clay houses for bugs and frogs)’ 등이 진행되었다.

[그림 3-43] 유스 캠프(Youth Camps)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 모습



자료: 스튜디오인더우즈 홈페이지

3. 문화적 돌봄

1) 필요성과 개념 검토

■ 돌봄의 이해

- 모든 인간은 일정 기간 돌봄의 대상이나 주체로서 시기를 보내야 한다. 돌봄은 “사회적 역량이자 복지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으로, 이는 상호의존성을 인지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우리의 세상을 바로잡고 지속과 유지를 위해 실천하는 모든 활동”으로 돌봄을 정의하는데, 여기서 세상은 “우리의 몸, 자아, 환경, 그리고 복합적이며 생명 유지를 위한 그물망으로 엮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김찬우 외, 2014). 제시된 돌봄 정의에 포함된 의미를 정리하면 관계적 가치 안에서 생명 유지와 삶의 번영을 위해 실천되는 복합적인 보살핌의 행위로서 그 대상은 개인과 공동체, 지구 전체를 포괄하는 실천적 활동이다.
- 트론토(2021)는 사회 구성원 모두 동등하게 대우하며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본질임을 강조하고, 돌봄 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천적 임무임이라고 말한다. 이는 인간이 상호의존적인 존재임을 간과한 채 인종, 민족, 계급적 구분과 성별화된 차이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돌봄이 사실상 공적인 민주주의 실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한다.
- 누구나 돌봄의 수혜자이자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돌봄에 있어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함을 강조하며 친밀한 돌봄 수행의 가치를 실현해야 함을 주장한다(트론토, 2021: 7-8). 이는 돌봄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중요한 가치이며 맥락적이고 복합적인 차원에서의 이해가 필요한 개념임을 상기시킨다.
- 전통적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일로 간주하였던 돌봄이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이다. 당시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기가 모두 돌봄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될 것으로 판단하며 보편적 필요의 문제로서 돌봄을 인식하였다(허라금, 2018: 69).

- 하지만 돌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생산인구의 감소와 경제성장의 둔화,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 해체 등의 위기 대응 전략으로부터 논의되면서 생산성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서 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돌봄 관계를 고민하거나 의미를 확장하지 못한 채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 돌봄에 관한 기존 연구 역시 돌봄자의 경험과 욕구, 희생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Biegel · Blum, 1990; Dally, 1988; Montgomery, 1992; 송다영·김미경, 2003; 이숙현, 1999; 장혜경 외, 2005; 공선희, 2007 재인용) 상호의존적인 관계 안에서 돌봄을 바라보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또 양육과 노인 중심의 돌봄 담론 전개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다양한 집단의 경험적 이해와 가치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이며, 현재까지도 특정 대상 중심의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수립 과정에서도 돌봄 대상자에 대한 다양성을 간과하며 연령주의에 입각한 일괄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 권리로서 돌봄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 관계성이 빠진 돌봄은 서비스나 관리일뿐 진정한 돌봄이 아니므로(허라금, 2018:84) 돌봄은 돌봄 관계로 이해하여야 하며, 가치를 포함하는 실천으로서 돌봄 윤리가 강조되어야 한다(석재은, 2018). 여기서 돌봄 윤리는 “사람들이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같은 돌봄 니즈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특수하고 개별적인 돌봄 니즈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반응(석재은, 2018: 67)”하는 것으로, 타자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관계적인 행위로서 돌봄을 이해하는 것이다.
- 기존 돌봄에 대한 한계는 “신체적, 물리적, 정서적, 감정적이며 윤리적, 도덕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인 돌봄이 그동안 역사적, 사회적 문화현상으로 접근하기보다 어느 한 시점에 필요로 하는 일차원적인 행위로 접근해서 비롯되었다”(Daly, 2002; 김찬우 외 2014 재인용)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돌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 문화적 돌봄의 개념과 필요성

- 돌봄은 포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타인의 실질적인 삶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삶의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권력관계 안에서 돌봄의 행위와 대상이 규정된다. 돌봄 관계 안에서의 주체들이 주변화되는 문제도 있다. 트론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돌봄의 실천 단계를 제안한다.

[표 3-6] 좋은 돌봄의 단계와 도덕적 기준

구분	내용	도덕 기준
관심돌봄(caring about)	돌봄 욕구에 대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필요를 감지	민감성
안심돌봄(caring for)	이행 책임의 규칙을 개인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사회화를 강조	책임성
돌봄제공(care-giving)	실질적인 돌봄-제공활동 수행	제공 능력
돌봄수혜(care-receiving)	돌봄 수혜대상이 제공된 돌봄에 대해 반응하고 평가	감응성
함께돌봄(caring with)	충족되는 돌봄 필요와 방식이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 평등, 자유에 대한 민주적 기여와 일치	연대성

자료: 조안 C.트론토(2021), 『돌봄민주주의』 93~94쪽

- 트론토에 따르면, 돌봄은 대상자의 돌봄 욕구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며(대상자 중심) 그 책임에 대한 자격 분배는 개인이 아닌 사회로부터 발생하고(권력에 따른 차등적 분배 지양), 실질적인 돌봄의 제공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돌봄 관계 중시). 이는 우리 모두 돌봄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돌봄의 욕구와 필요가 삼자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닌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공선에 대한 연대적 행위임을 의미한다.
- 트론토(2021)는 돌봄을 실천하려면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이며 개인의 다양한 생활세계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개인을 맥락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즉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실천하는 문화적 돌봄이 필요함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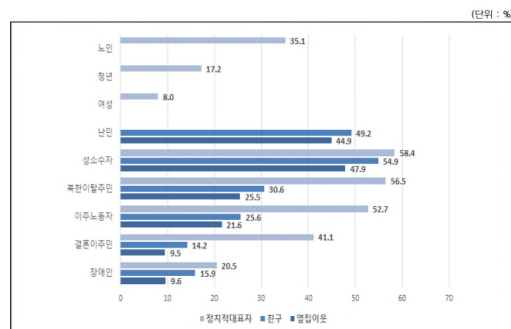
- 문화적 돌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간호학 내에서 라이닝거(Leininger)가 제시한 문화 돌봄을 제외하고는 이론적인 논의가 없다. 하지만 문화 돌봄에서 다양성 가치를 중심하는 경향은 문화적 돌봄과 비슷하다. 라이닝거(Leininger)는 “모든 문화는 다양하거나 유사한 문화의 사람들을 돌보는데 발견되고 이해되며 돌봄과 치유에 대한 구체적인 신념과 가치, 패턴이 있다”라고 말한다. 이는 다양한 생활세계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에 따라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돌봄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돌봄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문화 맥락 안에서 파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남미순, 2018: 261). 다만 문화 돌봄의 다양성 가치는 간호적 행위 안에서 다문화인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된 개념임이다.
- 반면, 문화적 돌봄은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 차이에 주안점을 두며, 돌봄민주주의의 실천으로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집단 문화에 대해 대상자 측면에서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연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행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돌봄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 광의의 개념에서는 문화가 돌봄 ‘대상’으로서 위치하며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적 행위로부터 (개인과 집단의 형성된) 문화를 돌보며 유지와 회복을 위해 실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 동등하게 기본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천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 협의의 측면에서는 문화를 통한 삶의 질적 수준 제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 제공을 의미한다. 이는 ‘방법’으로서 문화적 돌봄을 강조하는 것으로 문화를 통해 계층별 차이에 따라 맥락화된 문화적 돌봄 수행을 말한다.

[표 3-7] 문화적 돌봄의 조작적 정의

구분	내용
돌봄의 “대상”으로서 문화 (광의의 개념)	• 돌봄윤리 실천 • 돌봄대상의 문화를 돌봄 • 문화다양성 가치 기반 돌봄 대상의 유지와 회복 중시
돌봄의 “방법”으로서 문화 (협의의 개념)	• 문화의 수단화 • 문화예술향유 중심 • 계층별 문화에 따라 차별화된 문화적 돌봄 제공(맥락화)

단을 선택하게 했는데, 6개의 집단(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난민) 중 성소수자 집단이 모든 항목에서 거리감이 가장 크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 표현, 인적 구성의 변화에 따른 다원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다양성에 대한 인식만큼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림 3-45] 소수자 집단에 사회적 거리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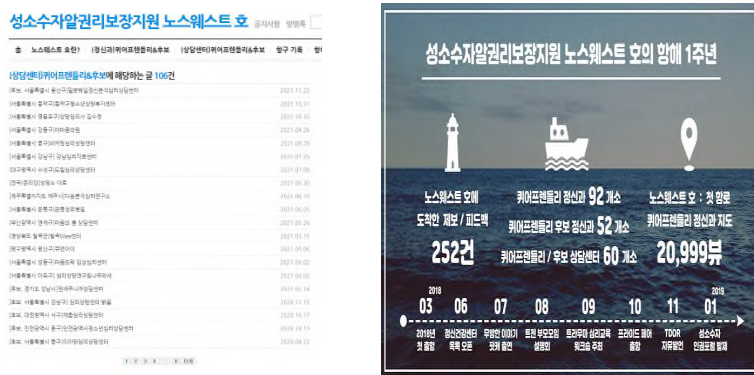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0),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 60쪽

- 소수자들은 주류집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타자화되어 비가시화된 인간으로 취급받게 되거나, 혹은 소수자들이 집단화되면 사회의 위협요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이들의 문화적 행위와 사회적 참여는 차별과 배제를 받는다. 이러한 차별적 행위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유지하는 데 우선하여 필요한 건강권마저 침해한다.
- LGBTQ에²¹⁾ 해당하는 성소수자는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집단이다. 사회적 폭력과 차별에 더 자주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료의 접근이 매우 낮고 정체성에 대한 물이해적인 환경 속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두려워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위험한 행동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개인들이 모여 자신과 공통 집단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연대하기도 한다.

21) 여성 동성애를 말하는 레즈비언(Lesbian), 남성 동성애를 말하는 게이(Gay), 성적 매력을 남녀 모두에게서 느끼는 바이섹슈얼(Bisexual),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다른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뜻하는 LGBTQ에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퀘스처닝(Questioning)과 성소수자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인 퀴어(Queer)의 Q를 더하였다.

- ‘성소수자 알권리 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에서는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신과 또는 상담센터의 정보를 공유하며 친화적인 의료 환경 속에서 건강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퀴어 프렌들리 병원·상담센터로 등재되는 기준은 자신들의 성적지향과 정체성을 밝힌 뒤에도 진료나 상담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내담자의 성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을 부정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병원 목록은 방문한 경험자들의 후기를 통해 작성되며 홈페이지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게재되며, 피드백을 통해 차별적 행위가 드러나는 병원으로 드러나면 목록에서 삭제·수정된다.

[그림 3-46] 성소수자 알권리 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정보공유 홈페이지



자료: <https://theshipnorthwest.tisto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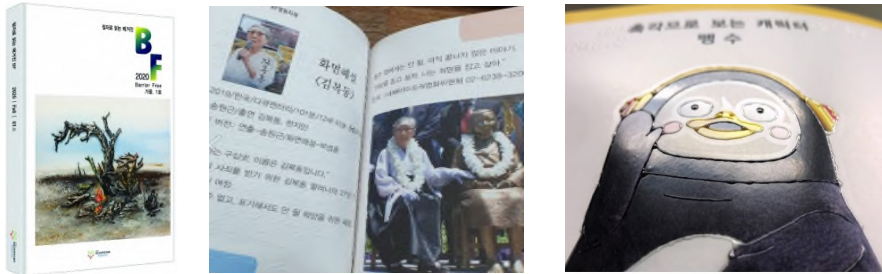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에서 국내 의과대학 최초로 성소수자 관련 의료 수업을 개설하였다. 관련 수업에서는 성소수자 대상의 전문적 의료행위를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성소수자의 진료를 일반환자와 동등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문화적 이해와 소양을 갖추는 것을 수업 목표로 삼았다. 선택교과로 진행되는 수업이지만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무지개 스티커 붙이기, 차별적인 언사 하지 않기 등의 사소한 실천만으로 이들의 의료적 문턱을 낮출 수 있으며, 성소수자 친화적 의료 시설을 방문하여 향후 의료행위자로서 이들을 어떻게 환대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 의료 현장에서는 성적지향에 따라 나타나는 위화감을 극복하고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도록 전문적인 의학적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젠더클리닉(고대안암)이 개소되었다. 이 클리닉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의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곳에서는 의학적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급 종합병원의 젠더 클리닉 개소는 다른 종합 병원들의 의료 지원 방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외연이 확장되면 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과 성소수자 관련 정책 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방법)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시각장애인 문화예술잡지 「BF」) 청송교육문화진흥회(한국점자도서관)에서는 2020년 국내 최초 점자로 읽는 잡지(목점자혼용)를 창간하였다. 문체부의 ‘시각장애 문화예술 정보 콘텐츠 제작 기획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이 잡지는 촉각인쇄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소식과 정보를 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가 목적이다.
- 잡지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도록 시각장애예술인 소개와 촉각 그림과 문자 해설, 화면해설 영화 정보를 제공한다. 잡지의 첫 장에는 ‘BF 갤러리’ 코너가 마련되어 촉각으로 보는 캐릭터를 소개한다. 창간호에서는 캐릭터 펍수가 그 다음 호에서는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을 촉각 인쇄하여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손끝으로 캐릭터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들며 호응을 얻었다. 일상에서 자주 이야기되며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으며,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그림 3-47] 점자 매거진 BF



자료: 한국점자도서관 페이스북

- (배리어프리(가치 봄)영화) 배리어프리영화는 시·청각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영화 문화를 향유하는데 있어 제약이 없도록 기존 영화 화면에 음성해설과 배리어프리자막(화자의 대사, 음악, 소리정보 등)을 넣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제작 과정에서 대상자는 노인과 전맹을 기준에 두고 만들며 기존에 상영된 영화를 바탕으로 편집과 색보정, 사운드, 소리균형을 맞추는 믹싱작업 등 재제작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까지 총 90개의 배리어프리영화가 만들어졌으며, 이 중 70개는 공동체상영이 가능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다.

[그림 3-48] 배리어프리 영화



자료: http://barrierfreefilms.or.kr/page_Fwnx71

- 하지만 개봉 이후 작업을 통해 선택되어 만들어지거나 개방형(기기 없이 특정 상영관에서 화면해서 동시 송출)으로 상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 문화를 접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새로운 영화를 바로 볼 수 없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격차를 좁히고자 자막 제공 및 화면해설 제공을 법으로 규정하고 상영관에서 배리어프리 영화 비율을 배정하여 상영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폐쇄형 자막장치를 사용하여 신작 영화를 비장애인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제도적·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림 3-49] 해외 배리어 프리 사례(개방형/폐쇄형)



Ocean's 8 M

Garden City Mt Gravatt

10:00 AM	VMAX	NFT	IR	10:15 AM	GC	IR	NFT	11:30 AM	NFT	CC	IR	AD	12:30 PM	VMAX	BYB	NFT	IR	
12:45 PM	GC	NFT	IR	2:00 PM	CC	IR	NFT	AD	2:00 PM	GC	IR	NFT	3:30 PM	VMAX	NFT	IR		
4:30 PM	NFT	CC	IR	AD	4:30 PM	GC	IR	NFT	7:00 PM	NFT	CC	IR	AD	7:00 PM	GC	NFT	IR	
9:30 PM	NFT	CC	IR	AD														

- 평일 5회 배리어프리 영화 동시 상영(호주)
- 호주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최소 한 개 이상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 필수

* CC(Closed Caption) 자막 지원
AD(Audio Description) 오디오 묘사
IR(Infra-Red Hearing) 청각 장비 지원

자료 : [/blog.naver.com/dori0907/221302367171](http://blog.naver.com/dori0907/221302367171)



Access Glasses
(자막이 흐르는 특수안경)



Captiview
(폐쇄형 자막장치)

자료: www.cowalknews.co.kr/bbs/board.php?bo_table=HB03&wr_id=6679&page=63

■ (방법) 부산문화재단 ‘기억의 집’ 프로젝트

- 고위험군 고령층과 가족을 대상으로 초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돌봄을 문화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시도로 부산에서 2021년 ‘기억의 집’ 프로젝트가 파일럿으로 진행되었다. 덴마크의 ‘기억의집’을 모티브로 실행된 프로젝트에서는 기억을 주제로 음악과 연극, 미술 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 4개를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대응과 긍정적 회복을 도모하는 시도로 평가받았다.

[그림 3-50] 부산문화재단 2021 기억의 집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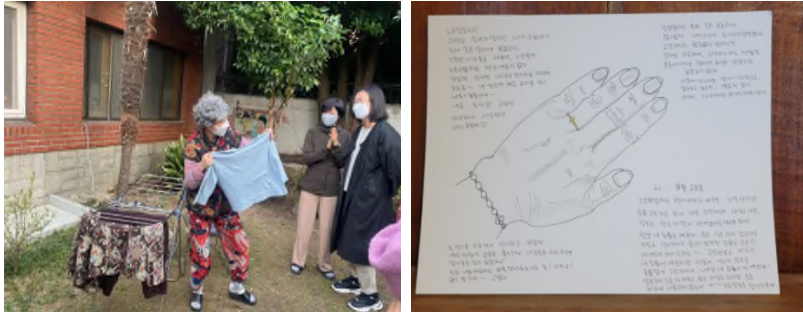


[표 3-8] 부산 ‘기억의 집’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구분	내용
chapter 1. 음악 “슬로우 고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배경 음악이 흐르는 산책로를 걸으며 인생의 기억을 공유하며 예술가와 공감대를 형성, 상영회와 콘서트 실시
chapter 2. 연극 “사라져 버린, 사라져 버릴... 것들에 대하여”	무대와 객석 공간이 아닌 실제 공간에서 진행되는 참여형 연극 프로그램
chapter 3. 미술 “순자씨의 북청화첩”	시각예술과 미술체험을 매개로 어르신과 부양가족의 기억과 회상을 화첩으로 제작 체험하고 전시 실시
chapter 4. 미술 “오늘, 내일, 그리고...어제”	시각미술을 중심으로 나이듦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이 기억을 공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프로그램을 실시 개인이 기억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개념을 ‘담금청’에 비유하여 동화작가와 협업, 향과 맛과 시각의 감각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 공유, 손일기와 그림전시를 진행

자료: 부산문화재단(<http://bscf.or.kr/>) 홈페이지 참고

[그림 3-51] 기억의 집 프로그램 진행 장면



자료: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2020083654748>

[표 3-9] (사례)덴마크 야외민속박물관 기억의 집

“덴마크 오르후스 도시에 위치한 민속촌 <올드타운>에서는 20세기 덴마크의 주거 및 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억의집’ 전시가 진행되었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4년에 시작되었으며 2012년에는 프로그램만을 위한 전용 전시 공간을 개관하기도 하였다. 일종의 역할극 형식으로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은 건물 1층에는 50년대 건물들이 재현되어 있으며 아파트로 들어서면 50년대 옷을 입은 훈련된 전문가가 이들을 맞이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노인들이 생애를 회고했을 때 청소년기~초기 성인기 기억을 가장 많이 한다는 회고 절정이론을 기반으로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노년층들이 청소년기~성인기 시절을 보낸 50년대 환경을 조성하여 다감각적 체험(집안 인테리어, 침실에 놓여져 있는 당시 유행한 디자인의 찻잔과 그릇, 전화번호부, 유행음악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젊은 시절의 기억과 마주하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취지였다. 매일 2회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인근 요양원의 치매노인과 치매 노인을 돌보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함. 후자의 경우 해당도시에서 간호조무사나 헬스케어 관리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은 자신의 젊은 날의 기억을 회고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비슷한 세대의 구성원들과 인생의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며 교감할 수 있게 되었다”(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인용)



자료: <https://arte365.kr/?p=60546>

4. 문화적 치유

1) 문화적 치유의 필요성과 개념 검토

■ 치유의 개념

- 치유 개념은 다양하다. 때로는 치유, 치료, 힐링이 연구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활용되며, 영어 표현에서도 healing, therapy, curing 등 다양하다. 그런데 개념이 다양한 가운데 대체로 전문적 의료행위라는 측면에서 치유와 치료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노은정(2005: 37)은 “치료가 진단·처방이라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와 관련된다면 치유는 단지 환자를 치료하는 물리적 환경의 의미를 넘어서 주변 환경을 치료적인 도구의 하나로서 여기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환자의 스트레스 극복을 도와주고 나아가 질병 치유에 효과적이며 건강 상태가 호전되게 도와주는 환경까지 포함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재인용)라고 설명한다.
- 전문 의료 영역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치유를 법제화한 게 ‘치유농업’(Agro-healing)이다. 관련 부처인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용어 가이드」(2019)에서 치료와 치유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치유를 정책화하고, 치유농업을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적 치유와 관련한 개념 검토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어사전에서 치료와 치유는 모두 “아픈 곳이나 병을 낫게 한 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 영어 표현과 관련해서는 Cure는 치료와 치유로 해석된다. Heal은 치유와 회복으로 해석되는데, 치료보다는 치유, 회복의 의미를 통괄한다. 즉 Cure가 Heal보다 더 구체적으로 치료한다는 뜻을 가진다. Remedy는 치료, 의료, 치료 약을 일컫는 말로, 구체적인 치료법 등을 가리킨다. Therapy는 의학 기술로 치료, 치료요법 등을 의미한다. Treatment는 의술 또는 외과 적용으로 구체적인 치료나 치료법을 말한다. Care는 걱정, 돌봄, 관심, 슬픔, 비판 등의 뜻을 가진다”(농촌진흥청, 2019).
- 농촌진흥청이 국어와 영어 관련 전문가 6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치료와 치유 개념이 다르다는 인식이 많고, 치료가 더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또 치료는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나, 문제가 없는 사람도 필요한 게

치유라고 생각하였다. 치료는 신체적 목적이 크지만, 치유는 심리적 사회적 목적이 크다고 인식하였다. 국어사전과 관련 전문가 인식을 종합하면, 치료는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이해되며, 치유는 질병 관련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는 심리적 사회적 목적에서 필요하며 치료보다 덜 전문적인 영역으로 이해된다.

[표 3-10] 치유농업 관련 주요 용어

용어	주요 설명
치유농업	“농업·농촌자원 또는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이다.”
치유농업 서비스	“농업 농촌자원 또는 산출물을 활용하여 치유농업 종사자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운영 및 자원 관리 서비스와 활동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치유농업 목적	“치유농업 서비스를 통하여 농업·농업자원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이 회복, 유지, 증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치유농업 수용자	“건강의 회복 및 유지, 증진을 위하여 치유농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집단이다. 치유농업 수요자(이용자)는 성별, 연령, 인종, 질병 등에 관계없이 치유농업 서비스의 필요와 요구가 있는 모든 대상이 될 수 있다.”
치유농업 종사자	“치유농업을 통하여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치유농업 운영자(사업자), 치유농업 관리자, 치유농업 활동가로 구분한다.”

자료 ; 농촌진흥청(2019), 「치유농업 용어 가이드」

- 치유를 법률로 제정한 또 다른 예는 「해양치유자원법」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해양치유는 “해양치유자원(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한다(법률 제2조). 법률적으로 정의된 해양치유는 예방적 성격을 갖는 덜 전문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지만, 이 법이 말하는 치유는 치유농업처럼 회복을 뜻하는 Heal에 가깝다.
- 전문 의료 분야 외에서 법률적으로 개념화된 분야는 치유농업과 해양치유이며, 명확하게 치유라는 개념이 법제화되지 않았으나 산림치유라는 개념도 정책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개념을 종합하면, 정책에서 사용되는 치유는 치료보다 덜 전문

적이나, 치료농업에서는 치료와 회복과 예방을 포괄하고 해양치유와 산림치유에서는 직접적 치료보다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이해되거나 전문성의 범위는 분야마다 다를 수 있다.

■ 문화적 치유의 필요성과 방향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개인은 신뢰가 약해진 불안정한 사회에 산다. 끊임없이 변하는 사회에서 수많은 일을 선택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선택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개인이 모두 져야 한다. 개인이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현대인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근거한 미묘한 두려움에 필사적으로 일하고, 경쟁에서 뒤처질지 몰라 더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는 ‘두려움의 노동 윤리’를 지니며 살아간다”(Ciulla, 2001; 이현서, 2014 재인용). 불안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타인과 소통하면서 공감하기보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끊임없는 성과달성에 매달린다. 그래서 한병철(2012)은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 말한다. 과거에는 개인의 위험을 공동체가 보호하는 국가적 공인 장치가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처함 위험을 보호하고 해결해줄 “공인된 처방”(바우만, 2010: 11)이 없다.
- 존재론적 불안 속에서 파편화되고 사회적 신뢰를 잃은 개인에게 현대적 위험을 해소할 토대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인의 정신·심리적 치유가 필요하며, 그래서 정신·심리적 영역과 관련된 문화가 중요하다. 특히 문화는 활동 그 자체에서 본질적 가치로 정신·심리적 문제를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 예술뿐 아니라 생활양식으로서 문화는 소통을 전제한다. 현대적 위험과 관련한 정신·심리적 문제는 타인과 소통하지 못한 존재론적 불안에서 발생하므로 문화의 본질적 특성인 소통은 정신·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 또 현대사회의 위험과 관련하여 개인의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도 중요하나, 집단이 겪는 문제를 해소하는 사회적 치유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위험에서 발생한 정신적 심리적 문제는 개인이 아닌 현대사회의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그 해결방안 역시 사회적이어야 한다. 문화는 구성원 간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다. 즉 문화적 활동은 사회적 활동이며, 문화적 치유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치유를 포함한다.

- 예를 들어, “의료적 행위가 아니라 예술 또는 인문학 등을 활용한 치료는 그 대상이 개인 또는 집단이 될 수 있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치료 대상이 된다. 집단의 트라우마 치료, 역사적 사건에 따른 사회적 병인을 치유하는 데는 역사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역사가 과거에 대한 재현뿐 아니라, 현실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치료 또는 치유 기능을 가진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15-16).
- 문화적 치유는 지금까지 예술치료 또는 예술치유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문화계에서 말하는 예술치유는 하나의 장르로서 인식되지 않았다. 처방이나 진단에 근거한 예술치료처럼 분명한 영역이 아니라, 예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 중 하나로 이해하면서 “예술적 개입과 활동 과정”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연구가 예술‘치료’로서 활동을 검증하거나 효과를 측정하기보다 예술 자체의 과정에 집중하였다. 대다수 연구자는 예술치유와 예술치료 간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통분모가 있다면서 “치료적 맥락과는 다른 지점을 갖는 예술 보편의 활동이라는 지점을 좀 더 강조”(이희인·박신의, 2021: 463)하는 관점을 취하였다.

[표 3-11] 일반적인 예술치유 관점에서 바라본 치료와 치유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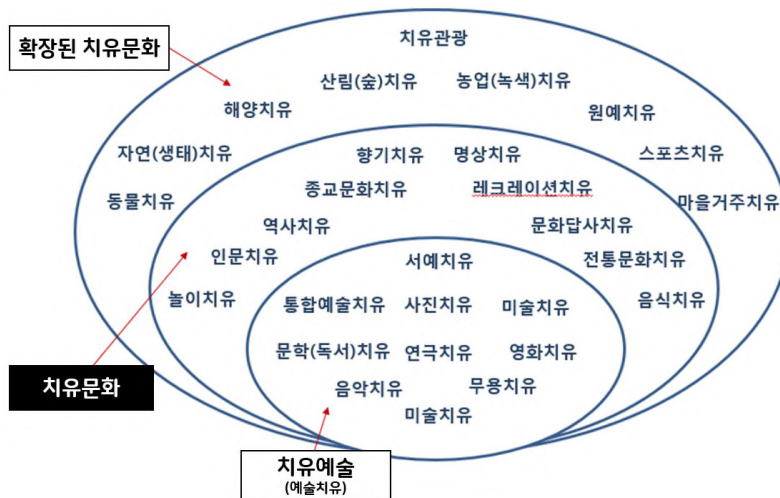
구분	치료(therapy)	치유(healing)
개념	• 병이나 상처를 잘 다스려 낮게 함 • 질병, 장애 또는 문제를 치료, 치유, 완화하려는 계획된 체계적 과정과 활동	• 건강 회복하고, 심리적 안정 제공 •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행동 및 갈등 완화
요소	• 진단(진찰), 처치(개입), 고침	• 예방, 안정, 회복, 치료 후 재발방지
목적	• 외부 개입이 우선 • 회복(질병으로부터의 회복)	• 회복(전인적 상태 회복, 관계 회복) • 자생적 변화 과정
출발점	• 환자의 질병 또는 장애	• 정서, 감정, 심리적 문제 • 사회/환경과의 조화/균형 깨진 상태
관점	• 의료적 처치나 방법 측면: 약복용, 식이요법, 외과수술, 요양을 통한 치료	• 감성적인 부분과 자기 치유력의 의미를 더 많이 내포
접근	• 과학적 성격(객관적 진단, 인과관계)	• 주관적 감정/정서의 활동을 포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27쪽

- 이러한 개념에서는 치유라는 영역에서 문화가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하다. 취향과 관련한 심미적 목적의 활동과 처음부터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과정과 결과가 다르다. 예를 들어, 치유문화는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의 하위범주라면 문화치유는 문화를 활용한 치유 영역의 하위범주에 해당한다. 즉 문화치유는 한방치유, 운동치유처럼 치유 영역의 한 분야를 의미하지만, 치유문화는 연극예술, 대중문화, 독립문화, 생활문화처럼 문화의 한 분야를 의미한다.
- 치유를 실행하는 주체와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다. 치유농업에서는 치유농업사라는 국가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이들을 양성한다. 이들은 농민이 아니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이다. 예술치유에서 실행 주체는 치료 전문가가 아니라 예술가이다.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ACE)도 치료 전문가가 아니라 예술가에 의한 치료적 활동으로 이해한다. 예술치유를 “예술가에 의한 ‘Arts in Health’와 ‘Arts and Health’ 활동을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및 의료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예술 활동임을 강조한다(ACE, 2007: 14; 문화체육관광부, 2016: 14 재인용). 아일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Ireland, ACI)도 치유를 목적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예술 자체가 가지는 심미적 기능을 중요하게 다룬다(ACI, 2010: 4)”(문화체육관광부, 2016: 14 재인용).
- 이러한 이유에서 예술치유는 치유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 치유농업은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측정하면서 치유라는 전문 영역을 구축한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문화적 치유는 치유문화, 즉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의 독자적 영역으로 이해한다.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유형·무형의 활동을 생활문화로 정의하여 독자 영역으로 정책화하였듯이, 치유문화는 개인적이면서 사회적 문제를 문화로 치유하는 하위문화(영역)라고 할 수 있다.
- 예술 활동으로서 문화치유와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치유문화는 “농업생산 중심 치유농업과 치유 중심 치유농업이 영역에 따라 다른 특징”(Hine 외, 2008; 김정미 외, 2013 재인용)을 보이는 예와 같다. “농업생산 중심의 치유농업은 농장주의 주도로 전원의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활동을 통해 치유가 이루어지고, 치유 중심의 치유농업은 외부기관이나 자선단체와 연계된 농장에서 치료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농업과 치유 활동이 진행된다”(김정미 외, 2013: 915).

- 이 연구에서 말하는 치유문화는 치유 중심 치유농업처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적 활동이다. 구체적인 영역을 살펴보면, 기존에 문화 현장에서 진행되는 이른바 예술치유는 미술, 사진, 공연, 음악, 무용과 같은 예술을 활용하는 치유적 활동(교육, 창작, 관람, 체험 등)이다. 치유문화는 더 넓은 개념으로, 예술 분야와 더불어 인문(역사, 철학, 문학 등), 종교문화, 유무형 문화재 등 문화유산, 음식 등 전통생활문화 등까지 포함한다. 고창군(2019)에서는 해양, 생태, 동물, 농업, 스포츠 등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치유문화를 치유예술을 포함하여 전통문화와 정신문화, 인문 등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설정한다.

[그림 3-52] 치유문화의 범위



자료: 고창군(2019), 「고창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치유산업 개발 연구」 내용 재구성

- 치유문화는 치유를 목적으로 하므로, 치유농업에서 실행 주체가 농장주가 아니라 치유농업사(치료사)이듯이 치유문화의 실행 주체는 예술가가 아니라 치유예술가 또는 예술치료사가 되어야 한다. 치유를 목적으로 하려면 실행하는 활동(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제공 등)이 치유 또는 치료적 효과가 나타나야 하고, 객관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문화 활동을 진행하는 사례, 예술의 문화적 치유 사례, 임상시험으로 객관적 치료 효과를 증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원예치료 사례를 살펴본다.

2) 문화적 치유 사례

■ 인지행동 통합예술치료

-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는 개인의 사고가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로 시작된 행동치료와 인지치료를 통합한 심리치료 모델이다. 인지란 인간의 포괄적 인지를 의미하고 인간이 지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체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인지행동치료는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인지라고 여기고 인지를 교정하여 행동을 변화시킨다”(홍지영, 2017: 26-27). 통합인지행동치료는 다양한 심리적 치료기법을 통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 명지병원에 근무하는 정영희(신경과 의사)와 이소영(예술치유센터장)의 연구에 따르면,²²⁾ 알츠하이머 환자(경증~중등)에게 인지치료와 미술치료와 음악치료가 포함된 통합인지치료(2014~2019, 59명)를 운영한 결과 “치료 전보다 일상생활능력, 정서불안, 우울증, 인지기능 장애, 치매 등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화, 요리, 외출 등 일상생활에 대한 문항과 함께 복합적인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일상생활능력평가(S-IADL)는 17.6 ± 7.6 에서 15.7 ± 9.5 로 개선됐다. 정서 불안 정도를 검사하는 단축형 노인성 우울증 검사(S-GDS)에서는 5.6 ± 3.5 에서 4.2 ± 3.0 으로, 인지기능 장애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는 18.7 ± 4.5 에서 19.7 ± 5.0 으로 인지수치가 증가했다”(디멘시아 뉴스, 2021.04.22.)

명지병원의 백세총명 가족교실	
• 명지병원이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단으로 ‘백세총명 가족교실’을 운영한다 • 경도인지장애, 치매환자 가족에게 치매 특강, 스트레스 극복하는 가족치료, 예술치료 등을 제공한다. • 이 교실은 명지병원을 통합적 치매환자 프로그램(노년강인지클리닉-백세총명가족교실-치매극복)으로 진행되며, 특히 전문 의학과 예술치유가 융합하는 다학제적 접근을 한다는 게 특징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예술치유센터, 노인의학센터

자료 : 명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홈페이지(public.mjh.or.kr/senior-family-class)

22) <https://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7>

■ 코로나 우울증 극복 치유문화

-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확산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제약으로 감소되었던 문화활동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치유를 통한 일상 속 활력 찾기를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예술공간 이아’에서 도민 참여 프로그램인 ‘예술로 치유 프로젝트’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응급프로젝트(찾아가는 문화예술 치유활동 지원), 백신프로젝트(예술치유콘텐츠 개발 및 실행 지원), 예술치유컬렉티브 이아로(예술치유 창작활동 지원)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장기간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는 예술가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예술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하는 예술치유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 명지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와 의료진 대상 정신적, 심리적 치유를 위한 ‘코로나 블루 치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발족했다. 실행조직인 환자공감센터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 직원 인식조사와 코로나 확진 환자 대상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자료를 관리하였다. 예술치유센터에서는 코로나 19 격리환자 대상 베드사이드 콘서트와 힐링동영상 제작을 주관하였다. 베드사이드 콘서트는 음악치료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음악 콘서트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이후에는 환자와 의료진, 병원 직원, 음압격리병동 가족 등을 대상으로 무관중 스트리밍 공연을 열어 화상전화와 노트북으로 콘서트를 즐기도록 도왔다.



자료: 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 홈페이지(<http://www.mjcah.com/xenotice/1888532>)

■ 인문학 치유 사례 : 역사리텔링(history-retelling)

- 인문학 치유는 “문학·역사·철학으로 대변되는 인문학을 통해 개인의 정신적·정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을 말하며, 인문학의 고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정신·심리 치료체계와는 다른 치유적 의미를 가진다”(엄찬호, 2010: 423). 인문학 치유는 개인의 정서적 안정감과 더불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치유공동체를 육성하는 방법으로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 인문학 치유의 방법으로서 역사리텔링(history-retelling)은 역사를 창작하고 새롭게 가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찰적 자기 인식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편집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개인의 삶을 회복하고 사회적 건강성의 확보를 돕는 역사치유(healing of history)의 방식으로 역사적 진실 찾기와 더불어 기억 속 트라우마 발화를 통해 고통을 해소하고 개인적·사회적 치유를 돕는 실천”을 말한다(김호연, 2012: 33). 역사적 사건에 의해 직접적인 상흔을 얻었거나 사건 이후 왜곡된 사실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고자 스스로 기억 속 역사적 사건을 구술하게 함으로써 고통을 해소하게 하며 참여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호작용적 치유 방식이다.
- 제주 4·3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4·3이야기 마당, 맺힌 가슴 풀어 살게 마음’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의 트라우마 대상자가 겪어온 생애사나 가족이야기, 마을사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공감을 기반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편안하고 진솔한 증언 환경을 마련하려고 노래공연, 대담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며, 특별한 증언자를 섭외하여 4·3 스토리의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증언된 내용을 바탕으로 증언집을 발간한다.



자료: 4·3 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http://43trauma.or.kr>)

■ 원예치료(horticultural therapy)

- 미국원예치료협회(American horticultural therapy association)는 원예치료를 “원예와 정원 활동에 중점을 둔 처방 과정, 특정 증상을 나타내는 대상자, 평가할 수 있는 목표, 치료 수행 능력이 있는 전문 치료사가 함께 공존하는 활동”(AHTA, 2013)으로 정의한다(송미진, 2013). 원예치료는 오래전부터 증명되어온 치료 분야로, 1806년 스페인의 한 병원에서 정신장애 환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으로 농경과 원예 활동을 강조하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의 몇몇 병원에서도 이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한다(Davis, 1997; Scholz, 2012).
- 한국에선 1997년 한국원예치료연구회가 발족하고 대학과 사회교육원에 원예치료 학위과정이 개설되면서 원예치료 연구와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장애인 관련 기관, 병원, 교육기관 등에서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2000년 이후부터는 장애아동·청소년까지 대상이 포함되었으며, 2006년 이후부터는 다양한 연령대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Korean Horticultural Therapy & Wellveing Association)에서는 원예치료를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다양한 원예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으로 정의하였다(김용현, 2020: 5).
- 원예치료가 국내에 도입된 초창기인 1998년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치료 영역이 절반을 훌쩍 넘었고, 예방 영역과 재활 영역 순으로 연구의 규모가 정해졌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치료 영역보다 예방 영역의 연구가 증가하였다. 이는 자연 친화적인 활동에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김용현, 2020: 80) 원예치료가 본격적인 치료보다 ‘치유’ 요소로 의미가 확대되면서 영향을 받았다. 미국과 유럽에서 원예치료가 신체적, 정서적 재활 효과를 얻는 동시에 직업 훈련의 일종으로 활용되는 등 치료적 관점에서 발달했는데(Davis, 1998), 한국에서 원예치료가 시작된 맥락도 이와 유사하다.
- 근래에는 원예가 주는 가치에 대한 사회원예(social horticulture 또는 community horticulture)의 포괄적 개념과 전문적 치료 영역이 구분되어 활용된다(송미진, 2013: 4). 원예치료를 치료와 재활의 목적만이 아닌 사회문화적으로 활용되는 ‘치유’

의 개념으로 확대해서 활용함을 의미한다. 즉 식물과 원예를 활용한 오락 및 취미 활동, 원예 활동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지역사회(공동체)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는 도시농업 활동, 공동주택 텃밭정원, 지역사회의 정원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최근에는 치유농업(care farming), 에코테라피(eco therapy), 녹색운동(green exercise), 황무지치료(wilderness therapy) 등과 같이 그린케어(green care) 범주에 속하는 대체 치료 방법으로 주목받는다.

- 원예치료의 목적은 치료, 재활, 예방, 사회적 상호작용 등으로 크게 치료와 재활,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구분된다. 먼저, 원예치료는 적합한 식물과 원예 활동을 치료적으로 적용하여 얻는 효과가 목적인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으로서 정서적·신체적 치료와 재활 활동이 목적이다. 둘째,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원예 활동이 활용된다. 최근에 강조되는 목적이 이것이다. 이는 원예치료의 ‘예방’적 영역 이랄 수 있다. 원예치료는 식물을 활용한 다양한 원예 활동을 근간으로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또는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 원예치료 대상은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 향상과 재활 관련 치료 중재가 필요한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 노인, 정신과 환자, 시각장애인, 암환자, AIDS, 발달장애, 재활, 실업자, 불량청소년 등이다. 최근에는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혼합 연령대가 다수 증가하는 등 원예치료 대상자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다(김용현, 2020: 81).
- 치료, 재활, 예방 관련 건강관리 시설 대부분에서 원예치료가 활용된다. 예를 들어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시설, 급성환자 치료 종합병원, 재활병원, 정신의학병원, 아동전문 병원, 신장투석과 정신건강 관련 전문병원, 호스피스의료센터, 요양병원 등에서 원예 치료정원 같은 시설을 운영한다(안제준, 2018: 3). 이밖에 일상생활에서도 원예치료가 활용되는데, 장애시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학교 텃밭정원, 아파트 공동체 텃밭 정원, 교도소, 치유·교육농장, 기업, 개인 정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된다.
- 원예치료에서 주목할 점은 ‘치료’의 작용원리를 연구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임상으로 마련한다는 데 있다. Relf(1990)는 원예치료의 치료체계를 치료자, 대상자,

식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interaction), 활동(activity), 반응(response)이 작용하며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전문적 원예치료가 되려면 4가지 요소인 대상자(client), 치료 목적과 목표(goal and objective), 식물과 원예 활동(plant and horticultural activity), 원예치료사(horticultural therapist)가 있어야 한다(Haller and Kramer, 2006; 송미진, 2013: 5 재인용). 즉, 정서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기능 향상과 재활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치료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치료 내용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내적인 동기부여 과정을 거쳐 의미화를 끌어내 인간, 식물, 환경이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게 하여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도록 해야 진정한 원예치료가 된다는 의미이다.

- 원예치료가 이러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예치료 개념을 도입한 뒤 계속해서 이어져 온 원예치료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있다. 아래 표 3-12는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가 정의하는 치료 효과이다. 치료 방법과 치료에 대한 효과성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비교 방법으로 원예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표 3-12] 원예치료의 효과

인지적 효과	• 관찰력, 계획성, 새로운 기술 습득, 판단력·해결력 증대, 감각과 지각 능력 증가
사회적 효과	• 역할, 책임, 자립정신 고취, 자신의 존재가치 발견, 대인관계 향상
심리·정서적인 효과	• 자신감, 책임감, 자제력 증진, 창의력과 자기표현 개발
신체적 효과	• 대근육과 소근육의 유연성 증가, 균형감각 증대, 야외에서 느끼는 상쾌함
행동수정 효과	• 문제행동 수정, 식습관, 일상생활습관(예, 스마트폰 중독 등) 개선, 주의력결핍 개선
교육적 효과	• 새로운 지식, 창의적 인성 발달, 인내, 자기 확신, 호기심, 상상력 발달

자료: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www.khta.or.kr

- 특히 원예치료에서는 임상시험을 중요하게 다룬다. 원예치료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측정 방법으로 첫째, 설문조사 분석이 활용된다. 설문조사 방법을 통한 효과 검증은 원예치료에 참여한 클라이언트(원예치료 대상자)가 활동하기 전과 활동한 후의 변화를 비교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원예치료 활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을 두어 치료적 효과를 증명한다.

- 두 번째 방법은 생체신호 분석이다. 뇌파 측정(electroencephalography), 근전도 측정(electromyograph), 심전도 측정(electrocardiography), 피부 전기활동(galvanic skin reflex), 심박동 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말초 혈류량 측정(photoplethysmography), 코티졸(cortisol) 측정 등을 통해 원예치료 활동과 실제 치료 효과 사이에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측정한다. 원예 활동이 신체적 치유에 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증명하는 연구로 운동생리학적 측면에서 원예 활동을 통한 에너지 소모량과 운동강도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Park et al., 2008, 2011, 2012, 2013a, 2014), 꽃꽂이 활동이 관절운동에 도움을 주고 근육 활성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Lee et al., 2012), 원예 활동의 동작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이아영, 2017:2 재인용) 등이 있다.

원예치료 임상시험 사례
• 생체신호를 이용한 우울증 환자 대상 원예치료 효과 검증 연구 사례(송미진, 2013) - 원예치료가 우울증상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검증을 위해 참여자들에게 실험 전과 후 동일하게 생체신호인 심박동변이도와 코티졸 수준, 우울증상 설문지 검사 우울 척도와 불안척도를 반복 측정하였다. - 심박동변이도 측정기기를 사용하였으며, 조용한 환경에서 금속성 물체를 제거하고 의자에 앉은 채 센서를 손목과 발목에 부착하여, HRV를 5분간 측정하였다. - 혈중 호르몬 코티졸 수준 측정은 혈청(serum)검체를 사용하였는데, 동일한 시간 사이를 정하여 혈액 4ml를 채취하여 당일 수거 및 분석 의뢰하였다. - 꽃잎을 만지고 작은 화분을 옮기는 정도의 적절한 자극부터, 식물재배, 꽃장식, 토피어리 등 다양한 원예활동은 HRV와 코티졸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흙을 만지고 쉼 등의 활동이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 원예활동의 신체적 치유 효과를 활용하여 만성질환 환자의 신체·심리 재활에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 사례(이아영, 2017) - 원예활동이 신체적 치유에 효과를 보인다는 검증을 위해 보편적인 실외 원예활동인 땅파기, 땅 고르기, 종자파종하기, 모종심기, 잡초뽑기, 수확하기(가까운거리와 먼거리)까지 총 6가지 활동을 선정하였고, 활동방법에 따라 땅파기, 땅고르기, 종자심기, 모종심기, 근거리 잡초뽑기, 원거리 잡초뽑기, 저위치 수확하기, 고위치 수확하기로 다시 8가지 활동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 원예활동 동작의 운동학 및 운동역학적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3차원 동작 분석을 이용하였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A. Raking



B. Digging



C. Sowing see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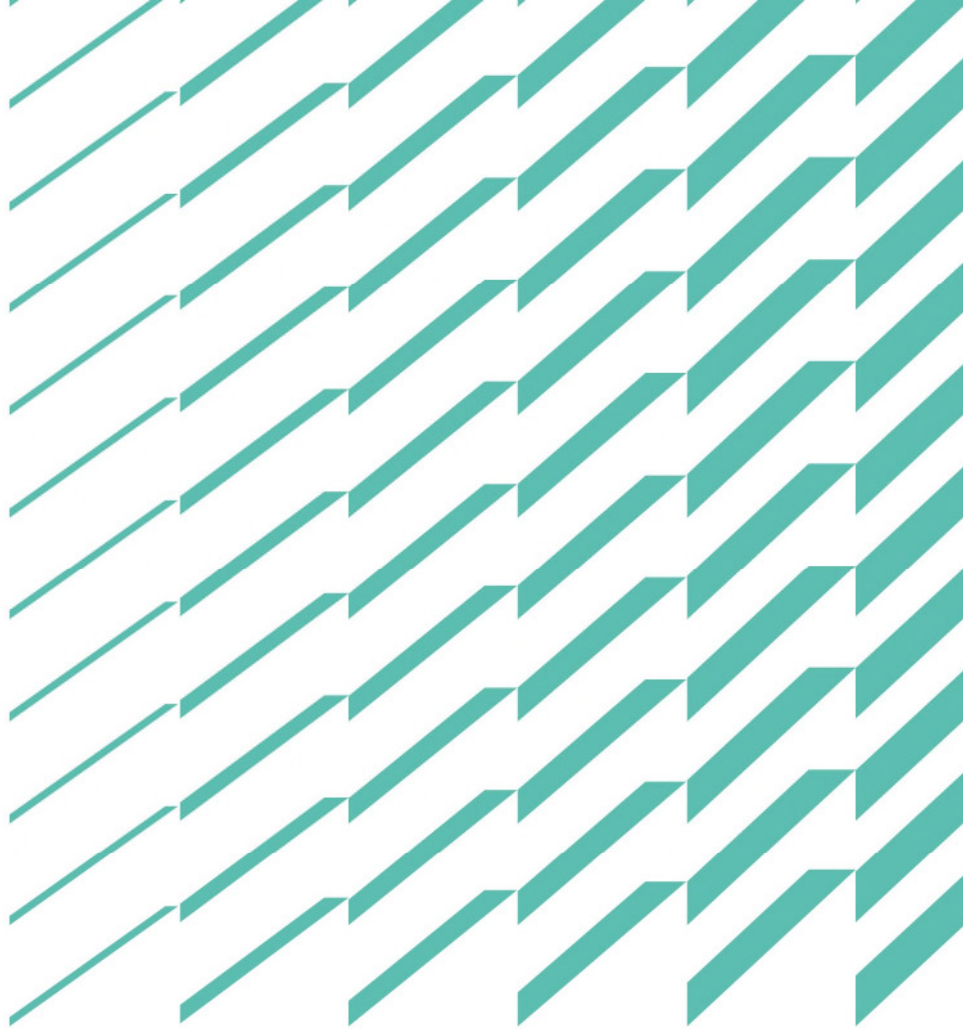
D. Transporting



- “뇌졸중 환자에게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실시(주3회 총 18회기)하여 신체심리재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원예활동의 운동학 및 운동역학적 특성 연구를 바탕으로 원예활동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 기능적 동작인 뿌기와 잡기, 쪼그려 앉기, 한발 내딛기, 허리 구부리기로 선정하여 원예치료프로그램에 적용함. 구체적으로는 텃밭 구획하기, 텃밭조성하기, 텃밭모종심기, 종자뿌리기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뇌졸중 환자는 기존 재활치료와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 원예치료군의 원예치료 실시 전과 후에 신체기능회복(예, 상지기능, 악력, 손가락 장악력, 균형감, 일상생활수행능력)은 기존 재활치료에만 참여한 대조군의 신체 기능 회복 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최근에는 원예치료가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된다. 예를 들어, 학교 텃밭을 활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이상미 외, 2020), 마을 텃밭을 활용하면 아파트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장현진, 2020) 등은 원예치료가 비단 치료적 목적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계 회복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 치매, 사회복지 수형자, 장애인, 호스피스 환자부터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청년, 1인가구(청년, 중년,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돌봄으로서 원예 활동이 활용된다. 예를 들어,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노인에게 인지 및 정서 기능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이정숙, 2021; 이상미·서정근, 2001) 등 사회적 돌봄 차원에서 원예치료를 바라보는 연구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예치료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사회복지 예정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지원하는 교재와 프로그램(2013), 암환자의 회복관리와 완화의료 관련 프로그램 사례(2016) 등을 소개하며 사회적 돌봄 방법으로서 원예치료의 가능성과 활성화를 꾀한다.



제4장

결론

1. 현대사회의 위험과 문화의 기능
2. 전람구도 문화정책에 대한 제언



제4장 결론

1. 현대사회의 위험과 문화의 기능

- 울리히 벡(Urich Beck)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한다. 벡이 말하는 현대사회의 위험은 불확실성이다. 산업사회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던 효율적 생산체제와 과학·기술에서 불확실성이 비롯되었다는 게 벡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의 위험이 위생과 기술이 낙후해서 발생하거나 부의 불평등에 따른 빈곤에서 파생되었다면, 현대사회의 위험은 오히려 고도화된 과학·기술의 결과물이자 과학적 합리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있다고 말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개인화는 기존 사회구조로 설명되지 못한다. 산업사회의 결과물인 환경 파괴와 핵은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지구적 위험이다.
- 기든스(Giddens)에 따르면, 오늘날 근대성은 추상 체계의 발달을 통해 사회제도와 개인의 일상을 변화시켰다. 표준화된 시간과 시간표,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상호작용, 지식과 전문가에 대한 새로운 신뢰 방식은 기존 산업사회의 특성과 다른 새로운 현상을 초래하면서 현대사회를 역동적이면서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현대사회에서 익명과 상호작용이 확장되는 반면, 가족과 친족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친밀성 등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 현대인은 '존재론적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 벡과 기든스처럼 현대사회의 문제를 분석한 바우만(Bauman)은 개인주의에 따른 사회적 연대가 감소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다뤘다. 바우만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는 세계화·정보화·신자유주의 시대의 산물로 정치·경제·사회변화에 따라 잉여 인간이 되어 간다. 현대인은 국가를 넘어 유동하는 이방인, 정보통신의 발달로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의 노동자가 아닌 쓸모가 많지 않은 노동자, 대체 가능한 노동자, 엔터테인먼트의 소비자이다. 정치·경제·사회에서 주체가 되지 못한 개인에게 공포와 불안이 내재화되는데, 불안은 생활 곳곳에서 끈적거리며 항상 이어진다.

- 위험사회는 “위험의 개인주의화”로 설명된다. 현대인은 독립적인 주체이지만, 독립은 사회적으로 규정되었던 생애가 이제 개인 스스로 생산하고 거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기든스가 말하는 추상 체계로 인해 사회 복잡성이 증대하고 분화가 확대되면서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영역이 증가한다. 개인은 독립적이지만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타자와 구별 짓는 일에 매진한다. 하지만 미디어를 따라 하는 자기 계발은 타자와 닮아가는 일에 불과하며, 타자와 무한경쟁으로 피로사회에 살지만 삶 전체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위협을 받는다.
- 사람과 체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사회에서 개인은 독립적으로 끊임없이 일을 선택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선택에 따르는 위험도 오롯이 개인이 져야 한다. 과거에는 개인의 실패와 불행을 공동체가 보호하는 공인된 장치가 있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권위 있는 공인된 처방이 없다. 공인된 처방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의 위험을 스스로 책임지는 현대인은 불안한 현실과 막연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노동 윤리를 가지며 피로사회에서 더 오랫동안 더 죽어라 일을 한다.
- 벡(1986)은 현대사회가 “세계화, 개인화, 고용감소와 생태 위기라는 네 가지 과정에 의해 산업사회와는 다른 국면에 처해 있다”라고 본다. 벡의 분석처럼 기든스, 바우만, 한병철 역시 현대사회의 위험과 공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과로 생각한다. 세계화, 정보통신 발전 등으로 형식적 독립과 자유를 얻었으나 사회적 연대가 사라져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주의)의 모습이 곧 위험이다. 또 핵으로부터의 위험, 기후 변화 등 인간의 인지를 벗어난 지구적 생태 위기는 자본주의 효율성과 고도화된 과학·기술이 만들어 낸 위험이다. 코로나19 대유행도 산업사회부터 이어져 온 발전주의적 과학·기술 사회와 무관하지 않다.
- 여러 학자가 분석한 내용과 코로나 팬데믹에서 불거진 지구적 위기를 종합하면, 현대 사회의 위험은 개인과 사회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신뢰 관계가 무너진 불확실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존재론적 안전의 불안정성이며, 둘째, 자본주의 효율성과 고도화된 과학·기술이 만들어 낸 지구적 위험으로서 환경 위기이다.
- 현대사회의 위험은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대응 역시 사회적이어야 한다. 존재론적 안전의 불안감에 힘들어하는 개인일지라도 이들이 처한 위험은 신자유주의의 효

올화가 불러온 사회적 신뢰 관계의 변화, 노동의 유연성에 따른 두려움의 노동 윤리, 피로사회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환경 위기 역시 발전주의 기반의 과학·기술이 고도화 되면서 빚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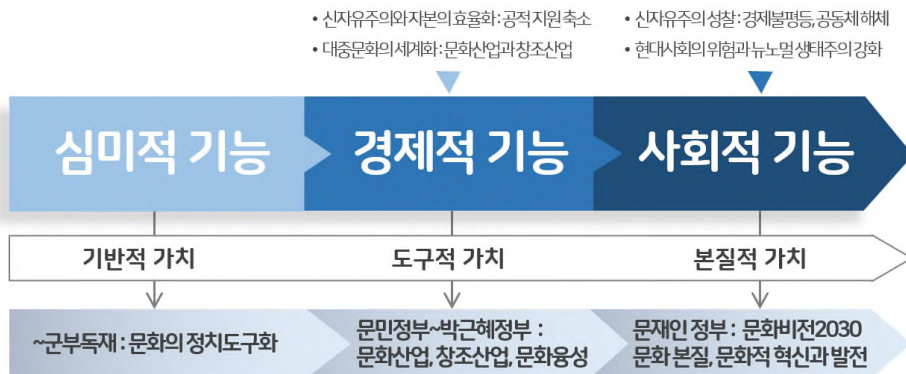
-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있는 위험사회에서 개인화는 여러 위험의 원인이면서 현대사회의 새로운 원리로 작동한다. 벡에 따르면, 노동 유연화를 부른 경영 합리성의 급진화는 노동자의 계급 정체성을 개인화하였다. 위험을 생산하는 과학 기술적 합리성은 정치를 개인화해 제도 밖의 하위정치를 발생시켰다. 위험은 개인을 통해서만 인식되므로 개인이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 현상, 공민(citoyen)정치가 등장하였다.
- 기든스는 생활정치를 말하는데, 그는 생활정치를 친밀성의 구조 변동이나 생활양식의 선택, 또는 삶의 질 문제로 이해하며, 빈곤의 절박함으로부터 해방되어 보다 고차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아의 문제를 다룬다고 설명한다. 지역 공동체와 친족 내의 인격화된 연관은 이제 개인 간 신뢰의 중심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신뢰는 규범과 제도가 담보해 내는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상호작용해야 얻을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추상 체계 내에서 구성하고 찾아야 한다.
- 현대사회의 개인과 관련한 위험은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하다. 달라진 신뢰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공인된 처방을 제공해야 한다. 산업사회의 실업과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회복지가 탄생한 것처럼, 정신적 심리적 불안감 속에서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신적 심리적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벡이 말하는 하위정치, 기든스가 말하는 생활정치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공동체는 개인화, 소외 등 현대사회 병리적 현상을 해결해 줄 긍정적인 가치로 재현되기도 하고, 전체주의적이고 폐쇄적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래서 공동체에 관한 통일되고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는 게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자기 개방의 상호성을 통해 유지해야 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사회적 결속 등의 핵심이다.
- 개인의 존재론적 안전의 불안정성이라는 정신적 심리적 위험, 이러한 위험의 대응으로서 공동체적 하위정치(생활정치) 등은 위험의 대응으로 ‘문화’가 중요함을 증명한다.

문화는 소통을 특성으로 하며, 소통을 통해 상징체계를 공유하고,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 또 문화는 정신적 심리적 영역이다. 즉 현대인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는 대응으로서 문화적 처방이 필요하다.

- 발전주의적 산업사회에서 비롯된 환경 위기는 생태주의적 문명으로 전환해야 가능하다. 김기봉(2020)은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문명을 문명의 생태적 전환, 근대 발전주의 문명 공식의 해체, 디지털 공간으로의 전환으로 설명한다. 진정한 뉴노멀은 발전주의적 문명을 해체하고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공존과共生, 그리고 새로운 발전으로서 공진화에 있다(이흥재, 2013). 공진화의 출발은 공존이며, 문화다양성이 곧 공존이다. 이는 생태주의 문명이 공존이라는 문화적 가치의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환경 위기 대응에서도 문화적 실천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 문화의 공적 가치를 다루는 연구를 보면 대체로 본질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구분한다.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poration)는 문화의 기능을 공적과 사적, 도구적이면서 본질적인 기능으로 구분하여 모두 여섯 가지 편익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었는데, 문화의 가치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강조되는 가치가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미적 가치를 강조하던 시대를 지나,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등장한 창조산업 시대에는 경제적 가치가 강조되었고, 신자유주의 효율화의 한계가 드러난 이후에는 문화의 본질로 회귀해야 한다는 움직임과 함께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었다.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서 비롯된 개인의 존재론적 안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방안, 즉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커졌다. 영국에서는 예술의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을 통해 사회적 고독과 소외를 해소하는 문화정책이 강화되었고,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의 사회적 기능이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에 문화리빙랩이 정책과제에 포함되듯이,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문화정책이 도입되었다. 세계적 관심사인 기후 위기 등과 관련해서도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적 삶의 동인(動因)이자 해결방안(方案)으로서 문화의 역할이 그것이다.

- 이처럼 문화의 공적 가치는 심미적, 미학적 기능이라고 하는 본질적 가치에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경제적 가치가 강조되었다가, 최근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사회적 기능이 강조된다. 그런데 많은 연구에서 미학적, 심미적 가치를 본질적 가치로 설명하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을 도구적 가치로 구분한다. 도구라는 말에는 부수적이고, 자칫 본질에서 벗어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창조산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문화의 본질에 회귀하자는 목소리에는 경제적 기능이라는 도구적 가치에 집중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의미가 강하다. 사회적 기능을 도구적 가치로 구분하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화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도 도구적 목적에 불과하여 본질을 강조하는 정책에서 배제될 수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문화의 심미적 기능을 본질적 가치라는 말 대신, 심미적 미학적 기능이 문화의 공적 가치의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기반적 가치’로 개념화하고, 심미적이고 미학적인 문화 활동 자체가 사회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 가치로 개념화한다. 문화 활동의 부수적 효과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예,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 관광 진흥 효과, 공간 재생 효과 등)는 문화가 도구로 활용되어 얻어진 결과라는 측면에서 기존처럼 도구적 가치로 구분한다.

[그림 4-1]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문화의 주요 기능에 대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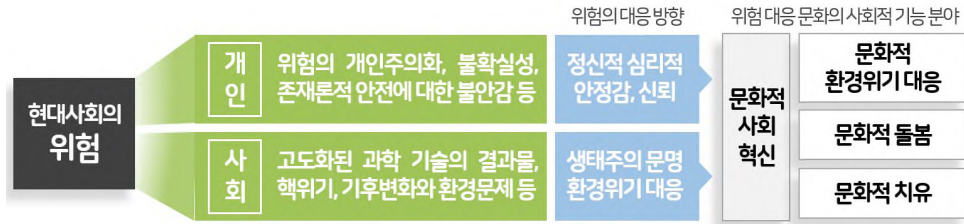
- 모든 문화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를 누리거나 직접 창조적 활동 또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고 자동으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도 아니

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응하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건과 맥락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사회적 영향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분석해야 한다. 또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연구가 공동체와 사회보다 개인 단위 연구가 많다는 지적은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문화정책 영역과 연구가 개인에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2. 전라북도 문화정책에 대한 제언

-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적용한 정책이 활성화되려면 사회문제를 명확하게 짚어내는 게 우선이다. 즉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집단과 사회가 겪는 위험을 분석하고, 이 위험에 대응하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탐구하여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유형화된 문화의 사회적 가치별로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어떤 조건과 맥락에서 사회적 효과가 창출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문화정책에 적용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게 선도적 사례이다. 문화 활동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살펴보고, 사례에서 얻어진 시사점을 기반으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세부 사업을 발굴하여 정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 연구에서는 문화의 사회적 기능으로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응하는 분야로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현대사회의 위험은 개인의 존재론적 불안감과 환경 위기 등 사회적 불확실성에 있다. 먼저 문화적 사회혁신은 문화의 사회적 기능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분야로, 문화의 혁신적 가치가 지역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는가를 보여준다. 문화적 사회혁신 분야에서 소개한 사례에서 개인과 사회의 치유 효과가 나타나듯이 문화를 통해 개인의 존재론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분야로 문화적 돌봄과 문화적 치유를 제안하였다. 환경 위기와 관련해서는 친환경적 활동을 하는 대상으로서 문화 분야라는 소극적 측면을 넘어, 문화가 환경 위기에 직접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도 문화적 사회혁신이 작동한다.

[그림 4-2] 현대사회의 위험과 문화의 사회적 기능 관련 대응 분야



-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응하여 문화의 사회적 기능을 실천하려면 기존 문화정책의 방향을 새로이 해야 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문화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한 영역을 지역문화정책의 주요 분야로 설정하여야 한다. 생활문화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주민의 문화적 활동과 관련된 독자적인 정책 분야로 자리를 잡았다. 전문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하고 이를 주민이 즐기는 행위를 하나의 예술진흥정책으로 이해했으나, 이제는 주민의 생활 속 활동이 전문예술의 창작 활동과 다르며 이를 활성화하는 독자적 정책 분야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 현재 사회적 효과와 관련한 문화 활동은 대체로 다른 분야를 보조하는 매개 수단으로 활용된다. 도시재생에서 문화 프로그램이 그러하고, 농촌개발에서 문화시설이 그러하다. 경제에서도 문화는 감성을 자극하는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 이는 문화가 현대사회에서 중요해졌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면서도 한편으로 문화가 독자적인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채 다른 분야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소비됨을 말해준다. 독자적 영역으로서 문화의 사회적 기능 관련 정책 개발이 필요한 이유이다.
-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 사회혁신, 문화적 환경위기 대응, 문화적 돌봄, 문화적 치유를 제안하였다. 연구진이 제안한 이 네 가지 유형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미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본질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 사회혁신에서 문화는 주민 대상 향유프로그램으로 활용된다. 도시를 혁신하는 사업에서는 예를 들어 공간의 오래된 기억을 콘텐츠로 만드는 일에 쓰인다. 독자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가져다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 문화적 사회혁신은 문화의 본질적 특성인 다양성의 가치, 소통과 공유를 기반으로 기존 혁신체계가 달성하지

못한 하위정치를 실현한다. 문화적 치유도 예술가가 하는 창작활동 중심 치유예술이 아니라 치유문화 전문가가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독자적인 치유 분야를 말한다.

-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예술인복지 등은 모두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활동과 관련된다. 이 개념이 독자적으로 정책화되기 전에는 전문예술가가 창작 활동을 하고 이를 주민이 즐기는 이른바 예술진흥사업에 모두 포함되었다. 독자적 영역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주민의 수요가 늘어나고 사회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등은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독자적인 문화 영역으로 구축되었고, 창작을 활성화하는 지원사업과 별개로 예술인복지라는 정책영역이 만들어졌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의 사회적 기능이 필요해지는 만큼 돌봄문화, 생태예술, 치유문화 등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법제화를 통한 국가 차원의 독자 정책화가 중요하나, 전라북도에서 조례 제정 또는 정책 실천을 통해 관련 분야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과제를 살펴보면, 문화행정 관계자, 지역문화(예술)인, 문화 분야 공직 조직(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시설 등) 관계자, 기타 문화정책 관련 종사자 등에게 문화의 사회적 기능의 필요성과 적용 방향을 알리는 게 우선이다.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문화가 왜 중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를 실현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문화 활동을 기획·실천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구상하는 공론화 장(場)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내에서 다양하게 진행하는 문화정책 토론회·세미나·포럼 등에서 주제로 다뤄지길 기대한다.
-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전라북도 지역문화 관련 법정계획에 담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제2차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계획(2023~2027)이 수립된다. 이 계획에서 핵심 이슈는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화이다. 문화집중화에서 문화자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이 계획에 문화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교육지원 방향과 실천과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표 4-1]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계획에 대한 제언과 문화의 사회적 기능 적용 예시

- 계획기간 내 비전과 목표에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 (참조) 제1차 지원계획의 비전 :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지역 생태계 구축, 지역특화를 강조
“생활에서, 모두가 향유하는 ‘전북’문화예술교육”
 - (제언) 제2차 지원계획의 비전 : 문화자치 관련 문화예술교육 자치기반 구축,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반영한 ‘치유와 돌봄’의 역할을 강조 (예시)“지역 주도 문화예술교육으로 돌봄사회 실현”
- 제2차 지원계획의 주요 전략에 사회적 기능을 반영하여야 함
 - (참조) 제1차 지원계획의 전략 : 제도적 정책적 기반 마련, 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과 수요자 중심 지원, 교육콘텐츠의 지역브랜드화와 성과 확산
 - (제언) 제2차 지원계획의 전략 : 문화자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제고(고도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기능 강화 등

- 둘째, 문화 분야 지원사업의 방향과 체계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원되는 문화사업을 보면 대개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집중된다.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거나, 주민이 창작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수혜자는 주민 개개인이며, 지원 목적은 주민의 문화적 취향 또는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다.
- 만약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지원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 개인의 취향 충족이나 문화적 욕구 해소가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치유가 목적이 된다. 공동체를 지원하더라도 사업의 목적이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을 완화하고 이주민의 정착을 돕고자 한다면 이는 기존과 다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환경 문제를 다루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환경 전문가 참여가 필수이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조건에 환경 전문가의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 예를 들어, 공적 예산이 지원되는 문화사업 대상으로 취향형과 혁신형으로 구분하거나, 개인 대상의 가치와 사회 대상의 가치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처음부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 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면서 사회혁신형 문화공동체가 육성되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 문제(예, 원주민과 이주민 갈등, 이주민의 정착, 지역 내 환경 문제 해소, 정신장애인의 차별 등)를 해결하는 성과를 만들었다는 예가 대표적이다.

- 문화를 즐기다 보면 자연스레 사회적 효과가 생긴다는 논리는 현재 지원방식이다. 문화의 사회적 기능이 목적인 사업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구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사업을 기획하고,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실행한다. 사회적 기능에 필요한 전문역량도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술가가 창작 활동 과정으로 하는 치유나 돌봄이 아니라, 치유와 돌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예를 들어, 치유와 돌봄 역량을 갖춘 예술가, 예술적 역량을 갖춘 치유와 돌봄 전문가)가 실행 주체로 나서야 한다. 결국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실현할 지원방식과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문화사업을 처음부터 문화적 욕구 해소와 사회문제 해결형으로 구분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또는 사회적 기능과 관련한 사업에는 관련 전문인력을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지원할 때 문화교육사 참여를 유도하듯이, 치유나 돌봄이나 환경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관련 단체(의료·보건단체, 사회복지단체, 환경단체)와 협업하도록 유도하는 지원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기관, 문화도시 사업 등에서 사회적 기능 관련 사업을 분리하여 공모하므로 이를 참조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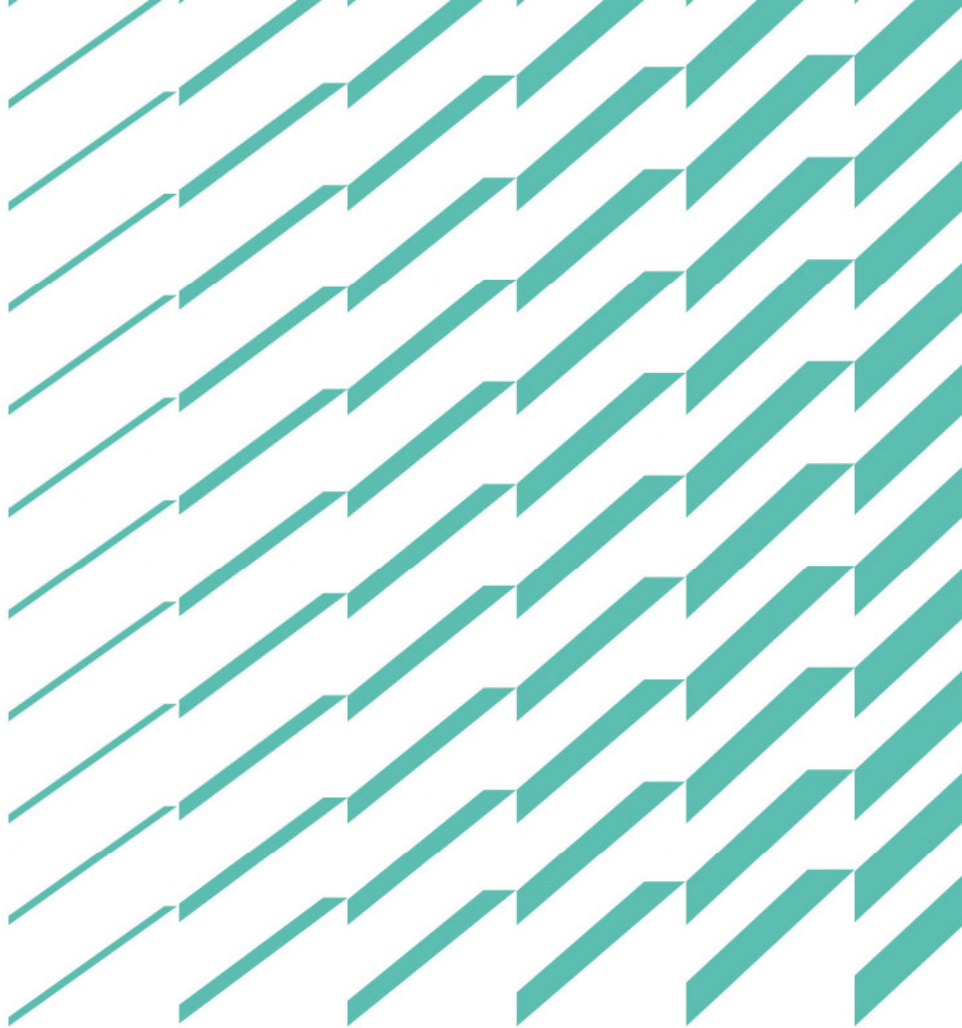
[표 4-2] 지역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사업의 공모 사례: 완주문화도시 '메인드 인 00' 사업

- 지원대상
 - 준비형 :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모임 (200만 원 무정산 지원)
 - 성장형 : 등록증상 주소지가 완주군인 공동체 (최대 1,200만 원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준비형 : 지역 내 문화적 역할을 수행할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사업 지원
 - 성장형 : 공동체가 바라본 **지역 문제의 문화적 해결 대안을 찾아가는 문화사업 지원**

- 셋째, 이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유형과 현대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적 기능 유형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는 세부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문화적 환경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으로서 문화시설 등이 추진할 과제, 지역주민의 인식을 전환할 동인으로서 문화사업의 방향과 지원계획, 문화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대상의 발굴과 실행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기존의 예술 장르 중심, 개인 취향 중심의 전달체계로는 불가능하다. 새로운 가치에 부합하는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에 대해서도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

- 원예치유는 임상시험을 통해 치유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체계화함으로써 독자적인 치유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이를 기반으로 치유농업이 법제화되었다. 이와 달리 문화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매우 부족하다. 그나마 진행하는 효과 측정도 실증적이지 않다. 문화의 가치가 가지는 무형성·비가시성으로 계량적 측정이 어렵다지만 문화가 미치는 영향을 맥락에 의존하여 추상적 수준에서 검토하는 한계를 보인다.
- 문화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나마 진행하는 효과 측정도 실증적이지 않다. 문화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게 어렵지만, 기존 연구는 대체로 문화가 미치는 영향을 맥락에 의존하여 추상적 수준에서 검토하는 한계를 보인다. 문화의 사회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체계화하여야 독자적인 정책 분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여러 사례가 보여주듯이 문화의 다양한 사회적 효과는 분명하다. 이를 측정하여 그 효과를 객관화하는 방법이 더해져야 치유농업의 법제화처럼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문화 분야의 법제화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REFERENCE

- 강대기. (2003). 패러다임 변화와 공동체의 통합개념 구축. 농촌사회, 13(2), 7-40.
- 고창균. (2019). 고창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치유사업 개발 연구보고서. 고창군.
- 공선희. (2007). 한국 노인의 돌봄자원과 돌봄기대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구선아 & 장원호. (2020). 느슨한 사회적 연결을 원하는 취향공동체 증가 현상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 57, 65-89.
- 국가인권위원회. (2020).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김경미, 문지혜, 정순진 & 이상미. (2013). 한국 치유농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0(4), 909-936.
- 김곡미. (2014). 업사이클링(Up-cycling) 브랜드 사례 조사를 통한 디자인 활성화 전략에 대한 연구.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38, 147-161.
- 김규원, 지금중, 염신규 & 양혜원. (2018). 담론 논쟁의 동학(dynamics)으로 바라본 문화정책 73년. 문화정책논총, 32(2), 5-32.
- 김기봉. (2020).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과 신문명 패러다임. 철학과 현실, 2020.9, 105-130.
- 김기현. (2003). 주민자치의 기반으로서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연구: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 아파트 5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김남선 & 김남희. (2000). 지역공동체와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학술지, 10, 1-30.
- 김명수 & 김자영. (2018). 국가 주도에서 민간 자율로: 한국 문화산업 정책기조의 변환 시도. 문화산업연구, 18(4), 53-62.
- 김미영. (2015).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여러 형식. 사회와 이론, 27, 181-218.
- 김상철 & 김진아. (2015).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 나타난 공동체의 특징: 장 퓌 낭시의 '무위의 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11(1), 227-252.
- 김세미. (2017). 영국 문화정책에서 나타난 다양성(diversity)과 우수성(excellence)의 문제. EU 연구, 46, 133-176.
- 김수정. (2018). 문화사회학적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문화정책사, 1910-2016 [박사학위논문, 이화여

-
- 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왕동, 박미영, 장영배 & 송위진. (2014).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용현. (2020). 원예치료활동의 유형 재분류 및 대상자 성격기질별 선호기반 프로그램 계획 [박사 학위논문, 경상국립대 일반대학원].
- 김준수, 최명애 & 박범순. (2020). 팬데믹과 인류세 자연 :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간 너머'의 생명정치. 공간과 사회, 74, 51-84.
- 김찬우 & 박연진. (2014).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노인돌봄문화에 대한 탐색적 고찰. 비판사회정책, 44, 82-115.
- 김현미. (2010). 후기근대를 통찰하는 비판이론의 대서사. 창작과비평, 38(1), 428-431.
- 김형주 & 최정기. (2014). 공동체의 경계와 여백에 대한 탐색: 공동체를 다시 사유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14(2), 159-191.
- 김혜경. (2017).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 비혼 청년층의 공동주거 사례를 통해 본 돌봄과 우정의 공동체 실험. 한국사회학, 51(1), 155-198.
- 김호연. (2012). 역사리텔링과 상흔의 치유-구술사 활용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1, 31-54.
- 남미순. (2018). 라이닝거의 문화 돌봄이론에 대한 자연주의적 해석. 범한철학, 91(4), 257-284.
- 노영순 & 장훈. (2021).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농촌진흥청. (2019). 치유농업 용어 가이드.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13). 사회복귀예정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결과 원예치료 가이드. 농촌진흥청.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16). 암암 괜찮아 괜찮고 말고: 말기암용. 농촌진흥청.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16). 암암 괜찮아 괜찮고 말고: 성인암용. 농촌진흥청.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16). 암암 괜찮아 괜찮고 말고: 소아, 청소년암용. 농촌진흥청.
- 원예연구소. (2004). 원예치료의 적용과 효과: 국내·외 연구결과. 농촌진흥청.
- 더글라스, 월다브스키. (1993). 환경위험과 문화 (김귀곤, 역). 명보출판사.
- 뒤르케임, 에밀. (1982). 사회분업론. 삼성출판사.
- 퍼트넘, 로버트 D. (2000). 나 홀로 불링 (정승현, 역). 페이퍼로드.
- 퍼트넘, 로버트 D. (2006).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안청시, 역). 박영사.
- 류용재. (2017). 위험한 불확실성의 시대, 쓰레기가 되는 삶들. 한국언론학보, 61(3), 257-282.

- 류지영. (2019). 인류세 시대의 미술교육: 인간과 비인간 사이 관계성으로서의 예술. *조형교육*, 71, 61-81.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 및 발전 방안 연구.
- 마페줄리, 미셸. (2017). 부족의 시대 (박정호, 신지은, 역). 문학동네.
- 미우라 히로키. (2013). 사회혁신 담론에서 행위자 개념에 관한 고찰: 유사 개념의 포괄적 분류와 사회생태계적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47(5), 341-36.
- 바우만, 지그문트. (2000). 액체근대. 필로소픽.
- 박성봉. (2011). 멀티미디어 시대 대중예술과 예술무정부주의: 대중예술, 그 만만함의 미학을 풀다. *일빛*.
- 박성봉. (2012). 감성시대의 미학: 미학과 감성학. *일빛*.
- 박신의. (2013).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 분석과 정책적 함의, *문화정책논총*, 27(1), 57-75.
- 박신의. (2018).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을 통한 장애 예술의 개념적 연구. *문화예술경영학 연구*, 11(2), 39~61.
- 김지혜, 김현경, 박한희, 송지은, 이승현, 장서연, 조혜인 & 한가람. (2019).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9. SOGI법정책연구회.
- 서울연구원. (2018).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으로 시민건강 증진(영국 런던市). *세계도시동향*, 442(2018.11.08.)
- 석재은. (2018). 돌봄정의(Caring Justice) 개념구성과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 *한국사회정책*, 25(2), 57-91.
- 성제환. (2004). 문화경제학. 한울아카데미.
- 손민정. (2021). 소리, 생태, 그리고 생태음악학. *한국예술연구*, 33, 5-27.
- 손영창. (2015). 낭시의 공동체론에서 공동-존재와 그것의 정치적 함의. *철학논총*, 82, 281-304.
- 송미진. (2013). 생체신호를 이용한 우울증 환자 대상 원예치료 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
- 신용하. (1987). 공동체이론, 문학과지성사.
- 신지은. (2011). 액체근대의 지옥 속에서 유토피아를 살아내기. *로컬리티 인문학*, 6, 343-352.
- 호네트, 악셀. (2011). 인정투쟁 (이현재, 문성훈, 역). 사월의 책.
- 안제준. (2018). 원예치료정원의 성능개선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양현미. (2007). 문화의 사회적 가치 :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양혜원, 김현경 & 윤지연. (2019). 예술의 가치와 영향 연구: 국내외 담론과 주요 연구결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엄찬호. (2010). 인문학의 치유적 의미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25, 421-441.
-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2021). 문화공동체 활성화 언제나 지원」완주형 문화적 사회혁신 개념 정립 및 유형 연구. 완주문화재단.
- 백, 율리히. (1986).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 원제무. (2011). 창조도시 예감. 한양대학교 출판부.
- 윤찬영. (2019). 줄리엣과 도시 광부는 어떻게 마을과 사회를 바꿀까. 바틀비.
- 이상미 & 서정근. (2001). 고령화 사회와 원예치료사의 역할.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지, 4(2), 21-29.
- 이상미, 서한솔, 윤형권, 정영빈, 홍인경 & 이숙. (2020). 기본심리욕구이론을 바탕으로 한 학교텃밭 활용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실과교육연구, 26(4), 181-200.
- 이승훈. (2018). 예술로서의 삶-다원주의 시대의 '시민됨'. 공공사회연구, 8(1). 205-237.
- 이아영. (2017). 원예치료활동의 운동학 및 운동역학적 특성 분석과 재활치료적 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이정숙. (2021). 인지재활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 및 정서기능 개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이주성 & 신승훈. (2016). 미래 경제와 사회적 기업. 도서출판 청람.
- 이진경. (2010). 코뮌주의: 공동성과 평등성의 존재론. 그린비.
- 이현서. (2014). 문화복지 개념 정의 대한 내용 분석 : 학술지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1(3), 61-80.
- 이흥재. (2006). 문화정책. 논형.
- 이흥재. (2013). 지역 문화정책과 사회적 자본의 통합적 공진화 : 시론. GRI연구논총, 15(2), 213-242.
- 이희인 & 박신의. (2021). 암환자 대상 예술치유 프로그램 효과 연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암병원 '온라인 연극예술치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교육문화연구, 27(2), 461-482.
- 장세길 & 육수현. (2021). 문화향유 중심에서 사회혁신형으로 - 전라북도 사례로 본 문화자치역량

- 격차와 문화공동체 육성 방향. 문화정책논총, 35(1), 105-131.
- 장현진. (2020).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아파트 텃밭 프로그램이 아파트 주민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전북연구원. (2012). 문화복지 기준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 정서화. (2017). 사회혁신의 이론적 고찰 : 개념의 유형화와 함의. 기술혁신학회지, 20(4), 888-914.
- 정병결 & 송위진. (2019). 전환적 사회혁신론과 사회혁신: 전환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회혁신정책.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9(4), 1-28.
- 정성훈. (2011). 현대 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의. 철학사상, 41, 347-377.
- 정철현. (2004). 문화정책론. 서울경제경영.
- 조부근. (2007). 문화선진국의 문화정책과 문화외교,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속원.
- 조철기. (2019). 인류세의 지리교육적 함의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2), 87-97.
- 조현성. (2012). 문화동호회를 활용한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진명숙. (2020). 지역공동체의 구성과 재현-충남 홍동지역에 관한 텍스트 담론 분석. 실천민속학 연구, 35, 427-470.
- 최병두. (2003). 공동체 이론의 전개 과정과 도시공동체 운동. 도시공동체론. 한울아카데미, 57-80.
- 최병두. (2006). 살기좋은 국토 공간 만들기를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 방안. 도시문제, 6, 45-56.
- 최보연. (2017). 영국 문화정책 백서(The Culture White Paper) 심층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보연. (2019). 고독해결을 위한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 정책 확산과 문화정책적 함의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6(1), 233-268.
- 퇴니스, 페르난디스. (2017).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곽노완, 황기우, 역), 라움.
- 트론토, 조안 C. (2021). 돌봄민주주의 (김희강, 나상원, 역). 박영사.
- 로자, 하르트무트. (2017). 공동체의 이론들 (곽노완, 한상원, 역). 라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예술치유 활성화 추진모델 개발 및 사업타당성 연구.
- 한병철. (2010). 피로사회 (김태환, 역). 문학과지성사.
- 함규진. (2014). 21세기의 예레미야, 지그문트 바우만. 인물과사상, 2014.10.
- 행정안전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9). 민·관이 함께,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스스로 해결단 구성·운영 길잡이.

-
- 허라금. (2018). 관계적 돌봄의 철학: '필요의 노동'을 넘어 '정치적 행위'로. *사회와 철학*, 35, 67-90.
- 현명선, 김영희, 강희선 & 남경아. (2012). 정신 장애인의 낙인(stigma) 경험. *대한간호학회지*, 42(2), 226-235.
- 홍지영. (2017). 불안장애의 인지행동 통합예술치료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희망제작소. (2016).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는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 *희망 이슈*, 8.
- Ciulla, Joanne. B. (2001). *"The Working Life."* New York. NY: Three Reverse Press.
- Davis, S. (1997). *Development of the profession of horticultural therapy*. Haworth Press, NY, USA.
- Esposito, R., (Campbell, T., (Translation)). (2009). *Communitas*. Stanford University Press.
- Gans, H. (1982). *The Urban Villagers*. New York: The Free Press.
- Giddens, Anthony. (1991).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 Parsons, T. (2007). (Ed. Sciortino, G.), *American Society: Toward a Theory of Societal Community*. Paradigm Press.
- RAND Corporation. (2004). *Gifts of the Muse: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 (McCarthy, Ondaatje et al.).
- Relf, P.D. (1990). Psychological socialological response to plants: Implications for horticulture. *HortScience*, 25, 11-13.
- Scholz, S. (2012). *Chilgok internation horticultural therapy conference*. Chilok ATS Center, Chilgokcun, Korea.
- Wirth, L.,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1), 1-24.

기본연구 2022-01

현대사회의 위험과 문화의 기능에 관한 사례 연구

발 행 인 | 권 혁 남

발 행 일 | 2022년 1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72-8 9330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위팔취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